



양평의 역사와 문화

우리 양평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남북으로 맑은 한강이 흐르며
중심에 명산인 용문산의 정맥이 고루 뻗어 내린 산하경관이 천혜적으로 수려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는 일 천여년 동안 도성의 사대부들이
낙향, 정착하여 후학훈도(後學訓導)로 많은 선비와 충의우국지사(忠義憂國之士)를
배출하며 찬란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양평의 역사와 문화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애향정신의 맥락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우리 군의 발전 과정을 총망라한 향토의 역사서인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8만 5천 군민과 함께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남북으로 맑은 한강이 흐르며 중심에 명산인 용문산의 정맥이 고루 뻗어 내린 산하경관이 천혜적으로 수려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는 일천여 년 동안 도성의 사대부들이 낙향, 정착하여 후학 훈도(後學訓導)로 많은 선비와 충의우국지사(忠義憂國之士)를 배출하였고 한강문화권을 형성한 발자취가 곳곳에 산재하여 여러 곳에서 고유지명이 생성되어 전래되고 있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호국의병(護國義兵)들의 활동근거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난의 역경 세월 속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찬란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기존 군지가 발간된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주민자치가 시행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군지는 기존 군지의 내용을 충분히 참조하되 전면적인 재작업 차원에서 양평지역의 역사와 지리, 환경, 생활문화, 산업경제 그리고 문화관광자원을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수록하여 우리 고장의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군지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4년간 군지 발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시다가 건강관계로 사임하신 신승한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매사에 바쁘신 중에도 군지편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편찬위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대한 자료수집과 집필, 편집, 발간에 이르기까지 진력해주신 (주)역사만들기 이기만 대표님을 비롯한 집필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군지가 발간되기까지 지원을 해주신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군지가 우리 고장의 역사, 지명, 유적, 인물에 얽힌 조상의 생활상이나 애환이 재조명 되어 애향정신의 맥락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향토사 교육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평군지편찬위원장 김 유 택
양평문화원장

우리 선조의 힘찬 발자취가 빛나는 문화유산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선조가 남긴 훌륭한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후손의 도리를 다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수천년 세월을 뛰어넘는 찬란한 빛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두터운 망각의 그늘 속에 무심히 갇혀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 정중앙에 점을 찍으면 그곳에 양평군이 있습니다. 878.77km²의 아름답고도 넓은 터 곳곳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또렷이 각인된 값진 유물과 유적을 지닌 땅이며, 성리학자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 선생을 필두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슬한 인물을 배출한 곳으로,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온몸을 던져 항거한 의병의 첫 출병지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땅, 양평인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정립하고 집대성하는 일은 늘 미완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양평의 역사와 문화』 역시 더욱 완벽한 향토사와 지역문화의 발굴과 복원 그리고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우리 선조가 남긴 힘찬 발자취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담아가는 미완의 보물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성의를 다해 『양평의 역사와 문화』 편찬과 발간에 애써 오신 김유택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8만 5천 양평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일은 곧 현대문명의 병폐를 치유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선조의 얼과 슬기가 깊이 배어 있는 양평의 역사를 정립하는 일은 곧 양평의 찬란한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 따라서 양평의 역사와 문화가 갈피마다 생생히 숨쉬고 있는 『양평의 역사와 문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손에게도 참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꼭 필요한 교과서라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은 양평군민의 정신적 풍요와 바람직한 지역발전의 열쇠는 우리 양평의 역사와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우리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더욱 땀흘려 양평의 찬란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군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양평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평군수 한택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우리 고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보존하며 이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양평의 역사와 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1년부터 지금의 새로운 군지가 발간되기까지 업무를 주관하여 오신 양평문화원장님, 군지편찬위원님, 집필위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장의 지난 과거의 문화와 역사에서는 선현들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홀연히 일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맞선 의향의 고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농경문화를 천업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의 삶에는 진솔하고 순박한 숨결이 숨쉬고 있다할 것입니다.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지에 수록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보다 밝은 앞날이 펼쳐지리라 믿어 확신합니다. 또한 새로운 군지에 가득 실린 소중한 자료가 군민 여러분에게 널리 활용되어 희박해져 가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지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역문화 발전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평군의회회장 박 정 철



숲과 물이 있는 도시,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 전경



백운봉 전경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



목천리 삼층석탑(향토유적 제33호)



신화리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국보 제186호)



사나사 원증국사 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2호)



함왕성 내부(옥천면 용천리)



이항로 생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양근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호)



사나사 전경



한음 이덕형 선생 묘 전경



용문산 산령제



중미산휴양림 숲속의 음악회



양평군청 전경

일·리·두·기

- 본 책 『양평의 역사와 문화』는 『양평군지』(전3권) 축약본으로 양평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그 내용을 정리·수록하였다.
 - 본 책의 서술대상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양평군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은 양평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였다.
 - 본 책의 서술대상 시기는 선사시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행정 관련 사항 등의 경우 2003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 본 책의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한자나 외국어를 같이 써야 할 경우 괄호 안에 병기(併記)하였다.
 - 본 책의 연대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대한제국이 수립된 1897년 이전의 경우 괄호 안에 왕조년을 부기하였다.
-

차례

발간사
축간사
일러두기

제1장 양평의 현황 · 17



제1절 지리와 자연환경 · 19

제2절 생활환경 · 37

제2장 양평의 역사 · 51



제1절 연혁 · 53

제2절 선사시대 · 54

제3절 삼한~통일신라시기 · 58

제4절 고려시대 · 61

제5절 조선시대 · 63

제6절 개화기~일제시대 · 68

제7절 한국전쟁 당시 · 74

제8절 한국전쟁 이후 · 77



제3장 양평의 민속과 의례 · 79



- 제1절 생활풍속과 의례 · 81
- 제2절 민속유물과 유적 · 102

제4장 양평의 지명유래 · 111



- 제1절 양평군 이전 · 113
- 제2절 양평군 이후 · 114

제5장 양평의 문화재와 유적 · 179



- 제1절 국가지정 문화재 · 181
- 제2절 경기도지정 문화재 · 183
- 제3절 군지정 문화재 · 200

제6장 양평의 자랑거리 ·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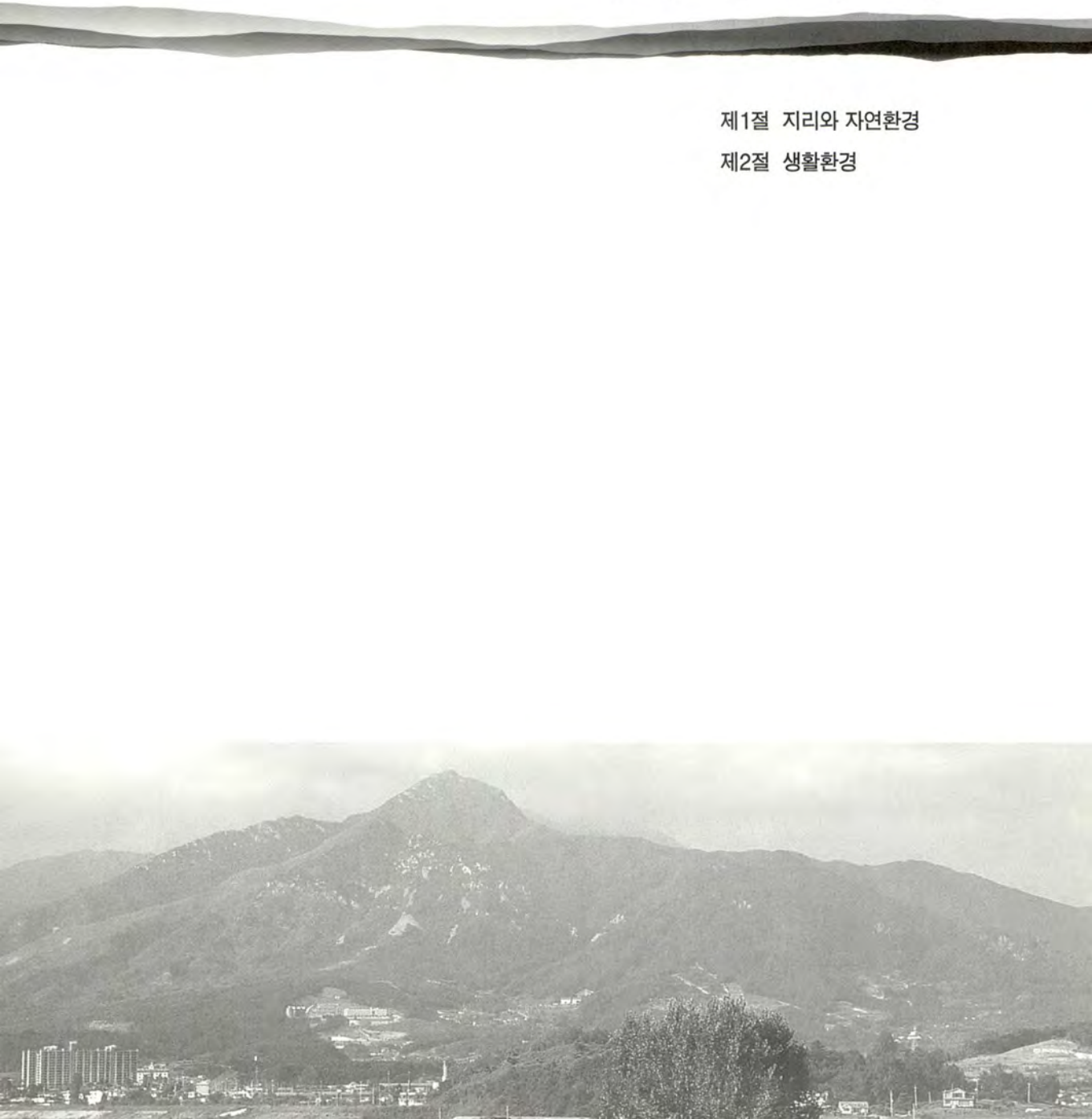
- 제1절 양평의 명소 · 223
- 제2절 주요 행사와 축제 · 232
- 제3절 양평의 특산물과 음식 · 234



제1장 양평의 현황

제1절 지리와 자연환경

제2절 생활환경



여 백

제1절 지리와 자연환경

1. 양평의 위치

양평군은 한반도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북동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횡성군, 남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쪽으로는 경기도 여주군, 남서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과 인접하고 있다.

양평군의 위치와 각 읍면



양평군의 수리적 위치

	소재지	경도	위도
극동	청운면 도원리	127° 51' 02"	37° 33' 01"
극서	양서면 양수리	127° 18' 46"	37° 30' 45"
극남	양동면 단석리	127° 45' 47"	37° 21' 33"
극북	서종면 수입리	127° 25' 37"	37° 40' 07"

2. 양평의 지세와 지질

양평군의 지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형은 강원도에서 발원한 광주산맥이다. 양평군을 대표하는 용문산이 위치한 광주산맥은 추가령구조곡을 사이에 두고 마식령산맥과 마주보고 있으며 북동부의 명지산(1,267m), 국망봉(1,176m), 광석산(1,046m), 용문산(1,157m) 등의 높은 산으로 구성된 산맥이다. 이와 같이 양평군의 지세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으며, 산지 주변에 다양한 지형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러한 산지지형으로는 산지 사이에 발달한 다양한 규모의 산간분지, 산지하천이 만들어 놓은 계곡지형, 산지와 산간분지를 연결하는 경사가 완만한 사면지형인 산록완사면과 구릉지 등이 있다. 이 산지지형은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서부의 높은 산지지형들과 연결된다.

산지지형과 함께 양평군의 지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지형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규모의 하천과 관련된 하천지형이다. 비록 산지지형에 비해서 그 면적은 협소하지만, 충적지와 범람원, 하안단구 및 하중도 등이 하천 주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양평군의 지세를 말할 때 하천지형이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하천지형은 양평군 서남부의 여주·이천 평야지대와 접이지대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이처럼 양평군의 지세는 중서부와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산지지형과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 및 하천 연변의 충적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서부와 남부의 하천지형은 그 발달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세는 산지지형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지세는 지질분포 및 하천의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양평의 지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기육괴에 속하는 선캄브리아기(25억 년 전)의 변성암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를 이루는 것은 경기변성암복합체의 호상편마암이고 호상편마암 주변으로 반상변정질편마암, 경기층군의 편암류와 편마암류, 춘천계층군의 편암류가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남동부의 지체면과 양동면 지역에는 중생대 쥐라기(2억 800만 년 전)에 관입한 대보화강암이 노출되어 산지를 이루고 있고, 중부의 양평읍 지역은 시대가 밝혀지지 않은 화성복합체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넓은 분지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는 신생대 제4기(160만 년 전)에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층이 발달해 있다.



용문산 전경

3. 양평의 산

양평에는 그 지형상 수려한 산들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개의 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문산(1,157m)

경기도에서 화악산, 명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용문산은 용문 북서쪽 능선봉에서 시작하여 샷갓봉(474m), 비호고개, 백운봉(940m), 947봉, 용문산, 문례재, 문례봉(992m), 732봉, 도일봉(841m)을 거쳐 쾌일산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만도 20km가 넘는다. 양평군 용문면의 대부분이 용문산 자락이다. 용문산 앞을 흐르는 개울이 흑천인데 용문산은 용문의 흑천에서 시작하여(삼성터널이 있는 자리) 큰 U자를 그린 뒤 다시 북동쪽 흑천의 이름난 유원지인 광탄리에서 끝이 난다. 그래서 용문산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두 곳 다 아름다운 물구비가 생겨 여름 한철 청류 벽계를 이루어 지역민은 물론 인근 도시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어 높은 산다운 풍모를 지닌 용문산은 양평군의 상징이다. 또한 이곳에 있는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 대경화상이 창건한 고찰로, 조선 후기까지는 사세가 융성하였으나 1907년 정미의병과 한국전쟁 때 모두 불 탔으며 이후 재건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문사 은행나무는 수령이 1,100년 정도 되며, 밑둥 둘레가 14m, 높이가 62m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이다.

백운봉(940m)

용문산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주능선 4km 지점에 솟은 백운봉은 여러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우뚝한 산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알프스의 마틴호른 같다 하여 경기의 마틴호른이라고 불린다. 또한 백운봉은 좌우로 주능선을 거느렸지만 그 능선은 곧 낮은 능선 뒤로 사라져 봉우리와 능선은 길지 않은 모양이다. 백운봉 정상 아래에는 배불뚝이 처럼 불거져나온 작은 능선봉이 백운봉에 안겨 있어 매우 매혹적이다.

유명산(864m)

유명산은 원래 지형도상에는 산이름이 없었는데 1973년 엠포르산악회가 당시 일행이었던 진유명 씨의 이름을 따라 산 이름을 붙인 이래 유명산이라 불려지고 있다. 옛 지도에는 이곳 일대에서 말을 길렀다 해서 마유산이라 표기되었으나 지금은 유명산으로 통칭되고 있다. 유명산은 갖가지 모양의 바위들과 우거진 숲, 풍부한 계곡물을 담고 있어 마치 설악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산으로 산 위에는 넓은 평지가 있다.

봉미산(856m)

백운봉 ~ 용문산 능선이 북으로 뻗어 먼저 문래봉을 솟게 하고 다음 동북쪽으로 진행하다가 한 가닥은 오른쪽으로 가지를 쳐서 도일봉과 중원산을 빚어놓고 한 가닥은 그대로 북으로 진행하여 솟구쳤는데 그 봉우리가 바로 봉미산이다. 이 능선은 북으로 계속 진행하여 장락산을 일군 뒤 홍천강에서 그 맥을 다한다. 이와 같이 봉미산은 양평군의 북쪽 외곽을 둘러싸며 가평군 설악면과 경계를 이룬다.

중미산(833m)

유명산, 소구니산과 더불어 선어치 고개를 사이에 두고 솟아 있는 중미산은 그동안 유명산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으나 최근 중미산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주말산행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중미산자연휴양림은 주위에 높은 산들이 병풍을 치고 있는 분지지형 속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 시원하다. 이 휴양림은 특이하게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행되는데,



중미산자연휴양림

선어치를 넘거나 농다치 고개를 넘은 뒤 높은 곳에서 휴양림이 위치한 정배리계곡으로 내려가면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어느 방향에서든 북한강, 남한강 또는 청평호를 끼고 드라이브를 한 뒤에 만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하다.

어비산(826m)

용문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능선에 솟은 어비산은 유명산계곡을 사이에 두고 유명산과 마주 선 산이다. 산 양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어 여름철 피서 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산의 서쪽은 어비계곡이고, 동쪽은 입구지계곡이라고도 하는 유명산계곡이다. 용천3리 배너미고개를 넘어 두명안마을에서 입구지계곡 상류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가 어비산 동쪽으로 뺏어내린 능선을 따라 오르면 정상이다.

어비산의 원래 이름은 혜지산이었다. 신라 말 고려 초 혼란기에 양근 일대의 호족인 함규에 항거하던 미원장(이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일대의 군사적 지배자였던 혜지가 웅거했던 산이어서 혜지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산의 동남쪽 암자터에서 “혜지주왕생불”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석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일봉(801m)

용문면 동쪽, 중원산과 마주하여 솟은 도일봉은 양평군에서 가장 수려한 중원계곡을 품고

있어 여름철 피서 산행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상현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5km남짓의 중원계곡이 있다. 중원폭포까지는 계곡풍경이 대수롭지 않으나 폭포를 지나 1km를 더 들어가 계곡이 갈라지는 곳에서부터 계곡 본류는 울창한 수림과 함께 크고 작은 폭포가 연이어져 비경을 연출한다.

중원산(799m)

용문산 동쪽 지척에 솟아 있는 중원산은 도일봉과 함께 중원계곡을 만들고 있는 산이다. 산을 형성하고 있는 바위나 흙, 나무와 개울의 모양, 산의 생김새도 도일봉과 흡사하다. 울창한 숲 사이로 곳곳에 하얀 바위가 드러나 있으며 조계, 용계골, 중원계곡 등 수려한 계곡을 끼고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들어 가족 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헬기장이 있는 정상에서면 용문산의 웅장한 산줄기가 시야에 가득하고 도일봉이 손에 잡힐 듯 건너다 보인다.

화야산(754m)

양평군 서쪽 끝,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화야산은 가평군 외서면과 설악면 경계의 정점을 이루는 산으로 뽕루봉, 고동산을 거느린 작은 독립산군의 주산이다. 평평한 정상에 오르면 산자락 아래 북한강이 휘감아 돌아 주변의 산들과 어울려 산수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대부산(743m), 양자산(709m), 갈기산(685m), 청계산(659m), 통방산(649m), 고동산(600m), 추읍산(583m), 고래산(542m), 일당산(541m), 소구니산(439m) 등이 위용을 자랑하며 양평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4. 양평의 하천과 그 지형

양평군 지역을 통과하는 대표적인 하천은 양평군의 서남부 경계를 이루는 한강과 양평군 중앙부를 관류하는 흑천(黑川)이다.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43개 지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류들은 산지지역에서 또다시 수많은 세류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강·북한강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양평군으로 들어서면서 흑천과 만나 서

쪽으로 물길을 돌려 북한강과의 합류점인 양서면(楊西面) 양수리(兩水里)에 이른다. 또한 단발령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경기도 들어서서 양평군과 남양주시의 경계를 이루면서 양수리로 빠진다.

흑천

흑천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新論里)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양평군 중앙부를 따라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개군면 인덕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는 하천이다. 흑천은 총 길이가 37km 이고, 유역면적은 282.55km²이며, 12개의 지류가 있다.

흑천으로 유입하는 주요 지류를 정리하면, 양평읍 창대리의 도곡천(道谷川), 개군면 삼성리의 삼성천(三星川), 용문면 연수리의 연수천(延壽川), 용문면 덕촌리의 문천(門川), 지제면 송현리의 지평천(砥平川), 지제면 월산리의 월산천(月山川), 용문면 망릉리의 중원천(中元川), 단월면 부안리의 덕수천(德水川), 단월면 여물리의 여물천(余勿川), 청운면 용두리의 용두천(龍頭川) 등이다.

하천지형

양평군 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하천은 그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하천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들은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양평군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양평군에 나타나는 하천지형은 크게 한강 하류부와 흑천 양안의 충적지, 한강으로 유입되는 저차수 하천이 산간지역에 발달시킨 곡저평야, 하안단구(river terrace), 하중도 등을 들 수 있다.

한강 하류부의 충적지

한강의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유속이 감소하여 형성된 한강 하류부 연안 곳곳에는 사질 퇴적지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퇴적층은 범람원과 자연제방을 이루며 그 뒤편에는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양평군의 서남부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는 남한강과 북한강 하류에는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적지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해발고도 100m 내외의 구릉지가 분포하여 취락으로 이용된다. 서종면 수입리의 수입나루 일대, 양평군 강상면의 문평리 일대, 개군면 상자포리의 별말 일대, 용문면 삼성리의 삼성교 일대는 이러한 지형이 발달한 대표적인 곳이다.



서종면 수입리에 발달한 자연제방과 구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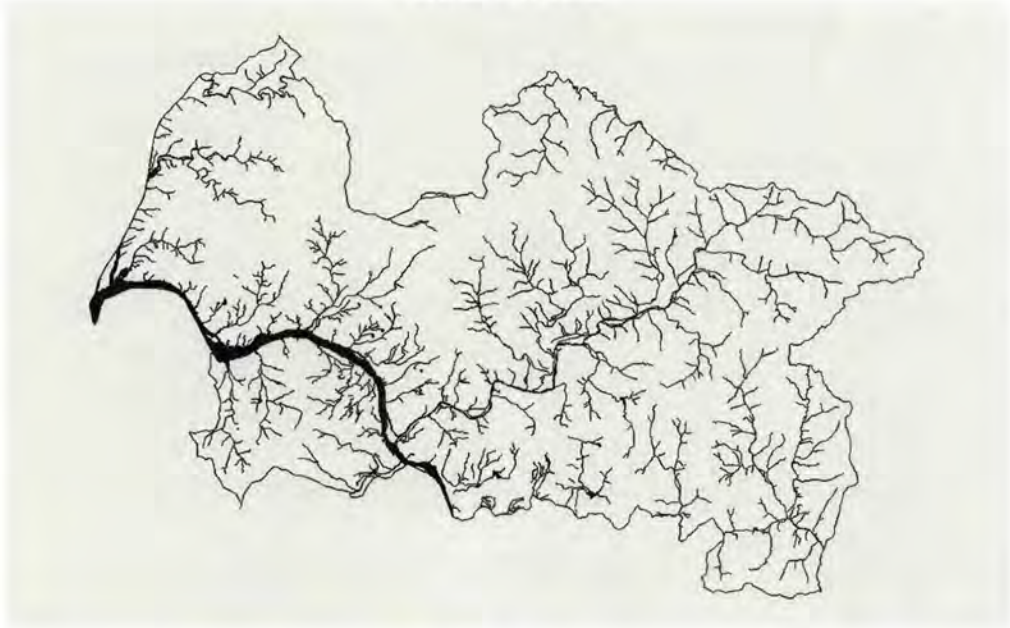
산간분지의 곡저평야

산간분지의 곡저평야는 일반적으로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평야의 중앙부를 관류하는 하천이 흘러나가는 방향만 개방되어 있는, 이른바 반폐쇄형 지형이다. 곡저평야는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집중호우나 홍수 때 분지의 중앙부를 흐르는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의 흐름은 방해를 받고 유속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하천이 운반해온 토시는 하천 양쪽 기슭에 넘쳐 미립질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고, 산지에서 운반되어온 조립물질은 미립질 퇴적층 상부에 퇴적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미립질 퇴적층은 범람원의 배후습지, 조립질 퇴적층은 범람원의 자연제방과 유사한 형태의 지형이 된다. 이렇게 곡저평야가 만들어진다. 미립질 퇴적층은 논으로, 조립질 퇴적층은 밭이나 과수원, 취락입지 지역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연제방은 배후습지에 비해 비교적 홍수피해를 적게 입기 때문에 취락이나 교통로가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에는 이 같은 곡저평야가 잘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은 곡저평야를 관류하는 곡수천의 양쪽 기슭에 범람원 미립질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어 현재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의 구름지 말단부에는 조립질 퇴적층이 발달해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타 하천지형

양평군에는 앞에서 언급한 하천 하류부의 충적지와 곡저평야 이외에도 하안단구와 하중도

양평군의 하계망도



양평군의 주요 하천

하천	길이(km)	하천	길이(km)	하천	길이(km)	하천	길이(km)
남한강	31.50	북포천	5.53	덕평천	4.80	서후천	7.78
북한강	14.07	신내천	4.55	신복천	4.25	벗고개천	3.11
곡수천	12.67	용담천	9.66	성덕천	3.36	월산천	1.40
산음천	8.05	향리천	5.90	향금천	6.55	삼성천	3.06
석산천	2.65	세월천	2.74	영동천	2.10	석곡천	12.80
명성천	8.25	도곡천	2.26	가정천	5.70	지평천	5.40
매월천	2.30	금당천	20.84	용두천	7.50	용문천	12.00
단석천	6.00	일신천	2.14	갈운천	4.75	중원천	4.50
계정천	7.80	양근천	3.70	덕수천	3.25	연수천	9.50
벽계천	27.00	사탄천	8.00	고송천	4.30	대왕천	1.20
중미천	3.50	흑천	37.00	부안천	9.50		
미세천	3.25	여물천	2.10	문호천	12.50		

등의 하천지형이 있다. 양평군의 경우에는 하천의 대부분이 산간 곡지를 따라 흘러내리는 하천인 관계로 하안단구의 발달은 미약하다. 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소규모의 하안단

구가 발달하였는데, 양평군의 서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개군면 석장리에는 퇴적단구로 보이는 하안단구 지형면이 있다.

또한 양평군에는 남한강 하류인 강하면 운심리와 양평읍 덕평리에 소규모 하중도가 있다. 이 중 운심리의 하중도는 '섬밭' 또는 '대하섬' 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하중도이고, 덕평리의 하중도는 소규모 하중도이다.

5. 양평의 기상 및 기후

양평군은 한반도의 내륙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다. 특히 높은 산지지형 및 산간분지 지형이 군 전체의 지형을 대표하기 때문에, 해마다 겨울철에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양평군의 최근 10년(1992~2001)간 연평균 기온은 10.8℃로서 전국 평균 기온인 12.6℃, 경기지역 평균 기온 11.6℃에 비해서 낮아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심하며, 계절간의 기온변화는 초봄인 3월과 4월, 늦가을인 10월과 11월 사이에 가장 크다.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달은 12~2월로 연중 3개월이다. 양평군의 기온 분포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겨울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양평군이 전체적으로 강원도와 연결되는 폐쇄된 분지지형으로 산지지형이 중심이 된다는 지형적 특징과, 한반도의 내륙 중앙부에 위치하여 바다와의 접근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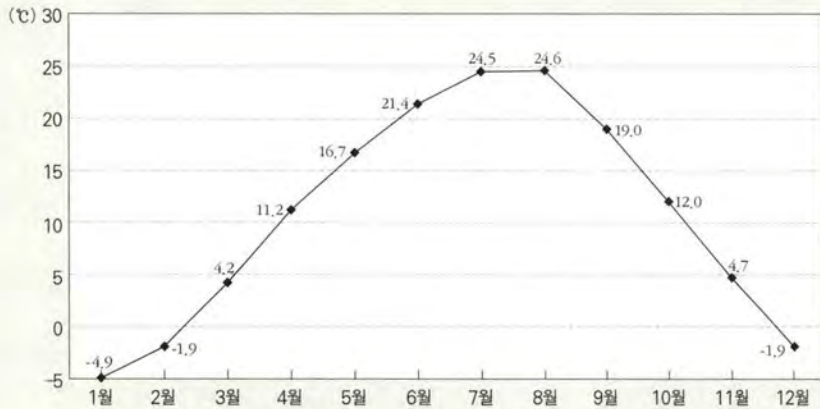
양평군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최근 10년(1990~2001)간 1,301mm로서 전국 평균 강수량 1,150mm, 경기지역 평균 강수량 1,278mm에 비해서 높아 경기도에서는 다우지역에 속한다. 강수량의 계절적인 분포를 보면, 장마철을 포함한 6~8월 3개월 동안의 여름철 강수 집중도가 연간 강수량의 60.4%로서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하계강수 집중의 유형을 그대로 나타낸다. 특히 7월의 강수량이 26.3%를 차지해 연간 강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동계인 12~2월의 강수량은 6.6%에 불과해 현저한 건계를 형성한다. 월별로는 7월이 최다우, 1월이 최소우이고, 초여름에서 장마기로 접어드는 6~7월과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접어드는 9~10월 사이의 강수량 변화가 현저하다.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강수량 유형은, 하계다우(夏季多雨) 및 동계소우(冬季少雨)라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월별 평균 기온(1992~2001년)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4.9	-1.9	4.2	11.2	16.7	21.4	24.5	24.6	19.0	12.0	4.7	-1.9	10.8

월별 기온(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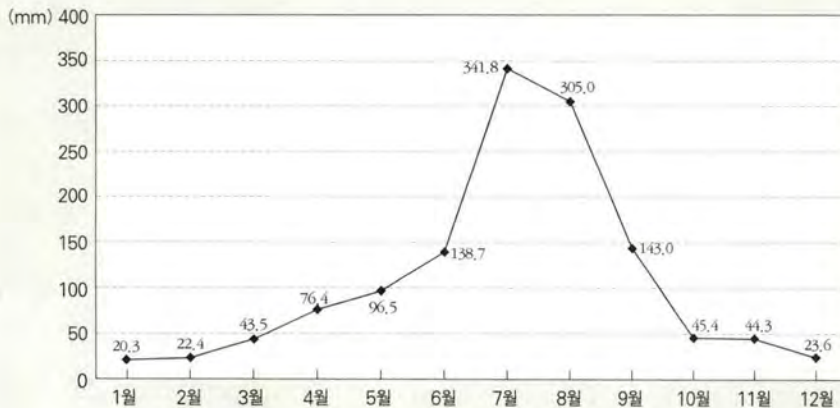


월별 평균 강수량(1992~2001년)

(단위 : 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20.3	22.4	43.5	76.4	96.5	138.7	341.8	305.0	143.0	45.4	44.3	23.6	1,301

월별 강수량(2001년)



일기일수(2001년)

(단위: 일)

구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1월	9	-	7	10	15	2	14
2월	6	4	8	14	2	8	-
3월	9	-	7	9	2	7	-
4월	7	6	5	2	1	-	-
5월	7	-	11	7	1	-	-
6월	2	15	11	-	-	-	1
7월	3	16	14	-	-	-	9
8월	7	7	8	-	1	-	4
9월	6	3	1	-	-	-	-
10월	8	7	7	-	3	-	1
11월	13	4	6	12	4	1	1
12월	13	3	8	18	-	8	-

6. 양평의 동물상

양평군은 청정한 수역과 식생의 건강도가 높은 산림지역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농업을 통한 토양환경의 안정도 등으로 인해 생태적인 가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이 지역에 분포 및 서식하고 있는 동물상은 종(種) 및 개체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상곤충

양평군의 곤충상은 주로 산림지역에 밀집하여 나타난다. 양평군에서 육상곤충이 서식하는 지역은 크게 6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 권역은 ① 용문면 용문산 남사면 일대, ② 설악

양평군 육상곤충의 주요 서식지와 대표 서식종

주요권역	주요곤충
용문면 용문산 남사면 일대	반날개상과
설악면 용문산 남서사면 일대	풍뎅이상과
용문면 신점리 일대	잎벌상과, 말벌상과, 꿀벌상과
옥천면 옥천리 두명안	잎벌상과, 말벌상과, 꿀벌상과
용문면 신점리 동피골 용문산 동사면 일대	미소나방류
용문면 용문산 남동사면 일대	꽃등에과, 나비류

양평지역의 주요 곤충상 및 개체수

과(family) 명칭		종(species)의 수	출현시기
국문명칭	학명		
송장벌레과	Family Silphidae	5	하계
반날개과	Family Staphylinidae	12	하계
사슴벌레과	Family Lucanidae	5	하계
소똥구리과	Family Scarabaeidae	11	하계
똥뽕땀이과	Family Aphodidae	4	연중
검정똥땀이과	Family Melolonthidae	15	춘계·하계
똥땀이과	Family Rutelidae	15	연중
꽃무지과	Family Cetonidae	5	춘계·하계
등에잎벌과	Family Argidae	2	연중
수중다리잎벌과	Family Cimbicidae	1	연중
잎벌과	Family Tenthredinidae	23	연중
말벌과	Family Vespidae	24	연중
꼬마꽃벌과	Family Halictidae	4	춘계·하계
가위벌과	Family Megachilidae	6	연중
청줄벌과	Family Anthoporidae	4	하계·추계
꿀벌과	Family Apidae	7	연중
꽃등에과	Family Syrphidae	10	하계
잎말이나방과	Family Tortricidae	48	춘계·하계
가는잎말이나방과	Family Cochylidae	1	하계
곡식좀나방과	Family Tineidae	1	춘계·하계
원뿔나방과	Family Stathmopodidae	1	하계
감꼭지나방과	Family Oecophoridae	2	하계
뿔나방붙이과	Family Leithoceridae	1	하계
뿔나방과	Family Gelechiidae	3	하계
밑두리뿔나방과	Family Blastobasidae	1	하계
명나방과	Family Pyralidae	58	춘계·하계
알락나방과	Family Zygaenidae	1	연중
췌기나방과	Family Limacodidae	3	연중
호랑나비과	Family Papilionidae	10	하계
흰나비과	Family Pieridae	9	춘계·하계
부전나비과	Family Lycaenidae	10	춘계·하계
네발나비과	Family Nimphalidae	50	춘계·하계
팔랑나비과	Family Hesperidae	13	춘계·하계

면 용문산 남서사면 일대, ③ 용문면 신점리 일대, ④ 옥천면 용천리 두명안, ⑤ 용문면 신점리 동피골 용문산 동사면 일대, ⑥ 용문면 용문산 남동사면 일대 등이다. 주요 서식종은 반날개상과, 풍뎅이상과, 잎벌상과, 말벌상과, 꿀벌상과, 미소나방류, 꽃등애과, 나비류이다.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육상곤충은 모두 4목 34과 374종인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한 육상곤충 목록은 생물분류법 계급 중 과(family)에 해당한다. 출연시기 가운데 춘계는 4~5월, 하계는 6~8월, 추계는 9~10월이다.

대형 무척추동물

양평군 및 그 주변지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대형 무척추동물은 4문 6강 12목 32과 97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분류군별로 정리하면, 플라나리아류 1종, 빈모류 1종, 거머리류 1종, 복족류 2종, 곤충류 91종이다. 곤충류 중에는 하루살이류(27종), 날도래류(25종), 강도래류(11종)의 총출현도가 높아 환경상태가 양호한 수역임을 대변하고 있다. 하천별 총 출현 종

옥천의 대형 무척추동물 개체수 출현도

(단위 : 개/0.5m²)

종명	수	종명	수	종명	수	종명	수
곳체다슬기	2	무늬하루살이	3	여울벌레류	1	각다귀 KU _b	14
주름다슬기	7	알통하루살이	42	수염치레각날도래	5	각다귀 KU _d	2
옆새우류	1	빨하루살이	6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1	명주각다귀 KU _a	277
애호랑하루살이	1	민하루살이	177	줄날도래 KU _a	317	무늬애기각다귀 KU _a	15
애하루살이	5	먹하루살이	15	줄날도래 KU _b	5	먹파리류	30
꼬마하루살이 KU _a	8	등줄하루살이	894	줄날도래 KU _e	154	대모등애불이	2
꼬마하루살이	8	범꼬리하루살이	31	줄날도래 KD	1	등애류	1
부채하루살이	82	어리장수잠자리	2	꼬마줄날도래	31	갈다구류	88
흰부채하루살이	98	최측범잠자리	5	꼬마줄날도래 KU _b	185	꼬마하루살이 n _{1a}	8
봄치녀하루살이	1	민강도래 KU _a	3	물날도래 KU _a	49	동양하루살이	13
치녀하루살이 KU _a	10	민강도래 KU _b	19	민무늬물날도래	1	검정날개각다귀 KU _a	18
몽톡하루살이	61	줄강도래 KU _a	19	넓은머리물날도래	10	검정날개각다귀 KU _b	1
참납작하루살이	1	강도래불이	6	계곡물날도래	1	검정날개각다귀 KU _c	2
두점하루살이	1	강도래 KU _a	4	두잎물날도래	1	가람하루살이	1
네점하루살이	55	녹색강도래	1	무늬물날도래	3	물방개류	8
두갈래하루살이	17	뱀잠자리	7	광택물날도래 KU _a	59	각다귀 KU _a	1
장수하루살이	38	대륙뱀잠자리	3	애우물날도래 KU _a	2		

수는 흑천 71종(10개 지점), 묵안천 43종(5개 지점), 사탄천 42종(3개 지점), 중방대천 41종(5개 지점), 수입천 37종(2개 지점), 양덕원천 27종(4개 지점), 홍천강 본류 23종(4개 지점)의 순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일반적인 하천에서 주로 출현하는 등줄하루살이, 줄날도래, 애호랑하루살이, 줄날도래, 꼬마하루살이, 꼬마줄날도래 이외에도, 옆새우류, 흰부채하루살이, 민하루살이, 물날도래와 같은 청정수역의 지표종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조류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평군에서 확인된 조류는 모두 37종 266개체이다. 이 가운데 최우점종은 박새였고, 우점종은 쇠박새·노랑턱멧새·곤줄박이였으며, 번식가능성에 대한 평가등급 결과 가장 높은 A등급으로 평가된 종은 15종, C등급으로 평가된 종은 22종으로 확인되었다. 용문산에서 확인된 37종 중 특정종은 환경부 전국자연생태조사 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새매, 2등급에 해당되는 중대백로, 왜가리, 그리고 1등급에 해당되는 검은등뼈꾸기, 청딱다구리, 할미새사촌, 물까마귀, 물까치 등 8종이다.

용문산에 서식하는 조류

조류명	번식 가능성	조류명	번식 가능성	조류명	번식 가능성
중대백로	C	박새	A	직박구리	A
휘파람새	C	청딱다구리	C	물까치	C
왜가리	C	둥고비	A	물까마귀	C
흰눈썹황금새	C	쇠딱다구리	C	까치	A
흰뺨검둥오리	C	멧새	A	쇠유리새	C
오목눈이	A	제비	C	까마귀	C
새매	C	노랑턱멧새	A	딱새	A
쇠박새	A	노랑할미새	C	멧비둘기	A
검은등뼈꾸기	C	참새	A	흰배지빠귀	C
진박새	A	알락할미새	C	병어리빠꾸기	C
뼈꾸기	C	피꼬리	C	붉은머리오목눈이	A
곤줄박이	A	할미새사촌	C		
후투티	C	어치	A		

포유류

양평군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모두 5목 12과 20종이다. 이 중 용문산에서는 5목 9과 13종이 확인되었는데, 희귀 및 위기동물은 고슴도치와 삿대쥐이다. 최근 들어서는 하늘다람쥐 외 6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주민들의 불법남획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양이 외 6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먹이가 풍부하여 번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한편 용문산의 경우에는 총 5목 9과 13종 69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고양이와 다람쥐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고양이가 14개체, 다람쥐 12개체는 주로 용문산 주변과 등산로를 따라 관찰되는데, 이는 등산객이 먹다 버린 음식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산에 서식하는 포유류

종명	개체수	종명	개체수	종명	개체수
두더지	8	고양이	14	청설모	8
너구리	4	멧돼지	3	다람쥐	12
족제비	3	노루	1	등줄쥐	6
오소리	1	고라니	4		
삿대쥐	1	멧토끼	4		

담수어류

양평군과 그 주변지역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담수어류는 북한강 수계인 홍천강에서 8과 24속 33종, 북한강 수계인 소하천들에서 8과 19속 25종, 남한강 수계인 소하천들에서 8과 20속 27종이 발견·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 우리 나라의 고유종은 20종(54%)으로, 이는 우리 나라 전체 고유종 50여 종의 40%나 출현하는 높은 분포 비율이다. 출현종 중에 잉어과 어류는 23종(62%)으로 가장 우세하고, 미꾸리과가 4종(11%)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각각 1~2종씩이다. 1차 담수어는 37종 중에 34종(92%)으로 대부분이고, 육봉어는 독중개와 밀어의 2종(5%), 주연성 어류는 갈문망둑 1종(3%)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이나 위해 동식물에 속하는 종은 하나도 분포하지 않는데, 보호 야생 동식물에 포함되는 묵납자루는 3개 소하천에 4개 지점에서 서식하고 있다. 한편 11개 소하천의 우점종은 하천의 특징에 따라 피라미가 우점종인 소하천이 7개, 갈겨니가 우점종인 소하천이 4개로 나타나 하천의 상류나 상태가 양호한 수역은 갈겨니, 하천의 중

양평군 남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단위 : 종)

담수어류	신복천	흑천				
		본류	덕수천	조현천	연수천	신내천
피라미	130	92	52	81	17	158
갈겨니	-	42	43	16	134	5
버들치	29	-	62	3	13	-
납줄개	-	-	-	-	-	1
각시붕어	-	-	-	-	-	40
납자루	-	-	-	-	-	5
묵납자루	-	-	-	7	-	-
줄납자루	-	-	-	-	-	3
붕어	-	-	-	-	-	3
돌고기	25	72	24	72	36	44
쉬리	-	9	27	1	15	14
물개	-	-	3	-	-	-
긴물개	-	-	16	-	-	25
참마자	-	5	5	-	3	9
모래무지	-	1	1	-	3	12
돌마자	-	-	-	-	-	3
배가사리	-	-	-	-	-	6
미꾸리	3	1	11	-	1	-
새코미꾸리	-	-	-	1	2	17
참종개	-	2	1	-	11	7
눈동자개	-	-	-	-	-	17
미유기	-	-	-	-	1	-
통가리	-	1	-	2	-	10
독종개	-	-	11	-	-	-
격지	-	3	-	4	5	10
동사리	-	11	2	3	-	-
얼룩동사리	7	7	4	-	-	-
합계	194	243	262	183	243	1,046

류나 하천이 개수된 수역에서는 피라미가 우점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피라미와 갈겨니 이외에도 7개 이상 소하천에서 잡히는 비교적 흔한 어류로는 버들치, 돌고기, 쉬리, 참마자, 모래무지, 미꾸리, 참종개, 동사리, 얼룩동사리 등이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중에 금강모치, 납줄개, 가는돌고기, 꾸꾸리, 돌상어, 독중개 등은 조사수역에서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매우 희귀한 종인데, 이는 양평군의 하천 환경이 생태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서 · 파충류

양평군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양서 · 파충류의 경우, 양서류는 7속 10종(도롱뇽 · 꼬리치레도롱뇽 · 무당개구리 · 두꺼비 · 청개구리 · 맹꽂이 · 참개구리 · 산개구리 · 옴개구리 · 아무르산개구리), 파충류는 5속 7종(표범장지뱀 · 유혈목이 · 능구렁이 · 무자치 · 까치살모사 · 살모사 · 쇠살모사)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에는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맹꽂이, 참개구리, 산개구리, 옴개구리, 도마뱀, 표범장지뱀, 유혈목이, 능구렁이, 실뱀, 무자치,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평군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양서 · 파충류

양서류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청개구리, 맹꽂이,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옴개구리
파충류	도마뱀(한국 자연보존협회 희귀 및 위기동물), 장지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한국 자연보존협회 희귀 및 위기동물), 살모사, 까치살모사(환경부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물, 한국 자연보존협회 희귀 및 위기동물), 쇠살모사

제2절 생활환경

1. 양평의 면적과 인구

양평군의 전체 면적은 878.21km²로 경기도의 시·군 중 그 면적이 가장 넓으며, 서울시의 1.45배에 달한다. 이 중 임야는 656.38km²로 74.7%에 이르며, 전·답이 136.14km²(15.5%), 기타 85.69km²(9.8%)를 차지하고 있다.

양평군에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총 31,904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농업가구가 9,611가구로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는 84,171명으로 남자 42,411명, 여자 41,7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양평군의 인구밀도는 약 96명/km²이며, 가구당 약 2.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평군의 면적 비율



2. 양평의 주요 기관

양평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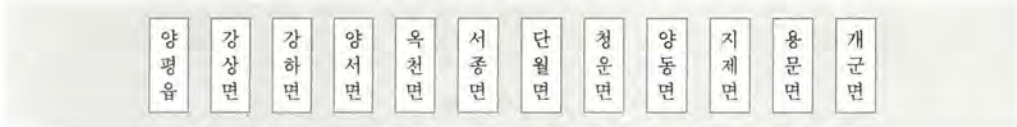
양평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행정기관이다. 양평군청에서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양평군의 행정기구와 행정구역 및 공무원수를 살펴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행정기구는 2실 10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255개리, 758개반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문화복지센터가 있다. 그리고 양평군의 공무원수는 671명으로 공무원 1인이 주민 126명에

양평군청의 조직



양평군의 행정구역(1읍 11면)



역대 군수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대	이수용	1945. 8. 15~1946. 5. 31	19대	이호선	1975. 9. 3~1977. 2. 4
2대	고주현	1946. 6. 1~1947. 5. 23	20대	이정구	1977. 2. 5~1979. 4. 18
3대	김윤근	1947. 5. 24~1952. 3. 5	21대	신영춘	1979. 4. 19~1980. 7. 31
4대	박유식	1952. 3. 6~1953. 3. 30	22대	윤선보	1980. 8. 1~1982. 3. 2
5대	여성구	1953. 3. 31~1954. 3. 15	23대	홍성원	1982. 3. 3~1984. 6. 13
6대	이승렬	1954. 3. 16~1956. 4. 5	24대	황종태	1984. 6. 14~1986. 3. 7
7대	이주진	1956. 4. 6~1958. 8. 8	25대	하영수	1986. 3. 8~1986. 12. 23
8대	송국현	1958. 8. 9~1960. 5. 22	26대	송인식	1986. 12. 24~1988. 6. 10
9대	정운한	1960. 5. 23~1960. 11. 28	27대	고재명	1988. 6. 11~1989. 12. 26
10대	김운경	1960. 11. 29~1961. 6. 20	28대	오세희	1989. 12. 27~1991. 12. 29
11대	이병달	1961. 6. 21~1963. 8. 11	29대	이태봉	1991. 12. 30~1993. 3. 28
12대	이재일	1963. 8. 12~1965. 11. 9	30대	정세영	1993. 3. 29~1993. 6. 2
13대	우광선	1965. 11. 10~1967. 12. 9	31대	이광희	1993. 6. 3~1994. 4. 8
14대	오호선	1967. 12. 10~1970. 8. 19	32대	곽병창	1994. 4. 9~1994. 12. 31
15대	유춘복	1970. 8. 20~1971. 8. 20	33대	양인석	1995. 1. 1~1995. 6. 30
16대	황두영	1971. 8. 21~1972. 2. 13	민선1대	민병채	1995. 7. 1~2002. 6. 30
17대	조여행	1972. 6. 5~1972. 9. 3	민선2대		
18대	김학기	1972. 9. 4~1975. 9. 2	민선3대	한택수	2002.7.1~현재

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양평군의 2003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52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은 295억 4,1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10.4%밖에 안 된다. 89.6%에 달하는 2,556억 7,000만 원을 외부(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양평군의회

양평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이 뽑은 군의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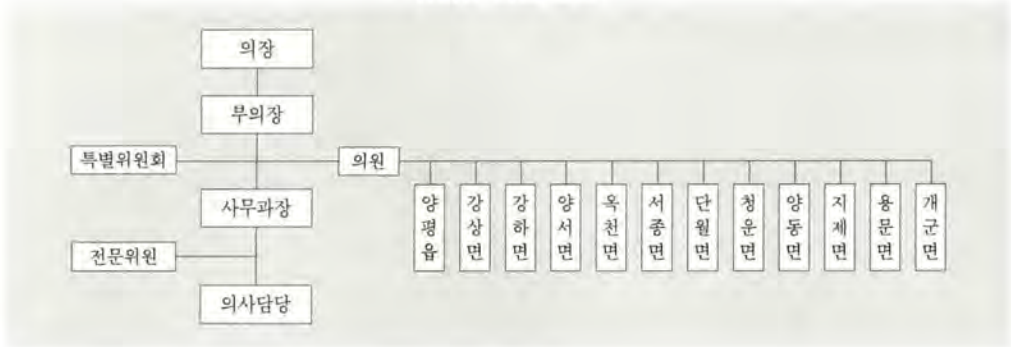
□ 지 위

-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 :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권 한

-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행정감시권 :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
- 선거권 : 지방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권을 가진다.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 : 자치단체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양평군 의회 조직



역대 양평군 의원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1대의원	이광남	조병훈	한성석	손대덕	김용녕	이용기	박용직	이병영	김영수	이동규	정인영	이제홍
2대의원	장재찬	고기섭	홍용표	최영식	김용녕	이용기	박용직	신태량	황일성	홍영기	김영구	윤광신
3대의원	정운상	고기섭	문필수	최영식	이영호	박선배	주상옥	박정철	안구희	이남영	김영구	박장수
4대의원	정운상	유현진	문필수	최상호	정창훈	박선배	박용규	박정철	안구희	이건재	이인영	박장수

- 서류제출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전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회 기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지방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되며,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7일에 집회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 연 혁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선거(제1대)
- 1956년 8월 8일 시·읍·면 의원선거(제2대)
- 1961년 5월 16일 5·16쿠데타로 의회해산 지방자치 중단
-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 1991년 3월 26일 전국 시·군·구 의회 의원 총선거
- 1991년 4월 15일 초대의회 개원 및 원 구성
-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1995년 7월 10일 제2대 의회 개회 및 원 구성
-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1998년 7월 7일 제3대 의회 개회 및 원 구성
-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2002년 7월 5일 제4대 의회 개회 및 원 구성

소방서

양평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3곳의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흥파출소(양평읍 공흥리)는 양평군 북·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양근파출소(양평읍 양근리)는 양평군 남부지역, 용문파출소(용문면 다문리)는 양평군 동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소방서는 소방 행정과와 방호과로 구분되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표와 같다.

소방서의 부서와 하는 일

부서명		부서별 업무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 소방행정 기본운영 계획, 인사·상벌·상훈·문서관리, 소방행정 관리개선, 소방행정의 감사·감찰, 사정업무의 계획수립·추진, 복무규율 감독
	장비관리팀	· 소방예산편성 및 운영, 소방관서 시설유지관리, 소방장비 개발 및 운영지도
방호과	방호팀	· 소방훈련 및 기술지도,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사항,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감독
	예방팀	· 화재예방 계획수립, 소방홍보, 소방관련 인·허가업무
	구조구급팀	· 구조·구급업무의 기획, 구조차량 및 구조대원관리, 구급기술의 지도 및 훈련, 훈련, 특수재해의 소방활동대책, 응급의료 및 구급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 소방상황실 운영, 각종 구조구난 상황 유지, 무선통신의 암호조립 및 분석

양평경찰서

양평경찰서는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범죄자의 체포,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경찰서의 부서와 하는 일

부서명		부서별 업무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	· 감찰기획 및 지도·감독 · 경찰관 비위조사, 정보수집, 보통징계위원회 회부 · 감찰민원서류 접수 처리
경무과	경무계	· 복무태세 확립 및 친절봉사에 관한 업무, 보안에 관한 업무 · 기본업무현황 기획 작성 및 경찰 중요행사 조정 통제 · 근무·경력 평점, 인사기록관리 및 상훈에 관한 업무 · 경찰사기, 후생, 원호, 복지에 관한 업무
	경리계	· 경찰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업무 · 봉급, 수당, 여비 지출, 예산 및 경리에 관한 업무 · 물품구매 및 입찰사무에 관한 업무
	민원실	· 민원업무 접수 처리, 직인 보관 및 관리 · 경찰문서 통제 및 제증명 발급
	정보통신계	· 유무선, 전산통신장비 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 점검
방법과	방법계	· 외근경찰 운영 및 지도감독 · 일반방법, 방법심방 및 용역경비업무, 방법순찰 업무 · 112순찰차 및 지령실 운영 관리 업무
	방법지도계	· 중요 행사 안전활동 및 유실물 취급처리 지도 · 행정즉심 및 통고처분 업무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허가 및 지도단속 · 미아, 기아 및 가출인의 보호와 수배 · 청소년 단체의 지도감독 및 소년범죄에 관한 업무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 경비에 관한 계획 및 시행(경찰관서 자체경비 제외) · 혼잡 경비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다중범죄 진압계획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교통지도계	· 교통위반사범 단속
	사고조사계	· 교통사고 조사
	무인단속실	· 무인카메라 단속 및 교통민원업무 처리
정보보안과	정보계	· 치안정보 수집 및 분석, 집회신고 접수 처리
	보안계	· 대공관련업무 처리

부서명		부서별 업무
수사과	수사계	· 수사경찰 기획, 교육 및 유치장 관리 · 사건송치, 피의자 호송, 사건접수 처리부 및 송지철 관리 · 범죄통계 작성, 분석, 보고 등 관리
	조사계	· 고소· 고발 사건 처리, 수사 이의사건 수사
	형사계	·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변사, 화재사건) 수사 · 도박· 도주사범 수사, 절도범· 장물사범 수사

3. 양평의 교통

양평지역에는 6번 국도(인천~강릉), 37번 국도(가창~과주) 및 44번 국지도(양평~양양) 등 주요 도로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에서 양평은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 6번 국도를 이용하여, 서울→구리→덕소→양수리→양평(서울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이 방법으로 양평에 올 수 있다)
- 88번 국지도를 이용하여, 성남→광주→퇴촌→양평

양평군의 주요 도로



- 44번 국지도를 이용하여, 광주 → 곤지암 → 산북면 → 양평
 - 37번 국도를 이용하여, 이천 톨게이트 → 이천 → 금사리 → 천서리 → 개군 → 양평
- 또한 철도를 이용할 때는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 다음은 양평 관내에 있는 역들이다.



4. 양평의 주요 성씨

양평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요 성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평읍

양평읍에는 17세기 중반경 여주에서 이거한 남양 홍씨가 많이 살고 있다. 도곡리 일대에는 한양 조씨가 17대에 걸쳐 살고 있고, 제주 고씨가 6대째 내려온다. 또한 원주 변씨(邊氏)는 임진왜란 전에 이곳 양근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초계 변씨(卞氏)도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 유씨는 주로 회현리 가소에 살고 있으며, 봉성리에는 16세기 초에 입향한 원주 이씨가, 덕평리에는 17세기 후반에 들어온 인동 장씨가 100여 호를 이루고 있다. 양평에 살고 있는 대구 서씨는 소윤공파로 17세기 중엽에 대흥리로 이주한 이래 자손이 퍼져 있다. 그리고 희귀한 성으로는 가평 간씨(簡氏)가 몇 호 시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강원도에서 이곳으로 왔다.

옥천면

옥천면은 광산 김씨, 동래 정씨, 연안 이씨 등이 대성이다. 아신리 아랫고닐에 동래 정씨, 웃고닐에 경주 정씨가 모여 산다. 경주 정씨는 개국공신으로 2대 판한성부사를 지낸 양경공 정희계(鄭熙啓)의 후손으로 7세손 인남 때 입향하였다. 이들과는 다른 파로 시조 정진후(鄭珍厚)로부터 10세손인 정인손(鄭仁孫)의 후손들은 임진왜란 이후 지제면 송현리에 거주해왔다.

또한 옥천면 신복리 등을 중심으로 광산 김씨들이 300여 호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의 입향시기는 16세기 중반경이다. 양평 광산 김씨의 파시조가 되는 김극개(金克愷)는 중종 때 예조참판과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이어 형조참판을 지냈다. 또한 연안 이씨는 14세기 후반경에 신복리로 입향하였고 용천리 등에 퍼져 있다. 용천리에는 그밖에도 16세기 중반에 입향한 청풍 김씨들과 16세기 말에 입향한 남평 문씨들이 거주한다.

옥천리 읍치에 거주하던 성씨로는 양근 함씨를 들 수 있다.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사나사에 함씨각이 있어 함씨 원찰의 성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나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함왕이 태어났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함왕혈이 있고, 사나사에서 더 올라가면 용문산 중간산 정상에 함왕성터가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양근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양근에는 토성이 넷으로, 함(咸)·탁(卓)·부(傅)·경(耿)이 있다고 하였다.

강상면

강상면의 영산 신씨는 덕재공 신천(辛戡)의 후손들로, 중시조 신신(辛信) 때 안성 죽산에서 이곳으로 입향하여 16~17대째 내려오고 있다. 양평 관내에 1,000여 호가 살고 있는 경주 김씨가 양평으로 들어온 때는 18세기 후반으로 처음에 들어온 곳은 강상면 지탄이며 이후 양근, 개군 등으로 퍼졌다. 병산리에는 선산 김씨가 17대째 사는데 1597년 정유재란 때 경기도관찰사를 지낸 송양부원군 김이원(金履元, 1553~1614)의 후손들이다. 화양리에는 해주 정씨들이 산다. 장흥 고씨는 교평리에서, 연안 김씨는 송학리에서 8대째 산다.

강하면

전수리 수대마을에는 고려 신씨가 사는데 귀래정 신말주(申末舟)의 6세손 신기한(申起漢)이 17세기 중반에 양주에서 이주하였다고 한다. 운심리에는 충주 지씨와 원주 원씨가 각기 20호 가량 된다. 성덕리 해평 윤씨 등이 있다. 왕창 3리에는 밀양 박씨가 대성으로 있었다. 향금리에는 전주 이씨 완평대군파 후손들이 주민의 반을 넘는다.

서종면

문호리에는 능성 구씨 도원수공파가 16세기 초에 입향한 이래 거주하고 있고, 안동 권씨는 월담공 권덕흥(權德興)이 16세기 말경 양주에서 문호리 수대울로 이주한 이래 자손이 퍼졌다. 정배리에는 진주 유씨가 17세기 말경에 유건기(柳建基), 정기(廷基) 형제의 입향 이후 거

주하고 있고, 고령 박씨도 비슷한 시기에 입향하였다. 문호리와 수릉리 일대에는 수원 백씨가 300년 이상 거주하였다. 시조 백창직(白昌稷)의 19세손인 백사검(白師儉), 사근(師根) 형제가 입향조라고 한다. 경주 이씨의 수릉리 입향은 이보다 늦은 18세기 후반경이다.

수입리의 전의 이씨 역사는 청강 이제신(李濟臣, 1536~1584)의 아버지로서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문성(李文誠, 1503~1575) 때부터 시작된다. 벽계리는 벽진 이씨 화서 이항로(李恒老)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화서 선생의 고조 때인 18세기 중엽에 고양 벽제에서 이곳으로 왔다. 결성 장씨는 우계공 장취오(張聚五, 1687~1771)의 후손들로 우계공의 현손인 동우 장회진(張會鎭)은 화서 문인이면서 화서 선생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삼회리에는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사씨(史氏)가 10여 호 산다. 서후리에는 17세기 후반에 입향한 거창 신씨가 20여 호 산다.

양서면

양서면의 주요 성씨는 진주 강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함평 이씨, 청해 이씨, 청송 심씨, 함종 어씨, 청주 정씨 등이다. 진주 강씨는 은열공파와 박사공파 두 파가 있는데, 강민첨을 파조로 하는 은열공파는 파주에서 10대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고 한다. 박사공파는 경기도 여주에서 대아동 탑골에 현 종손의 9대조 강시보가 입향하였다. 5~6대조 때 대아동 집이 불타서 밧골, 수곡리, 강상면, 대성리 등 부근으로 흩어지면서 정자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청주 한씨는 16세기 초에 남종면 귀여리, 즉 지금의 광주시 소내로 왔다가 양평 일대에 퍼졌다.

양평 내에는 각기 다른 대군 또는 군을 파시조로 하는 전주 이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중 태조의 조카 안소공 이양우(李良祐)의 묘소가 양서면 대심리에 있어 조선 초기로 그 역사가 올라간다. 지제면 옥현리 광양마을에는 효령대군 보성군파가 50호 정도 거주하는데, 퇴우당(退憂堂) 6세 경산율(景山栗, 1537~1598)의 후손들로 양평 관내에서는 가장 번성하였다. 함평 이씨는 16세기 말경에 단월면 부안리로 입향하였다. 원래 수원 밀의 오산 가수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해 이씨는 이 중 일부가 1600년경에 양근 창대리로 입향하여 부근에 퍼졌다.

청송 심씨는 충익공 심충겸(沈忠謙, 1545~1594)이 16세기 말경에 옥천 아신리 아오곡에 입향한 이래 그 일대에 정착하였다. 대아리의 함종 어씨는 문정공 어세겸(魚世謙, 1430~1500)의 후손인데 문정공의 묘는 여주에 있다. 청주 정씨는 개국공신인 서원군 정충(鄭攄, 1358~1397)의 9대손 정창로(鄭昌老)가 18세기 초에 대아동으로 입향하였다.

국수리에는 지평의 읍치에 거주하는 온양 방씨와 본은 같고 파를 달리하는 방씨가 산다. 부

용리에는 여흥 민씨 전서공파 후손들이 거주한다. 전서공은 12세조 민세영(閔世榮)이다. 이들이 이곳으로 입향한 때는 16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함양 여씨는 동강 여이징(呂爾徵, 1588~1656)이 광해군 때의 폐모론을 피해 잠시 남종면(현재는 광주시) 수청리에 은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원리에 뿌리를 내렸다. 북포리에는 덕수 장씨가 10여 호 산다.

용문면

용문면에는 남원 양씨, 평양 조씨, 반남 박씨, 전주 이씨, 신창 맹씨, 해평 윤씨 등이 있다. 마룡리와 덕촌리에 평양 조씨와 해평 윤씨, 영월 엄씨 등이 산다. 평양 조씨는 양심당 조성(趙晟, 1492~1555)과 용문선생 조육(趙昱, 1498~1557) 형제의 후손들로 처사공파, 승지공파, 돈곡공파, 직장공파 등으로 갈라졌다. 해평 윤씨 세장조 남악공(南岳公) 윤승길(尹承吉)은 17세기 초반경에 조현리에 예장되었다. 망룡리와 주원리에는 전주 이씨, 조현리에는 신창 맹씨, 광탄에는 남원 양씨, 금곡에는 현풍 곽씨, 다문리에는 연일 정씨, 연수리에는 반남 박씨, 삼성리에는 안동 권씨 등이 각각 많이 산다. 삼성리에는 16세기 후반에 입향한 창녕 성씨 성세평(成世平, 1516~1590)의 후손들이 산다.

단월면

단월에는 무안 박씨, 함평 이씨, 행소리의 온양 박씨, 덕수리의 양성 이씨 등이 있다. 덕수리에는 남원 양씨와 덕수 이씨가 많이 산다. 봉산리에는 강릉 김씨, 삼거리에는 전주 이씨 등이 있다. 무안 박씨는 14세기 후반에 보룡리 대대(大岱), 즉 한터로 입향한 이래 24~25대에 걸쳐 살고 있다. 보룡리 퇴룡골에는 홍천 용씨가 살았다. 강릉 김씨는 1800년경에 상리로 입향하였다.

청운면

갈운리에는 전주 이씨와 무송 윤씨, 신론리에는 여흥 민씨 등이 있다.

양동면

주민들이 양동면에서 10대 이상 거주한 성씨들은 다음과 같다.

영해 박씨 - 쌍학리	순흥 안씨 - 양동 일대	한산 이씨 - 삼산리
덕수 이씨 - 삼산리, 쌍학리	정선 전씨 - 삼산리	남양 홍씨 - 계정리
문화 차씨 - 계정리	원주 이씨 - 매월리	강릉 김씨 - 금왕리

영해 박씨의 입향은 15세기 이전으로 이 일대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씨다. 쌍학리 일대는 덕수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입향조는 문정공 이식(李植, 1584~1647) 선생이다. 여주에서 별세한 부친 이안성(李安性)을 쌍학리 백아곡에 매장하고 전라도 고부에 안재된 조부 이섭(李涉)의 묘와 여주 원통리의 조모 묘를 천장하여 백아곡에 묘산지를 이루게 되었다.

순흥 안씨는 찬성공 안경(安璟, 1388~?)의 8세손 동오공 안광욱(安光郁, 1610~?)이 석곡리로 입향하면서부터 일대에 퍼졌다. 매월리 원주 이씨는 16세기 중반경에 입향하였다. 고송리에는 신창 맹씨가 호군공 맹석준(孟碩俊)의 11세손 맹면원(孟勉遠)이 1700년경에 입향한 이래로 거주하고 있다.

지제면

지평의 반성으로 해평 윤씨, 전주 이씨, 광주 이씨, 무안 박씨, 반남 박씨, 밀양 박씨, 신창 맹씨 등을 든다. 광주 이씨는 17세기 초경에 광원군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의 6세손이 경기도 광주에서 분파하여 이곳 송현리로 입향하였다. 송현리에는 또 강릉 최씨들이 13대째 내려오면서 100여 호 분포한다. 밀양 박씨는 15세기 초에 여주에서 이거한 이래 후손들이 각 면에 퍼져 산다. 지제면 지평리, 즉 과거 읍치에 거주한 성씨로는 지평 방씨가 있고, 지평 이씨와 지평 신씨도 있었다. 월산리에 한산 이씨와 전주 이씨, 옥현리에 전주 이씨, 수곡리에 안동 권씨와 경주 최씨가 각각 산다.

개군면

개군면 주읍리에는 17세기 중반에 입향한 평산 신씨, 17세기 말경에 입향한 청주 곽씨가 살고, 조선 중기에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양성 이씨도 있다. 안동 김씨와 교하 노씨는 여주군 대신면에서 향리로 이주한 성씨들로 교하 노씨의 입향시기가 조선 초로 올라가는 반면 안동 김씨의 입향은 19세기 초이다.

조선총독부가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간행한 『조선의 취락』이란 책의 「2장 동쪽부락의 연혁」에는 1930년을 기점으로 유명 동족촌락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양평군에 관련해서는 지제면 무왕리 순흥 안씨, 양동면 매월리 서암촌의 원주 이씨 이대충(李大忠, 360년 전) 후손, 갈산면 회현리 가소의 문화 유씨 유옥(柳玉) 후손, 그리고 단월면 보룡리 대대의 무안 박씨 박정(朴禎) 후손이 각각 구성한 마을을 동족촌락의 사례로 들고 있다.

5. 통계로 보는 양평

(2003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23,984동
1동당 1.17가구



상수도 12,790m³/일
1인 1일 사용량 443 l



출생 500명(연간)
1일 1.4명



사망 703명(연간)
1일 1.9명



혼인 434쌍(연간)
1일 1.2쌍



이혼 240쌍(연간)
1일 0.6쌍



전화 29,157대
가구당 1대



교원 819명
1인당 학생 15.8명



화재 124건(연간)
3.1일당 1건 발생



지방세 43,172백만원
1인당 51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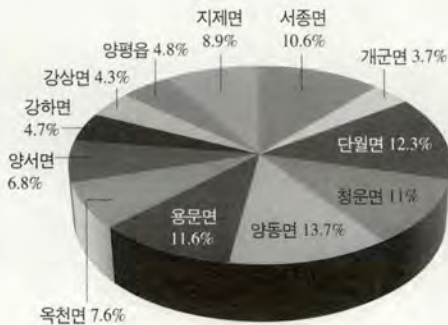


의료인 288명
292명당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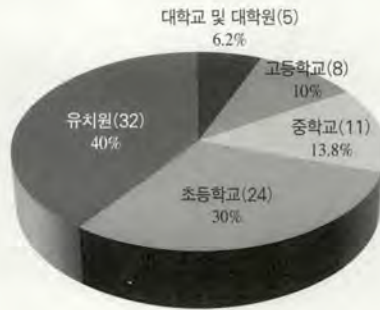


자동차 27,558대
3명당 1대

읍면별 면적 비율



양평군의 학교



읍면별 인구, 면적 및 세대수(2003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명)	면적(km ²)	세대수		인구(명)	면적(km ²)	세대수
계	84,171	878.22	31,904	단월면	3,141	107.94	1,239
양평읍	23,075	42.28	8,215	청운면	3,745	96.54	1,436
강상면	4,405	37.92	1,629	양동면	4,936	120.42	1,898
강하면	3,370	41.49	1,354	지제면	6,096	77.82	2,385
양서면	8,503	59.59	3,245	용문면	11,755	102.23	4,520
옥천면	5,518	66.68	2,132	개군면	4,289	32.46	1,599
서종면	5,338	92.85	2,252				

양평군의 학교 현황(2003년 5월 1일 기준)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공립	사립	계				
계	58(6)	17	75(6)	483(특13)	13,252	840	+19
유치원	26	6	32	45	971	51	-1
초등학교	23(5)	-	23(5)	223(특12)	6,026	319	+5
중학교	5(1)	6	11(1)	87(특1)	2,729	186	+12
고등학교	4	4	8	115	3,395	258	+3
특수학교	-	1	1	13	131	26	0

* ()안은 분교장

제2장 양평의 역사

- 제1절 연 혁
- 제2절 선사시대
- 제3절 삼한~통일신라시기
- 제4절 고려시대
- 제5절 조선시대
- 제6절 개화기~일제시대
- 제7절 한국전쟁 당시
- 제8절 한국전쟁 이후



여 백

제1절 연혁

양평군은 원래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친 군이다. 양근군은 고구려 때는 양근군 또는 항양군(恒陽郡)이라고 불렸으며, 신라는 이를 빈양(濱陽)으로 개칭하여 기천군(沂川郡)에 소속시켰다. 고려는 이를 다시 양근으로 바꾸었고, 그뒤 고종 때 영화(永化)라 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양근군이라 칭하였다.

지평군은 본래 고구려의 지현군(砥峴郡)이었는데 신라는 이를 지평이라 고쳐 삭주(朔州)에 소속시켰다. 고려 현종 때 광주(廣州)에 속하였다가 우왕 때 현(縣)으로 승격되었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으며, 1908년 양근군과 합쳐 지금의 양평군이 되었다. 1914년 일제의 군·면 통폐합에 따라 남종면이 광주군으로 옮겨가고, 1942년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옮겨갔다. 그뒤 1963년 여주군 개군면이 편입되고, 1973년 서종면의 일부가 가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79년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2001년 현재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양평읍(楊平邑)과 강상면(江上面)·강하면(江下面)·양서면(楊西面)·옥천면(玉泉面)·서종면(西宗面)·단월면(丹月面)·청운면(靑雲面)·양동면(楊東面)·지제면(砥堤面)·용문면(龍門面)·개군면(介軍面) 등 1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900년	양근군	고구려시대 : 항양군
		신라시대 : 빈양으로 개칭
		고려시대 초 : 양근으로 개칭하고 광주에 속함
		고려(고종) : 영화라 칭함
		고려(공민왕) : 군으로 부활되면서 양근군으로 개칭(1356년)
	지평군	고구려시대 : 지현군
		신라시대 : 지평
		조선시대(고종) : 지평군(1895년)
1908년	9월	양근군과 지평군을 양평군으로 통합
1914년	3월	양평군 관할 남종면이 광주군으로 옮겨감
1942년	4월	양평군 관할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옮겨감
1963년	1월	여주군 관할 개군면이 양평군으로 편입
1973년	7월	서종면 삼회리와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으로 옮겨감
1979년	5월	양평면이 양평읍으로 승격

제2절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의 양평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어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기로, 기원전 1만 3천 년 전까지의 기간이며, 인류문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단계이자 가장 긴 시기다.

양평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병산리, 전수리, 회현리, 양덕리, 오빈리, 삼성리, 단석리 등지다. 이 중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이 파악된 곳은 병산리 유적뿐이다. 병산리 유적은 양평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구석기시대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병산리 유적 외에도 양평군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사실로 구석기시대에 양평군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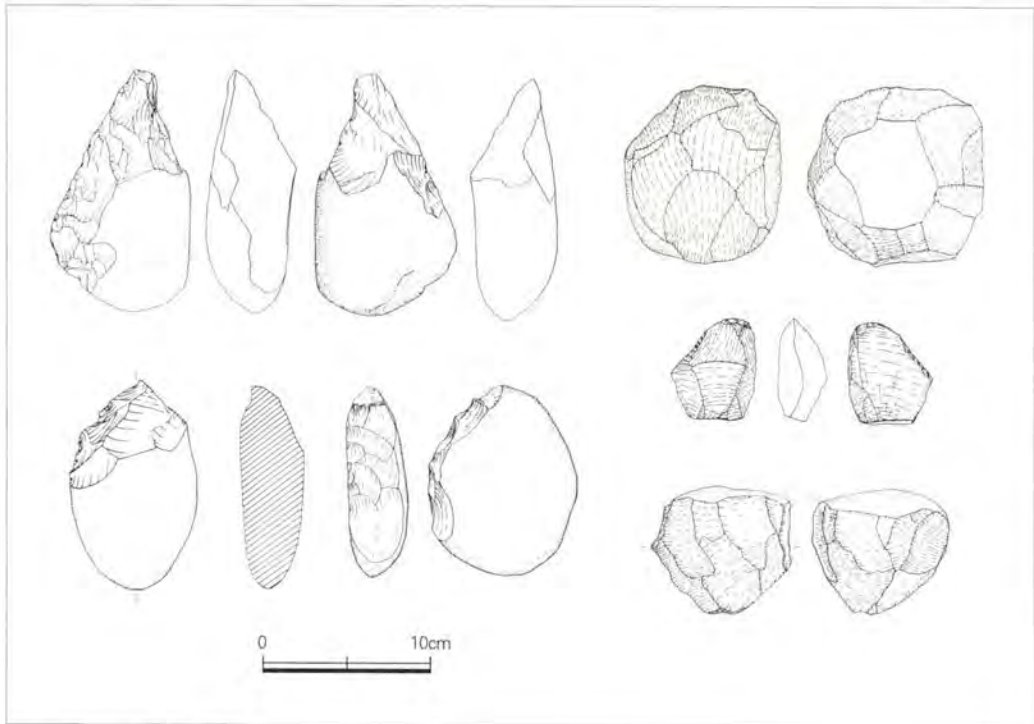
병산리 유적에서의 구석기문화는 적어도 3차례에 걸쳐 형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시기적인 순서를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병산리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약 13만 년을 전후한 시기고, 그 다음 시기는 7만 4천 년 전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1만 2천 년 전후로 측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구석기 유적으로 알려진 연천 전곡리 유적의 대략적인 연대가 30만 년 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양평의 구석기시대는 대략적으로 중기 구석기시대 후반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은 남겨진 유물, 즉 만들어 쓴 도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병산리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나 주변지역의 지표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사냥·채집에 이용된 석기, 도구 제작에 이용된 석기, 석기제작과 관련된 석기, 식량자원의 가공·해체와 관련된 석기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사냥·채집에 이용된 석기로는 주먹도끼, 찌개, 다각면원구 등이 있다. 주먹도끼는 2점뿐이며, 찌개와 던져서 사용하였던 사냥돌, 혹은 돌려가며 격지를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다각면원구류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또한 식량자원의 가공과 해체 등과 관련된 것으로는 굽개, 밀



병산리 유적지 모습



병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류

개, 톱니날 등이 발견되었으며, 도구제작과 관련된 석기는 새기개·흙날 등이 있으며, 석기제작과 관련된 석기로는 망치돌과 석핵, 부정형의 돌부스러기, 격지 등이 있다.

2. 신석기시대의 양평

신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처음으로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한 시기다. 동시에 사람들이 점차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거나 반 정착의 거점 중심 이동생활을 했다. 또한 이전의 타제석기 중심의 도구제작에서 벗어나 마제석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양평군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예는 없다. 다만 이후 시대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적층에 쓸려 들어간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출토되거나 극히 적은 양의 토기편이 채집되는 정도로만 유적 존재 양상이 파악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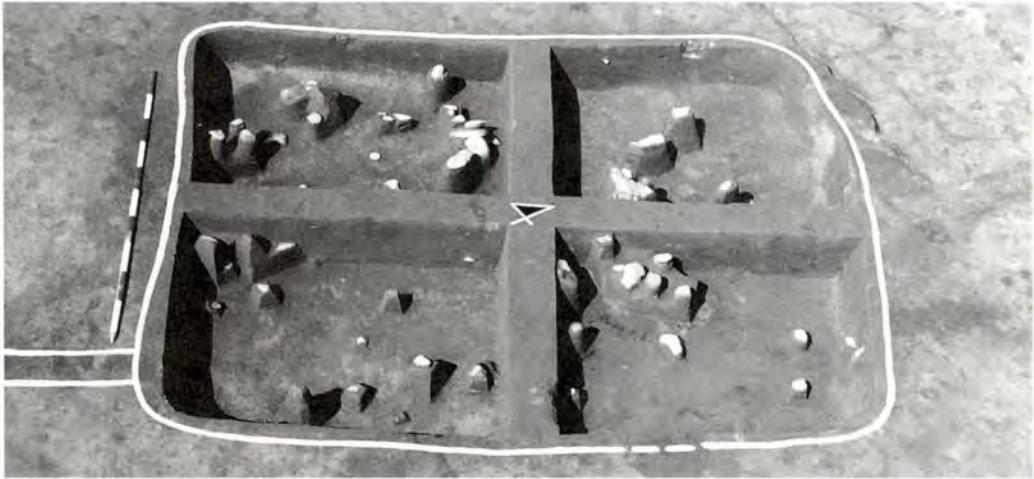
빗살무늬토기편이 발견된 곳은 양수리, 문호리, 안덕리, 광탄리, 다문리 등인데 광탄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강변의 충적대지다. 광탄리 유적은 야트막한 구릉지에 위치하여 다른 유적들과는 입지상 다르다. 이를 바탕으로 신석기시대의 생활을 상상해 보면, 먼저 강변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점차 인구가 늘고 자원이 고갈되면서 광탄리에서와 같은 구릉지로 이동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청동기시대의 양평

기원전 10세기경,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금속기를 사용한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의 금속기는 구리를 주석과 합금하여 만든 청동제품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청동기는 청동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금속기보다는 석기로 제작된 것들이 주된 생활도구였다.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은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가 대표적이며, 마제석기, 동검류, 민무늬 토기, 고인돌(支石墓) 등이다.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유적은 고인돌 유적이다. 팔당댐 건설 당시에도 수몰지구에 해당하는 것들만 조사했기 때문에 고인돌 근처에 있었을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 조



양수리 선사유적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집터

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양수리에서 발견된 주거지의 존재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수리를 비롯하여 양덕리, 상자포리, 교평리, 전수리, 오빈리 등 강변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공통적으로 타제석기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매우 이른 시기에 형성된 유적들이다. 이로써 양평군 일대 강변에 위치한 유적들이 대부분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들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들은 양서면 양수리 5기, 개군면 양덕리 5기, 개군면 상자포리 18기, 강상면 대석리 6기, 강상면 병산리 2기, 서종면 문호리 4기, 서종면 수릉리 1기 등 41기에 달하며, 부장품으로 동검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여 양평군의 고인들 사회는 강안의 충적대지를 기반으로 한 집단이었으며 고인들 주변에서 출토되는 반월형석도, 석부 등의 유물로 보아 다양한 농경활동과 도구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장유물 중 동검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세력 집단이 칩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수리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공렬토기

4. 철기시대의 양평

철기문화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대를 초기 철기시대라고 하며 연대기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전후한 시기로 약 300년간 지속된 기간이다. 양평군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대심리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장대형의 주조철부류(鑄造鐵斧類)와 도자류(刀子類)가 출토되었는데, 유적 주변에서 철재(鐵滓)가 다량 발견되어 주의를 끌었다. 이 철재는 대심리 유적 어딘가에서 철기를 주조하는 공방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양평군 지평지역에 관 공급용의 제철 공방이 있었다고 전하는 점으로 보아 양평군에 접근하기 쉬운 철광산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철 생산지는 매우 중요해졌을 것이다. 즉, 양평 일대는 초기 철기시대에 철 생산의 중요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철 생산은 후대에 역사가 발전하는 근본적인 자산이었다는 점에서 양평의 철기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삼한~통일신라시기

1. 삼한시기의 양평

양평지역은 마한(馬韓)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의 시기를 삼한시기 혹은 원삼국시기라고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이 시기의 양평의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양평의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삼한시기에 이 지역에는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양평지역의 삼한시기 유적은 운심리, 양수리, 문호리, 양덕리 등에 형성되어 있다. 운심리 유적에서는 삼한시기에 해당하는 회색연질토기 및 경질무문토기류 등이 발견된다.

2. 한성백제시기의 양평

한성백제시기(BC.18~AD.475)에 양평은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게다가 한성백제시기 양평지역의 양상을 추론할 수 있는 유적도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정치집단의 출현을 의미하는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성곽을 꼽을 수 있는데, 양평에서 확인되는 삼국~통일신라시기의 성은 파사성과 신원리성이 있다. 파사성에서는 3~4세기의 백제토기편이 상당량 출토되어 한성백제시기에 축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성백제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대체로 파사성 인접 지역인 상자포리와 하자포리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파사성이 한성백제 당시에 이 지역의 정치·행정·군사적 중심지로서 기능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3. 고구려 남진시기의 양평

『삼국사기』에 의하면, 양근은 고구려의 양근군(陽根郡) 또는 항양(恒陽)이었고 지평은 고구려 지현현(砥峴縣)이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각종 읍지에 기록된 각 군·현의 건치 연혁을 보면 특히 경기도지역은 대체로 본래 고구려 땅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지역이 고구려의 남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지만, 이처럼 본래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이 지역을 점유할 당시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런데 양평지역에는 고구려 점령 당시의 군의 명칭만 남아 있을 뿐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신라의 진출과 양평

신라는 551년(진흥왕 12)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10개 군을 빼앗고, 553년에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지역마저 급습하여 탈취한 뒤 그곳에 신주를 설치하였다. 신주라는 명칭은 상주, 하주 이외에 새로 개척한 지역에 설치한 새로운 주라는 의미인데, 양평지역도 이때 신라의 신주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양평지역은 신라가 장악한 후에도 경덕왕대에 빈양(濱陽), 지평(砥平)으로 개칭하기 전까지 양근(陽根), 지현(砥峴)으로 불렸는데, 양평군의 신라 유적은 대체로 주거유적지와 성곽, 고분, 사찰 등으로 구분된다. 주거유적지로는 교평리 유물산포지가 있고, 성곽으로는 파사성과 신원리성, 고분은 쌍학리 고분군과 대평리 고분군이 있으며, 절터로는 신화리사지가 있다. 이러한 유물을 통해, 이 지역을 신라가 장악한 이후 신라인의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신라문화가 전쟁을 통해 급속하게 이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통일신라시기의 양평

삼국통일 후 양평군은 경덕왕 때 빈양현(濱陽縣)으로 개명되어 기천군(沂川郡, 지금의 여주군)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889년(진성여왕 3)에는 궁예가 이 지방을 공략하여 그들의 활동무대로 삼기도 하였다. 지평군은 고구려 때에 지현현으로 불리다가 삼국통일 후 경덕왕 때 지평현(砥平縣)으로 개칭되어 삭주(朔州)에 속하게 되었다.

양평지역의 통일신라시기 유적은 대체로 삼국시대 신라 유적지와 일치하고 있는데, 신라가 6세기 중엽 한강유역을 장악하였지만 유물상으로는 정확히 통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통일신라시기의 유적으로는 용문사와 사나사 등의 사찰이 있고, 망미리·옥현리·마룡리 등지에서 발견되는 고분군이 있을 뿐 오히려 삼국시기 신라에 비하여 분포빈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4절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들어 1018년(현종 9) 대대적으로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이때 양근현과 지평현은 양광도(楊廣道) 광주목(廣州牧)에 소속되었다. 그렇지만 양평지역은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전국의 수많은 작은 고을에 불과하였다. 이후 고려 중엽인 1175년(명종 5) 양근현에 최초로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는데, 감무는 정식 수령이 아니므로 실제로 지방관을 파견한 영현으로 삼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려시대의 양근은 공신과 왕사가 배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읍호가 자주 바뀌었다. 1257년(고종 44) 양근을 영화(永化)라고도 불렀고, 1269년(원종 10)에는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자정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왕사 보우(普愚)의 고향이기 때문에 양근현을 양근군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지평의 경우도 유사한 이유로 지위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고려 말기인 1378년(우왕 4) 우왕의 유모 장씨(張氏)의 고향이기에 광주(廣州) 관할의 지평현을 나누어 감무를 두었다. 또한 공양왕 3년에 지평현의 경내에 철장(鐵場)을 두고 감무를 설치하여 겸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파사성의 성벽



함왕혈

그뒤 양평지역에 대한 고려시대의 언급은 1216년(고종 3)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양근에서 관군이 거란병을 격파하였다는 기록과 지평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으나 지평 이씨 이적(李勣)이 활약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리고 몽고의 3차 침략 초기인 1235년(고종 22), 1236년(고종 23)경 경기의 지평현, 북계의 개주(价州, 평남 개천)와 정주(定州) 등지에서 야별초 등의 소규모 부대에 의한 고려의 대몽유격전이 기록에 나타난다. 『고려사』에 “야별초군이 지평현 사람들과 함께 밤에 몽고병을 쳐서 죽이고 잡은 수가 매우 많았으며 말과 나귀를 취하여 와서 바쳤다”고 지평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253년(고종 40) 몽고군의 4차 침입시 양근 주민들이 함왕성으로 피난하기도 하였으나 몽고병이 양근성을 포위하니 방호별감 윤춘(尹椿)이 나아가 항복하였다고 『동국여지승람』은 전하고 있다.

한편 양평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성곽 유적으로는 몽고군이 침입하였을 때 주민들이 피난한 함왕성과 파사성, 지금도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부용산성 등이 있다. 불교 유적으로는 보물 제531호 정지국사 부도와 비 및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 고려시대 양평지방의 호족인 함규의 원당 내지 국가 비보사찰로 추정되는 사나사와 상원사, 대경대사의 탐비와 부도가 있는 보리사터 등이 있다.

파사성에 얽힌 전설

신라 제5대 파사왕 때 남녀 두 장군이 내기를 하였다. 남장군이 나막신을 신고 중국에 다녀오고 여장군은 파사성을 쌓기로 하였는데, 여장군이 축성을 마치기 전에 남장군이 먼저 중국에서 돌아왔다. 여장군은 개군면 석장리까지 가서 돌을 치마폭에 담아오던 중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치마폭이 찢어지면서 돌이 떨어져 그 마을에 돌담이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파사산성은 미완 상태라고 한다.

함왕혈과 관련한 전설

옥천면 용천2리 사나사 입구 계곡에 바위굴이 있는데, 함씨 시조인 성주 함왕(咸王)이 이 혈(穴)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씨족사회가 번창하던 먼 옛날 함왕혈 부근에 함씨족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부족을 형성하여 살아가길 바랐으나 그 무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어서 고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함왕혈에서 튼튼하고 총명한 옥동자가 나왔다. 그들은 그를 하늘이 점지해 준 지도자라 생각하고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함씨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국가를 형성하였고 자기들의 성지(城地)를 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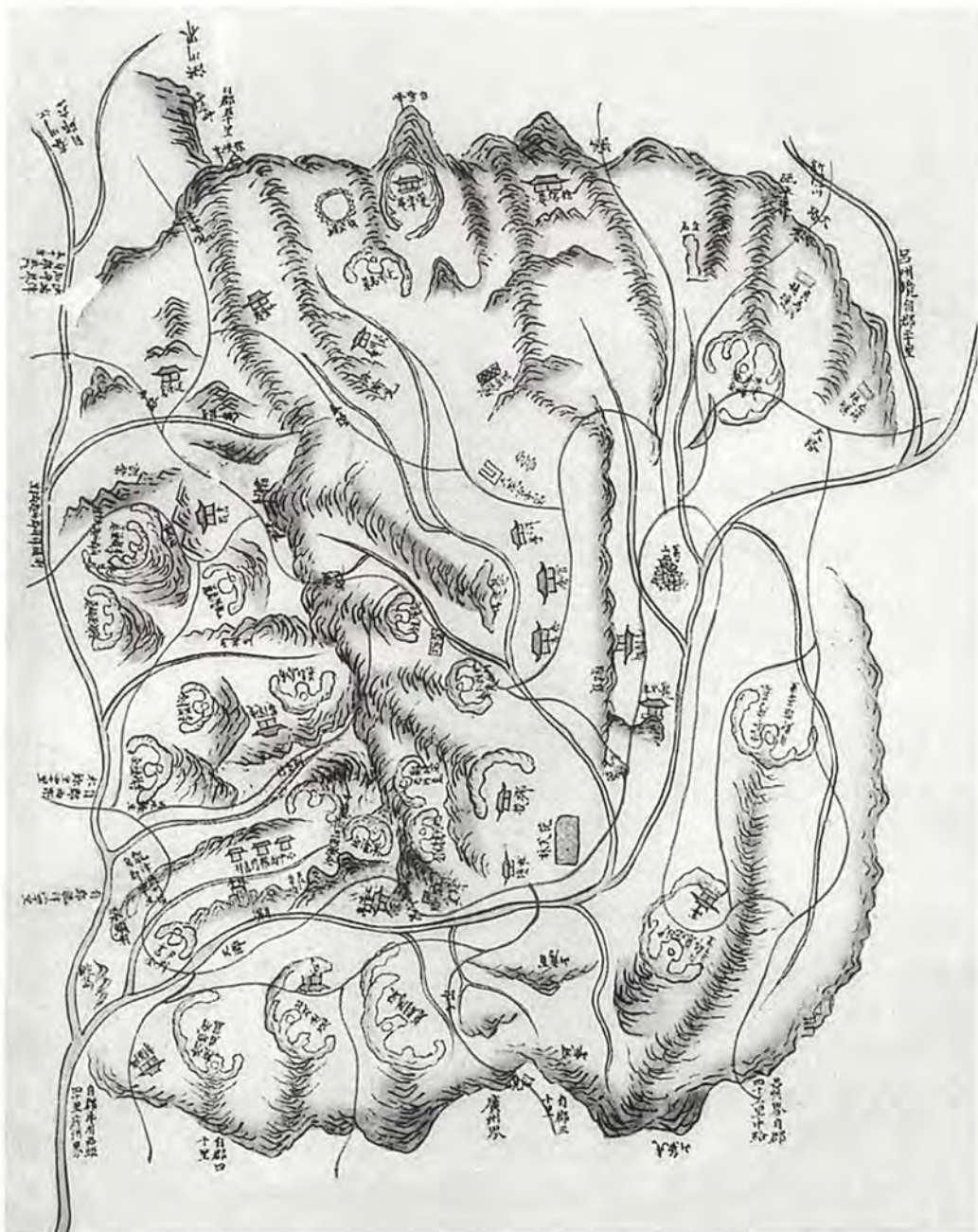
하기 시작하면서 날로 번창해 갔다.

번창 일로를 걷던 양근 함씨 씨족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 다른 씨족들의 침입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이룩한 성지가 무너지고 위대한 왕도 죽어 함씨들의 국가는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망하고 말았다. 그 무렵 그 옆을 지나던 과객이 말하기를 “어머니를 저렇게 버려두고 자기들만 번창하길 바라니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제서야 양근 함씨들은 선조인 왕이 태어난 함왕혈을 밖에 두고 성을 쌓았음을 깨달았다. 그뒤 그들은 성지를 양근 함씨 선조의 어머니인 함왕혈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번창하려 하였으나 왕은 죽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국가는 융성하지 못하였다. 양근 함씨들이 모두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 있는 것이라 한다. 그뒤 현재에 이르도록 양근 함씨 후손들은 그 바위에 보호책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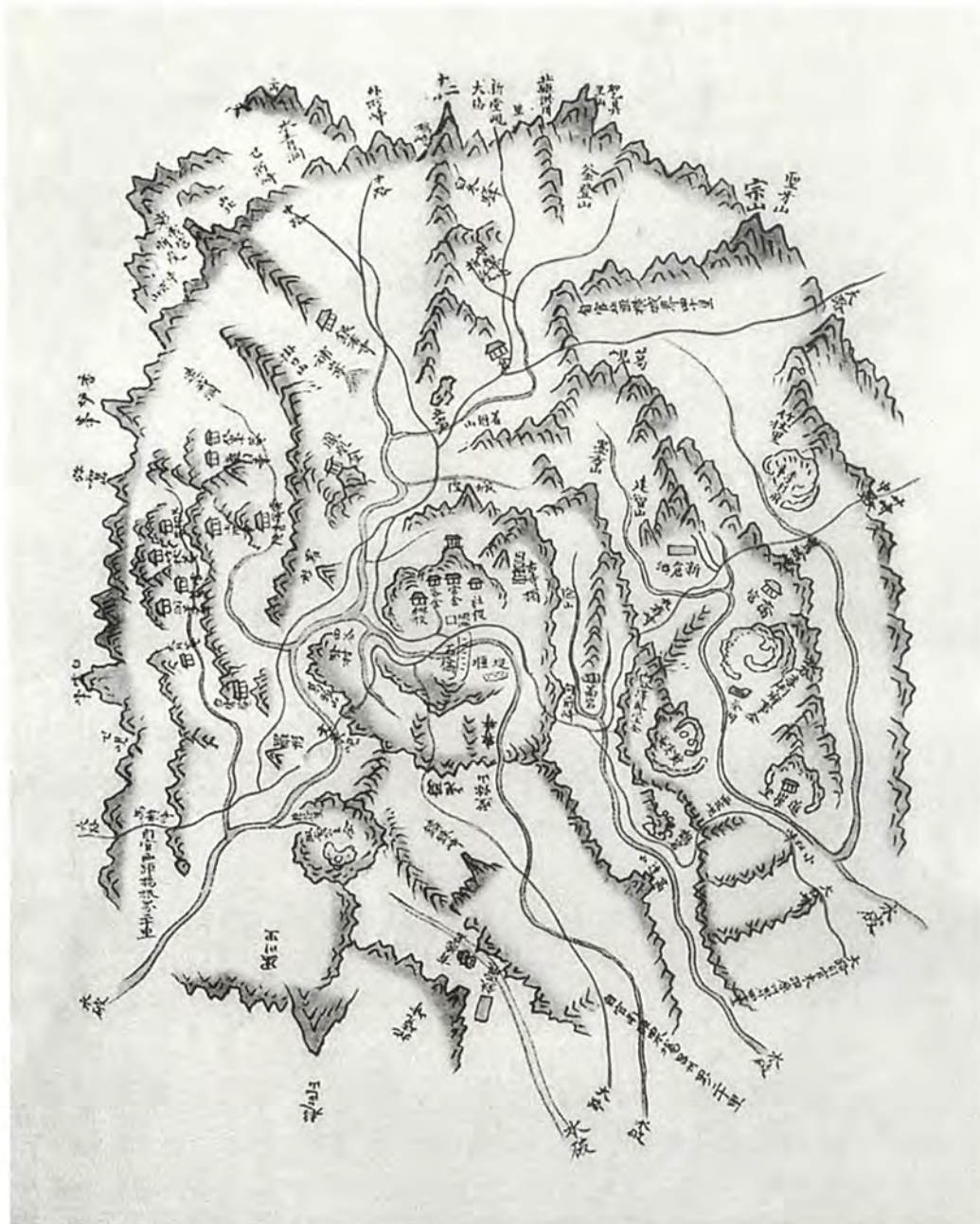
제5절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서 양근군은 태조 4년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 광주목에 속하게 되었으며, 지평현은 1413년(태종 13)에 감무를 설치했던 예에 의하여 지평현이라는 이름을 보존한 채 현감을 파견하였다. 그뒤 양평지역은 여러 차례 정치적 이유로 읍호 승강을 거듭하면서 한말까지 편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895년(고종 32) 5월 지방편제의 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23부제의 하나인 춘천부의 예하에 속했다. 양근군과 지평현은 춘천, 양구, 홍천, 인제, 횡성, 철원, 평강, 금화, 낭천, 회양, 금성 등 다른 12개 군현과 함께 춘천부에 속했다.

이러한 개편은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만 유지되고, 다시 이듬해 8월 13도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지방제도 중 관제 보급 경비 개정을 반포하여 23부제를 폐지하고 종래의 8도제에 바탕을 두어 경기, 강원, 황해의 3개도를 제외한 5개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였으며 13도 밑에 두는 하부 행정구역을 부·목·군으로 구분하였다. 오늘날의



『해동지도』 중 양근군



「해동지도」 중 지평현

지방행정구역 체계는 이 13도제에서부터 그 기반이 확립된 것으로, 지방행정구역 발전사에 있어서 접하는 의미가 자못 크다. 1896년 8월 개편 당시 경기도는 치소를 수원에 두고 4부 34군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양근군과 지평군은 경기도 소속으로 다른 27개 군과 함께 4등급에 속하였다.

빙 둘러싼 산세와 울창한 수목으로 알려진 지리적인 조건으로, 양근·지평지역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호하는 사냥터이자 강무장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국왕이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황단에 제를 올리기도 하고 원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특히 태종은 양평지역을 사냥터와 강무장으로 애용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양평지역은 사냥터 혹은 강무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듯하다.

또한 태종은 양잠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근의 속현인 미원과 가평의 속현인 조종에 처음으로 양잠도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효과를 보게 되자 1417년에는 충청도 청풍 등 5개소에 잠실도회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으로 보아 양평지역에서 잠업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양근지역의 금 생산량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양평지역에서 채금이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운영되었던 양평군의 금광 두 곳 모두가 옛 지평지역에 해당하는 청운면의 삼성리, 갈운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이 옛 지평의 채금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평지역 전체가 산지로 빙 둘러싸여 있어 조선시대에도 경기도 전체에서 손꼽히는 목재산지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목재는 궁간목(弓幹木, 활을 만드는 데 쓰이는 특수한 나무) - 1467년(세조 13)에 경기도의 가평과 함께 양근과 지평에서 궁간의 재료를 채취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포 및 환도와 갑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솥을 양근 등지에 사람을 보내 구워오게 했는데, 그 양이 무려 4,200석에 달했다는 광해군 때의 기록이 있다. 한편 기와를 굽는 데 소요될 장작 소비량을 산출하여 양근지역을 비롯한 다섯 곳에 할당량을 책정한 바 있었다.

목재 채벌과 관련하여 양근지역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도 계속 주목받았는데, 땃나무 공급장소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장(柴場), 혹은 시산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양근 시장은 처음에는 궁가에 소속되어 있다가, 효종대에 수어청에 소속되어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 이렇듯 양평지역은 조선 초부터 후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인 목재와 땃나무 산지로 주목받은 곳이었다.

한편 양평지역은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서울로 침입한 길목이었

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글을 보면 양근과 지평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점거된 일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양근의 군사와 용진에 모여 있는 이중복 초군이 파사 성과 호응하여 용진을 굳건히 지키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양근현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이 의병을 창의하게 되자 양근군수 이여양이 이를 통솔하여 자세한 길과 여울까지 알게 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왜적은 결국 원주를 함락시키고 군영을 지평현까지 연결하여 서울에 이르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양평지역이 충주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군사상 중요 길목이 되자 임란 후 충주와 더불어 지평과 양근의 수령에게 전담시켜 여울 건널목에 군사를 배치하여 순찰하게 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 또한 군사를 더 추가해서 방비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사회 전반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이 끝난 후 양평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양평 사족과 혼맥이 있거나 혹은 이미 선대부터 양평에 농장을 가지고 양평의 사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양근의 문화 유씨, 지평의 덕수 이씨, 지평의 남원 양씨 등 새로운 사족들이 이거해 양평에 자리잡았다. 또한 조선 후기 양평지역의 많은 인물들은 당쟁과 연루되어 낙향과 유배, 그리고 복관을 거듭하였다. 이는 양평지역이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점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양평지역의 덕수 이씨와 평양 조씨, 그리고 양근군의 전의 이씨 등은 노론의 정치적 성향이었으며, 양근군의 문화 유씨는 소론 4대신의 한 사람인 유봉휘의 가문으로 소론의 정치적 성향이었다.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하여 조선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해나갔던 지배층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양평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조운제를 다시 정비하면 조정에서는 남한강 수운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경기좌도 수참정운별감을 설치하고 정사와 부사를 두어 관장케 하였다. 이후 수로의 관리상에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자, 영조대에 이르러 조운사를 신설하여 각 창에 수세를 감독하여 검사하는 전임관관을 상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때 양근에는 서침탄점 등 7개 참을 설치하고, 각 참에 수부 30호와 참선 15척씩을 배치하였는데, 참선에는 사강 1명과 격군 2명이 승선하였고 수부들은 화물의 선적과 수로경비의 책임을 맡았다. 이와 같이 양근 지역은 조정에서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남·북한강 수로 운용에서 중요한 지점이었으며, 조운로에서도 중요한 길목으로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은 17세기까지는 포구를 이용한 국지적 상권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그리하여 양근과 지평의 장시 수는 경기도 군현들과 비교할 때 매우 많았고, 특히 지평의 경우 8개

소로 가장 많았다(양근군에는 사탄, 가좌곡, 심리, 미원 등 4개 장이 있었고, 지평현에는 전곡, 곡수, 유평, 부연, 신원, 휴암, 사포, 덕은 등 8개 장이 있었다). 또한 후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1930년대 후반 경기도 내에서 거래액 100만 원 이상의 대장시로 조선 후기부터 큰 장시였던 수원장, 안성장과 함께 남한강 수로변에 위치한 양평장이 손꼽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고려 말부터 시작된 양근·지평 지역의 철장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무기제련소로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지평지역에는 이미 고려시대에 철장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 지평현에서 생산되는 철의 양이 많지 않자 철장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철의 산지 혹은 무기제련소로서 지평지역은 다시 그 역할과 기능을 되살리는데, 조선 문종대에 양근과 지평에서 화약연료인 염초를 굽는다는 기록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평지역이 무기 제조소이자 철의 산지로서 중앙정부로부터 크게 각광받았다. 또한 18세기 이후에도 양근·지평 일대가 철의 산지이자 철환이 제조되었던 장소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 지평지역에서 쇠가 생산되었던 곳은 현 지제면 옥현 2리의 갈골이라고 하며 지금도 철 찌꺼기가 발견된다고 한다.

제6절 개화기~일제시대

1. 개화기

양평지역은 조선 중기 1594년(선조 27) 지평에 조성(趙晟)과 그의 아우 조욱(趙昱)을 배향한 운계서원을 시발로, 1661년(현종 2)에는 정암 조광조가 머물렀던 미원서원이 창건되고 수곡 서원, 청화정사 등이 건립되어 이 지역 유림들의 인재양성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항로 생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조선 말에는 화서 이항로의 부친 우록헌(友鹿軒) 이회장(李晦章, 1752~1816)을 비롯하여 당시 인근의 명망 있는 선비들이 서로 교류하였으며, 개화기에는 화서의 문인인 장회진·이인구·임규직·김평묵·유중교·최익현·양헌수 등이 서로 교류하였다. 특히 청화정사가 있는 벽계마을에는 뜻 있는 선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화서학파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화서 문하에서 배출된 화서학파 문인들은 스승인 이항로의 가르침에 따라 어지럽던 개항 전후기의 정세 속에서도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신성인하여 거의소청(舉義掃淸)하며 외적을 막았고 우리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되어 독립될 때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분연히 독립정신을 불태워 양평의 자랑스러운 학맥과 기개를 드높였다.

19세기는 농민항쟁의 시기였다. 당시 양평지역에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지평포군(砥平砲軍)이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지평현의 맹영재(孟英在)가 사병 800여 명을 모집하여 훈련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민보군(民堡軍)이 폭넓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경기도 동학교단 조직은 안성 2점, 여주 3점, 지평 2점, 양근 3점, 수원 2점 등의 점(몇 개의 점이 포를 이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도교회사 초고』에 의하면 이 지역 동학지도자는, 양근은 신재준이었고 지평은 김태열과 이재연이었다. 그러나 양평과 인근 지역 동학농민군은 지평현 허문숙과 맹영재 등에 의해 지평도인 한모와 여주도인 이구오와 양근

도인 신재규가 참살당하는 등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또한 양평의 동학군은 맹영재의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초기에는 충주 보은 방면의 북접군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가 다른 강원도 홍천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1894년 9월 지평의 고석주(高錫柱)·이희일(李熙一)·신창희(申昌熙)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홍천에 접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평의 민보군에 의해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면서 각지로 흩어졌다. 결국 일련의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양근과 지평을 주축으로 하는 양평의 동학농민군은 교단 조직상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양근 3접, 지평 2접으로 도합 5개접을 형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근의 신재준 등과 지평의 김태열, 이재연 등의 동학지도자들과 그리고 홍천에 접을 설치한 지평의 고석주·이희일·신창희의 등 지도자가 무려 6명에 이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전근대적 봉건사회의 극심한 모순을 척결하려고 일어섰던 경기도 동학농민군은 분연히 결기하여 일본군과 관군 반농민군인 민보군 등에 대항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지만 역부족하여 패배함으로써 좌절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정신은 을미·정미의병으로 이어져 조국의 독립과 민족자존을 위한 항쟁으로 그 정신과 바탕이 이어졌다.

한국사에 있어서 19세기 후반기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로서, 일대 사회변동기였다. 동양적 질서 속에 안주해 있던 전통사회가 봉건적 양반지배체제의 해체와 제국주의적 외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처하면서, 민족적 모순의 극복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양평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지리적여건으로 중앙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의병의 봉기는 양평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1894년(고종 31) 여름 안승우가 그의 향리인 지평에서 모병활동을 전개한 것이 양평지역 을미의병의 효시다.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경복궁에 불법 난입한 이른바 '갑오변란'에 대한 반발로 전개한 이 모병활동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는 개항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운동 중 최초로 기록될 만하였다. 그뒤 양평지역에서의 의병운동은 같은 해 9월, 경상도 안동에서 거병하여 올라온 서상철(徐相轍) 의병부대에 의한 경기도 이천 단월지역 전투와 광주 곤지암지역 전투로 이어져 한국 근대 의병운동사에서 항일의병의 기점을 마련하였다.

양평지역의 화서학과 유림들은 1895년 10월의 을미사변과 11월의 단발령 공포에 대한 반발로, 1896년 초에는 안승우와 이준영이 지평에서 거병을 결의하여, 이필회를 의병장으로 추대



맥켄지가 촬영한 양근지방의 의병 모습

하고 지평의진(砥平義陣)을 결성하였다. 양평지역의 지평의진은 1896년 1월 17일 충북 제천에 입성하여 28일에는 유인석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제천의진(堤川義陣)을 결성, 4월까지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계기로 의병이 다시 일어난 1907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에 나타나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지역의 항일 의병사상은 그 전과 속도와 심도가 가장 깊고 빨랐다. 1907년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화공작전에 의해 불탄 가호수는 타 지역에 비하여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양평의 경우 용문산 일대 사찰과 양평읍 시가지가 불타버려 용문사(龍門寺)의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옥천면에서 옮긴 옛 양근군 소재지 관아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일본군의 진압 방법이 강경하고 악랄한 만큼 피해가 컸다. 특히 1907년 군대해산 직후 항쟁의 양상은 연합전선으로 발전하여 좀더 조직적으로 항쟁을 시도해 나갔다. 한편 마전·지평·가평·포천·광주·이천·여주 등지의 주민들은 의병들의 활동에 매우 우호적이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의병활동 당시 우리 나라에 와서 의병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국인 맥켄지(F.A. McKenzie)가 양근지방에서 만난 의병장에게 보초를 왜 세우지 않는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병장이 맥켄지에게 “보초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다 우리의 보초입니다”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1907년부터 1908년에 걸쳐 양평에서도 의병에 참여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1907년 군대해산기에 권중식은 양근에서 거의하여 수년 동안 항전하였고, 용문면 출신 김상기는 단양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1907년 이강년과 함께 거의하여 충북 일대와 강원도·경상북도 삼도에 걸쳐 의병활동을 하였다. 1907년 7월에는 한갑이 지평에서 거의하여 흥천, 인제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같은 해 7월 20일 경에 유덕상·김성전·전성환·윤성철·호근영 등은 의병장 조인환의 부하로 서종면 문호리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8월 4일에는 양평 출신 조인환이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등 내정간섭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제를 몰아내고자 의병을 모집하여 양평을 습격하고 관아, 세무서, 우편소, 일본인 가옥 등을 파괴·방화하였다. 이 무렵 양평의 권득수는 양주·양평·이천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며 가산을 정리하고 병마를 구입하여 용문산을 근거지로 항전하였다. 권득수 부대는 서종면 문호리에서 강을 건너다 일본 헌병대와 접전하여 헌병 2명을 사살하고 중과부적으로 후퇴하여 다시 용문산에 주둔하였으나, 권득수는 밀고자에 의하여 9월 1일 피살되었다. 이외에도 양평의 민기희, 지평 마천에 사는 이연년, 옥천면의 김춘수, 지평 출신 정영운, 지평 양곡의 이성서와 이창준 부자(父子) 등이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한편 양평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의 요람이자, 천주교가 전국으로 전파되어 나간 중심지이기도 하다. 양평에서 천주교를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운동은 양평 출신 학자인 권철신(權哲身, 1736~1801)과 그의 문도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 중 주도적인 인물은 이벽(李穡)과 이승훈(李承薰)이었다.

1777년 권철신과 그의 제자 정약전(丁若銓) 등 지식인들은 학문연구 모임을 강학(講學)으로 발전시켜 양평의 대석 1리(또는 양근리)와 사찰인 천진암(天真菴)과 주어사(走魚寺)에 자주 모이게 되었는데, 정약전의 처남인 이벽도 1779년 12월에 천진암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천주실의』와 『칠곡』 등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천주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벽이었다. 그는 사신일행으로 북경에 가게 된 이승훈에게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이벽은 1784년 겨울 이승훈과 세례식을 갖기로 합의하고 정약전·정약용·권일신을 수표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은 뒤 이승훈과 함께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이로써 신앙공동체, 즉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었고, 양평지역은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앙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 전국으로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권일신은 양근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

를 전하여 그들을 입교시켰다. 그의 전교로 이존창(李存昌), 유항검(柳恒儉), 홍낙민(洪樂敏) 등과 인근에 거주하는 조동섭(趙東暹)·윤유일(尹有一) 등이 입교하였으며, 형 권철신도 그의 권유를 받고 입교하였다.

권일신은 양근지역 외에 중앙에서도 활발하게 신앙활동을 전개하다 신해박해 때인 1792년 사망하였고, 권철신은 신유박해 때인 1801년 고문끝에 사망하였다. 그 밖에도 양평지역에서는 초기 박해시대에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만 60여 명에 이르고, 무수한 사람들이 신앙을 증거하다 이름마저 남기지 못한 채 순교하였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 온 나라에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양평지역이 한국 천주교 신앙의 못자리가 되었다.

2. 일제시대의 양평

양평지역은 개항 이후 화서학파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던 곳으로 항일 민족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한층 높았다. 그 영향으로 일제 통치하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전개과정은 그 시위규모나 양상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방대하고 치열하였다. 특히 양평지역은 개성 등을 제외하면 당시 시흥군(始興郡)과 함께 경기도내에서 만세시위운동이 가장 일찍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양평지역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총 25회에 걸친 시위에 2만 1,000여 명의 양평군민이 참여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최초의 시위는 3월 10일 서종면의 문호리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날 시위에는 수백 명의 군중들이 참여하였다.

양평지역의 만세시위운동은 3·1운동이 전반적으로 대중투쟁의 양상을 띠어가던 3월 하순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이 시기에는 농민들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지역 사이의 연대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양평군의 경우도 이러한 전국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상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일제 통치하에서 양평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3월 하순 이후 농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고,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의 「격문」 등 인쇄물에 의한 선전활동이 시위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는 양평지역의 항일민족의식과 항일독립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양평지역에서는 학생·청년운동을 비롯하여 신간회 지회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항일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양평지역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시기를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힘겹게 겪은 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도도히 점하면서 호흡하고 있다.

제7절 한국전쟁 당시

한국전쟁 당시 양평군에서는 특히 많은 전투가 벌어졌다. 공산군의 주력부대가 모두 강원도와 경기도를 통과했고 두 차례에 걸쳐 적과 아군이 진격과 후퇴하는 최전선 격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양평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는 다음과 같다.

양평 용문산(1157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국군으로서는 가장 치열한 격전이었고 전과에서도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중공군의 대공세를 물리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전세의 흐름을 뒤바꾸어놓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주역으로 공격하였던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이 용문산 방어전에서부터 강원도 화천발전소까지 60여km를 진격하는 장쾌하고도 처절했던 전투로서 양평지역 주민들도 민병으로서 직접 참여하였던 대표적인 전투이기도 하다.

용문산 전투의 전개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195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청천강 부근에서 한·미 연합군의 주력부대인 미군 제8군이 공산군에 의해 격퇴되어 후퇴하였다. 장진호 부근에서는 제1해병사단이 격퇴되고 12월에는 국군과 UN군이 38도선까지 밀려 내려왔다. 1951년 1월 4일 공산군은 수도 서울을 제침략하였고 1월 24일에는 오산·제천·삼척으로 이어지는 황우선(黃牛線)까지 적군이 진출했다.

특히 1951년 4월 22일에 개시된 제1차 중공군 춘계공세는 그 주력이 중·서부전선으로 지향하여 미군 제1군단과 제9군단 정면을 돌파한 다음, 수도 서울을 이중으로 포위하려 하였

다. 이때 임진강 부근에서 적군과 접전하기 시작한 미군 제1군단은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해가며 시간을 끌었다. 또한 영국군 제29여단 예하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 대대의 용전으로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군 제1사단과 미국군 제3사단 소속이 신속하게 전선을 재정비함으로써 서울 북쪽의 이른바 '골든 선(Golden Line)' 에서 중공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군 제9군단에 배속되어 김화지구의 와이오밍 선(Wyoming Line)으로 진출하려던 한국군 제6사단은 사창리 계곡에서 중공군 제20군과 제40군 등 6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아 저지당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 수비부대인 제6사단이 크게 와해되어 1/3에 가까운 병력과 사단의 주요장비를 모두 잃고 30km 이상을 후퇴해야 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로 인해 미군 제9군단은 사창리·화천선에서 가평·춘천선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지켜본 미군 제8군에서는 다시 모든 전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미군 제9군단을 흥천·용문산·덕소지역까지 철수하는 바람에 전선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 새로운 전선을 '노네임 선(No Name Line)' 이라고 명명하여 미군 제1군단 지역의 골든 선과 연결함으로써 동해안의 속초 대포리·흥천·용문산·의정부·구파발로 이어진 신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후 중공군과 북한군이 합세한 뒤 새로운 공격집단을 형성하여 회심의 일전, 곧 제2차 춘계공세를 감행하였다. 이 작전에서 그들은 현리 지구의 제3군단을 포위하는 동시에 미 제9군단 정면으로 제6사단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용문산이다. 이때 용문산 지역을 방어하던 한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제63군과 치열한 결전을 벌였는데, 이를 양평의 용문산 전투라고 한다.

1951년 5월 16일 공산군은 공격을 개시하였다. 주공격부대들이 중동부전선의 주저항선을 돌파하자 중서부지역의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여 중동부 전선으로의 증원을 차단하고 그들의 주공격부대의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17일 조공부대를 북한강 계곡으로 투입함으로써 중서부전선에서도 혈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중공군 19병단 예하 제63군의 3개 사단 제187·188·189사단이 북한강과 흥천강의 합류점 부근을 방어중인 미군 제9사단의 중앙사단인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해 왔다. 당시 제6사단은 사창리에서 4월 공격 세력의 시련을 겪은 후 전선 조정예 따라 1157고지인 용문산 일대를 점령하고 방어에 주력하고 있었다. 제6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여파로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고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불명예를 씻기 위해 정신적인



용문산지구 전적비

재무장과 훈련에도 전념하였다.

이후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양평 용문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중공 제63군의 선제공격으로, 1951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혈투로 점철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결국 진지를 지켜낸 보병 제6사단은 20일 오전 5시에 총반격을 개시하여 22일까지 당면한 적을 격멸하고 장쾌한 승리로 매듭지었다. 이른바 용문산 전투의 전개이다.

노네임 선상의 방어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 전투는 미군 제2사단의 778고지 전투의 승전과 함께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를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호기를 포착한 미군 제8군은 모든 전선에서 다시 재반격을 단행, 한 번에 60여km를 진격하였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개된 이 작전에서 한국군 제6사단은 적의 집결지로 알려진 가평 북쪽의 지암리 일대를 포위 공격한 끝에 2,000여 명의 중공군 포로를 잡았다. 이어서 춘천 북쪽의 부용산을 넘어서 화천발전소를 탈환하는 등 승승장구의 개가를 올리면서 '칸사스 선' 까지 진출하였다. 용문산 방어전으로부터 화천발전소 탈환전까지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전개된 작전이었던 것이다.

반면 중공군은 그 기간 중에 10만 명의 병력을 잃고 주요 장비를 거의 상실하는 등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수세 일변도로 밀리게 되었다. 마침내 공산군은 휴전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부터 모든 전선은 제한전쟁의 성격을 띠고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착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용문산 전투는 일개 방어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린 기록적인 작전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승패의 갈림길에서 적의 기도를 분쇄하여 공세 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지평리 전투는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서 얻은 최초의 전술적인 성공이었다. 이 전투로 제8군

사령관은 그동안 아군이 지난 12월과 1월 초의 곤혹스러웠던 철수시기에 상실했던 사기를 확실히 되찾고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확신하였다. 이처럼 지평리 전투는 강력한 공격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한 전투였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한미연합사 예하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은 이곳 전투지역을 답사하여 당시 전투상황과 지형 그리고 전술적인 교훈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이렇듯 지평리 전투는 한국 전쟁사 정리와 새로운 작전계획에 참고하는 데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8절 한국전쟁 이후

한국전쟁 이후 양평군을 비롯한 경기도는 분단을 상징함과 동시에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지역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한국현대사 최대의 전환점이자,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배태시킨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계기였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민의 개인적·집단적 고통을 낳았고,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다.

한국전쟁으로 입은 참상은 전무후무한 비극의 연출이었다. 38선이 있었던 경기도는 공산군의 침략 진로와 퇴각로라는 두 국면을 거치면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는데, 양평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양평군은 한강을 끼고 양평읍과 강상면이 마주하고 있으나 강상면측은 한수 이남이고 양평읍은 한수 이북이라 작전상, 한강으로 경계를 삼았다. 피난 갔던 농민들은 전투가 소강상태로 돌아갔으나 한수 이북이라 제 집 제 농토로 돌아가질 못하고 거리에서 헤맸다. 다행히도 1953년 6월 20일 UN군 당국에서 한수 이북의 6개군(고양·양평·양주·가평·포천·파주)에 대한 농민 복귀를 허용함에 따라 늘어나기만 하던 난민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민들에 대한 당국의 대책으로는 구호대상자 1인당 1일 3홉의 식량과 부식대 및 연료대로 5환이 무상 공급되었으며, 의복과 침구는 입수되는 대로 배급을 주었다. 난민 중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수용하여 집단으로 운영했다.

정부는 전후의 부흥과 경제재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휴전선의 안정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력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란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파괴는 좀처럼 재건되지 못했다. 국민 대다수는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 끼 밥도 부담스러웠다. 이후 자유당 정권, 4·19혁명, 5·16쿠데타, 제3공화국, 유신정권 등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양평은 꾸준히 자신의 생활기반을 회복하고 발전을 이룩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3장 양평의 민속과 의례

제1절 생활풍속과 의례

제2절 민속유물과 유적



여 백

제1절 생활풍속과 의례

양평의 세시풍속에는 경기지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 외에도 특기할 만한 것들이 많다. 또한 양평 내에서도 산간지방과 강안지역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남한강 주변에는 아직도 어부심이라는 고사 행위가 남아 있고 용왕신에 대한 개념도 살아 있는데, 동북쪽의 산간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시풍속이다.

정월이면 마을마다 척사대회를 갖고 달맞이 가는 일은 널리 퍼져 있는 풍속이다. 그러나 달맞이행사의 하나인 동화제와 함께 제웅을 만들어 태우는 풍속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인데, 양평에는 남아 있다. 강하면 항금리 항금마을의 동화제는 군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축제이다. 마을에서는 흔히 '동화 매기' 또는 '동화 태우기' 라고 부른다. 한편 남쪽지방에서 흔히 나타나는 줄다리기는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예전에도 줄다리기는 흔했던 것 같지 않다. 물론 오래 전에 없어진 것이지만 지제면 지평리에서는 석전(石戰)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동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정월 세시풍속의 하나로 외부 장사꾼들이 와서 팔았던 복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양평에는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와 같은 큰 절이 있는데 신도들도 많아 절에서 행하는 각종 예불들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세시풍속과 연결되어 있다. 음력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과 백중, 그리고 특히 용문사의 은행나무와 관련된 행사는 인근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다. 초파일 때는 양평관내 큰 절에서 작은 절까지 모두 행사에 참여하여 신도들이 갖가지 등을 들고 양평읍내 양평종합고등학교 교정에 모여 시가행진을 벌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주민축제로 이어진다.

남쪽 지방에서는 찾기 힘든 단오행사가 동북쪽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행해진 것도 특기할 만한데, 벼농사보다는 밭농사 비중이 컸을 때 형성된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오일장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백중장은 일제시대부터 성행하였는데, 이것도 주로 동북쪽 산간지대에서 활발하였다. 백중놀이는 장에서 대략 닷새 동안 행하여졌는데 바쁜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종일 놀다 간다. 백중장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화랭이페도 왔다고 한다. 또한 강하면 성덕리의 고창굿, 각 지역 마을에서 갖는 산신제 또는 산제가 양평지역의 특징적인 민속신앙이라 할 수 있다.

1. 세시풍속과 놀이

양평에서 행해졌던 정월 보름을 즈음한 다음의 풍속들은 아직도 어른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정월 14일 아침에는 만두국을 먹고 저녁에는 시래기, 취나물 등을 먹는다. 밤에 아이들은 거지처럼 꾸미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닌다. 보름날 새벽에 어부심을 하고 아침에 부럼도 깨고 귀밝이술을 마신다. 예전에는 막걸리에서 받은 맑은 술인 약주술을 마셨는데, 지금은 그냥 소주를 마신다고 한다.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찰밥에 김도 싸먹고 나물도 먹는다. 저녁에는 콩과 차좁쌀을 섞은 맬쌀로 밥을 해먹는다.

정월 16일에는 저녁에 새알심을 넣은 팔죽을 먹는데, 일부를 조금씩 벽에다 묻혀서 귀신을 예방한다. 저녁에는 또 화로에 고추씨, 목화, 머리카락, 소금 등을 넣고 불을 붙인다. ‘얼기미’ (가루치는 채), 삼태기, 대바구니를 대문 앞에다 매달아놓고 신발은 죄 안으로 들여놓는데, 그러면 귀신이 대문 앞에서 그것을 세다가 어느덧 닭이 울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한다. 신발은 달귀 귀신이 신고 가지 못하게 들여놓는 것이다. 혹은 ‘달귀 귀신날’이라고 하여 부정풀이를 하는데, 팔죽을 쭈어 맑은 물에 갠 다음 마당가에 끼얹었다. 마당과 대문간에는 왕겨, 머리카락, 고추씨 등을 태웠다. 그러면 귀신이 그 냄새가 싫어서 도망간다고 했다.

어부심

어부심은 한자로 어부시(魚屍施)라고 쓰며 강에 사는 물고기나 오리[鳧]에게 배운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강에서 고기도 잡고 먹감는 일도 많아 강 주인인 물짐승들에게 일 년 내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비는 신앙행위였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강가에 사는 집이면 누구나 어부심을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개군면 상자포리에 사는 김연희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같이 뱃사공일을 하는 등 강과의 깊은 인연으로 아직도 정월 보름이면 어부심 고사를 정성껏 해오고 있다. 김 할머니 집의 어부심 고사는 새벽 2시경에 시작된다. 전날 미리 방앗간에서 짙은 햅쌀로 먼저 고양(供養), 밥을 지어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용왕님 어부심”이라고 하면서 3배 하고 다음은 아드님 나이를 대면서 3배, 다음은 며느리, 손자 순서로 나이를 대고 3배 한다.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여기서지 집안 구석마다 한 손갈씩 떠놓지 말고 부엌에만 떠서 부으라고 하셨다 한다. 그다음에는 ‘고양’ 밥을 퍼들고 강가로 가지고 가서 용왕님 앞에 놓고 ‘사해

용왕님' 을 찾으면서 동해, 남해, 서해, 북해 순서로 돌아가며 1배씩 4배하며 "아무개, 아무개 물가에 가도 조심해 주세요"라고 기원한 다음 발목이 찰 정도의 물로 나아가 왼손으로 바가지에 담은 '고양' 을 물에 푼다. 정월 보름에 동네에 부정이 있으면 2월 초하루로 미루어 지내기도 한다.

또한 정월 대보름날 오후에는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사나사 주관으로 남한강가에 위치한 양평읍 갈산공원에서 방생제(放生齋)가 열린다. 방생은 사람에게 잡힌 살아 있는 물고기와 짐승을 살려보내는 의식으로 살생을 금하는 계율보다 적극적인 선행이다. 이러한 행사는 초파일을 맞아 행하기도 한다.



어부심 고사를 지내는 모습

양평읍 줄다리기

음력 정월 보름에 양근 개울 양편의 관문거리 마을과 아랫마을이 줄다리기를 해서 진 편이 나무다리인 양근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줄다리기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양편이 같은 수로 한다. 다리를 놓는 시기는 해동이 된 봄철이다. 소나무를 베어서 솔가지를 놓고 흙으로 덮어 만들었다. 1930년도에 마지막으로 줄다리를 하였다고 한다.

강상면 세월리 옷놀이 보름행사

세월리의 대보름 행사로는 옷놀이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날에는 농악패들이 전복리, 대석리 등까지 다니면서 걸립을 다녔다. 그 농악패를 두레패라고 했는데, 대부분 노인이 되거나 돌아가셔서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다.

강하면 항금리 항금마을 동화제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 행사의 하나로 '동화제(洞火祭)' 또는 '해동화제' 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흔히 '동화 매기' 또는 '동화 태우기' 라고 부른다. 정월 대보름날 밤 올라오는 달



동화제에서 벗짚을 태우는 모습

을 맞이하며 마을 가운데 있는 논바닥에서 동화를 태우는데,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다. 동화를 매기 위한 나무는 집집마다 한 짐씩 가져온 잔솔가지를 포함한 여러 종의 나무들을 모아 사용했던 것인데, 현재는 날을 정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틀간 함께 나무 베는 작업을 한다. 베어온 나무를 새끼줄이나 밧줄과 함께 늘어놓고 세웠을 때 위로 올라갈 부분에는 '기'를 단다. 기는 반으로 자른 창호지에 축원문을 적은 것이며, 고사를 끝내고 동화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곳이기도 하다. 항금리에서 닥종이를 생산하던 시절에는 동화를 백다(껍질을 벗긴 하얀 닥나무)으로 감쌌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에서 닥종이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서 그

만두었다 한다. 나무를 다 묶으면 양쪽에서는 '동화바'를 당기고 뒤에서는 막대기로 받치면서 일으켜 세운다. 완성된 동화는 높이 16m 정도이다.

고사 전에 제관 1인과 축관 1인을 선정한다. 제물로는 막걸리와 냉수 그리고 검은콩을 넣은 시루떡을 올린다. 제주는, 지금은 구입한 막걸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는 15일이나 20일 전에 담가 만든 술을 올렸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였다. 제관이 나 축관을 선정하기 전이므로 제관이나 축관과 중복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고사를 전후해서는 풍물을 치며 흥을 돋우며, 고사가 끝나고 동화를 태울 때는 "불을 장대로 올려서" 꼭대기에 달려 있는 기에 붙인다. 따라서 동화불은 위에서 아래로 타면서 내려오게 된다. 불을 붙이고 서너 시간이면 동화가 전부 다 탄다. 동화는 떠오르는 달을 보고 넘어가야 좋다고 해서 일부러 동쪽으로 머리를 놓고 짜기 시작한다고 한다. 동쪽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야 동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만일 동화가 동쪽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려 하면 동화를 일으켜 세울 때 사용한 장대로 동화를 동쪽으로 밀어서 쓰러뜨리기

도 한다. 동화의 꼭대기에 액막이를 꽂는 일을 하면 이들을 낳는다고 해서 일부러 아들이 없는 사람을 올라가게 한다.

동화를 태울 때는 부정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며, 여자들도 참석한다. 동화 태우기에 사용할 쌀이나 나무를 모을 때, 가정에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추렴이나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일 고사가 끝나고 동화에 불을 붙여 꼭대기의 기가 전부 탄 다음에야 집 밖에 나올 수 있었다.

제물로 사용한 시루떡은 고사가 끝나고 동화에 불이 붙으면 젊은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주는데, 이를 '달떡' 이라고 한다.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서 손으로 달처럼 동그랗게 뭉쳐서 나누어준다. 달떡을 먹으면 운수 대통하고 아들딸을 잘 낳는다고 하여 서로들 먹으려고 한다. 또한 동화를 태우기 전에 각 가정에서는 나이 수대로 짚을 매어서 태우고 달을 보고 "하느님, 달님 절 받으세요" 하며 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한다.

강하면 항금리 정월 대보름

다음과 같은 세시풍속들이 과거에 행해졌고 일부는 지금도 행해진다.

- 새 쫓기 : 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이 집안 한 바퀴를 돌며 "휘이~" 하며 새 쫓는 시늉을 한다.
- 망우리(횃대) 태우기 : 깻잎대, 수수대, 짚 등을 나이 수만큼 마디를 묶어 들고 "하느님, 달님 절 받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한 줄로 독에 모여 서서 절하며 태운다. 약 40~50년 전까지 했다고 한다. 주로 어른들이 깻잎대를 묶어주었다.
- 대보름 음식 : 보름날 해먹는 나물을 묵나물이라고 하며, 취나물, 고사리, 실가리(시래기), 고비, 호박 등이 있다. 다래순 같은 것은 산에서 따다가 삶은 다음 말려서 불렀다가 무쳐 먹으며, 기름을 넣고 나물을 볶다가 간장으로 간하고 마늘과 깨소금을 넣어 먹기도 한다. 오곡밥은 찹쌀, 수수, 차조, 콩, 팥 등을 섞은 밥이다. 귀밝이술은 집에서 막걸리처럼 담궈 먹는 술로 한다.
- 부스럼(부럼) 깨물기 : 보름날 아침에 호두, 밤을 깨물어 내버린다. 여름에 풀밭에 다닐 때 종기,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양서면 양수리 정월풍속

정월 설 차례 준비를 위해 작은집은 전날, 즉 선달 그믐에 큰집에 가서 제수를 마련하고 만두를 빚는 등 큰집 일을 돕는다. 차례는 아침 8시경에 지낸다. 세배한 아이들에게 과일이나

다식 같은 것을 주었는데 일제시기부터는 돈을 주기 시작했다.

복조리는 동네 학생들이 팔았다. 복조리는 항상 쌍으로 판다. 설날 아침에 마당에 던져두고 나중에 수급하러 오는데, 이때 반드시 사야 한다. 1년 동안 안방이나 현관에 걸어놓고 해가 바뀌면 사용한다. 지신밟기는 동네사람들이 했는데, 보름에서 그믐까지 한다. 마을에 있는 사람 전부 지신을 밟아주고 방방을 돌아다니며 빌어준다. 이때 막걸리를 대접한다. 고사반에는 돼지머리, 술, 시루떡을 올리고 돼지머리에는 돈을 낸다. 지신밟기를 하여 모은 돈은 모두 동네돈으로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이나 상여를 구입할 때 쓴다.

지제면 지평리 석전

예전에 지평현 관아가 있었던 곳인 지평리에서는 일제시기 이전까지 매년 석전(石戰)이 행해졌다고 한다. 성황제를 전후한 시기인 2월 상순에 했다고 한다. 송현리가 역말이어서 젊은 청년들이 많았으므로 그쪽이 한 폐가 되고 지평리 사람들이 한 폐가 되어 향교로 나가는 다리 부근에서 지평천을 사이에 두고 석전을 벌였다고 한다.

청운면 다대 2리 백중날

백중날인 7월 15일에는 마을에서 풍물을 치고, 거의 매년 개를 잡아 먹었다. 백중은 용두리장에서 했는데, 시장에서 "백중한다"고 한다. 거의 일주일을 놀면서 씨름 같은 시합도 했다.

강하면 성덕리 호미씻이

성덕리에서는 두레패에서 결산하는 날을 '호미씨세(호미씻이)'라고 하였는데, 보통 음력 7월 말에 개최하였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크게 노는 날로, 논매기는 그 전에 끝나지만 다른 급한 농사일을 마무리하면 이때가 행사하기 가장 좋은 때였다고 한다.

양서면 수장의 백중장

양수리 주민들은 백중 전후로 닷새 동안 열리는 양수장 백중놀이에 참가하였다. 화랭이패도 왔는데 언제까지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월면 단월장의 백중장

단월장에서도 백중장이 있었는데 단월면 전체가 단월 백중장으로 올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고 한다. 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백중을 세워서 밤에 영사기로 돌리는 영화도 상영하고, 노래 자랑도 하고, 씨름대회, 농악 등 난장을 벌였다. 서커스, 줄타기 등도 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시장번영회가 주관하여 서울에 가서 예약을 하고 공연할 사람들을 불러왔다. 장이 서던 첫째는 장세도 받지 않았고 용두장 등 다른 장에 백중행사 광고를 내는 등 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백중장은 백중 무렵에 밤낮없이 5일 동안 열렸다. 이를 "백중 선다"고 말하는데, 이때가 되면 "배중이 적삼 입은 놈들이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자고 그랬다"고 한다. 농악대, 씨름, 야바위꾼 노름, 심지 뽑기 등을 하므로 온갖 건달들은 다 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씨름꾼이 많이 왔으며 각 마을에서도 농악대들이 나왔다.

청운면 용두장의 백중장

용두장에서는 일제시대 때 백중장이 섰다. 백중장을 구경하기 위해 각 면에서 다 몰려올 정도였고 힘쓰는 사람들은 씨름하려고 몰려왔다. 백중장 주관은 시장에서 하며 시장관리인이 진행하였다. 백중장이 서게 되면 상인들에게 찬조금을 걷고, 그 돈으로 씨름에서 일등한 사람에게 송아지나 광목 같은 것들을 주었다.

음력 7월 중에 7일 이상을 장에 나가 놀았을 정도였다. 그곳에서는 도박과 씨름을 했다. 씨름은 다른 동네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오기도 하였다. 각 마을마다 원래 있던 농악패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타지에서 광대들이 줄을 타러도 왔다. 용두리 개울가에서 열렸는데, 백중장이 서로 겹치는 일은 없었다.

덕수 이씨 추석 차사(茶祀)와 묘사(墓祀)

양동면 삼산리에 거주하는 덕수 이씨 이인용 씨 집안에서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정월 대보름, 2월 또는 3월의 한식,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9월 중앙절, 11월 동지에 각각 차사(茶祀)를 올렸고 10월에는 시제를 지냈다. 유일하게 제사가 없었던 12월은 '썩은 달'이라고 하였다. 차사의 제수로는 대보름의 약밥, 한식의 생마, 단오의 수리치떡, 유두의 보리감주, 칠석의 병림, 추석의 송편, 중앙절의 무시루떡, 동지의 팔죽 등으로 구별된다.

차사를 지낸 뒤에는 빈손으로 묘소를 찾아 절을 올리는 형식으로 성묘를 마치며, 고조 이상

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는 길이면 들러서 절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 한식과 추석은 예외여서 위답을 경작하는 묘지기가 마련한 제수로 묘소에서 묘사(墓祀)를 지냈는데, 더 이상 묘지기를 두지 못하면서 현재는 증조부모의 묘사만 이전 방식대로 제물을 차려 지내고 있다.

단월면 산음2리

차례상에는 햅쌀로 지은 밥, 햅쌀로 빻은 송편, 탕국(무, 들기름, 북어를 넣는데 요즘은 쇠고기를 많이 쓰기도 한다), 전으로는 부치기와, 고기와 야채를 넣고 조그맣게 부친 전을 올리며, 메밀전병(메밀전병 부친 것에 볶은 고기를 넣는데, 요즘은 메밀이 별로 없어서 밀가루를 주로 쓴다), 적으로는 북어(양념해서 익힌 후 통으로 꼬챙이를 꿏는다), 닭(익힌 후 고명 없어서 통째로 올린다), 돼지고기(두세 근 정도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통째로 삶은 후 고명 없어서 올린다)를 올린다. 햇과일로는 대추, 밤, 감, 사과, 배를 올린다. 나물은 삼색나물을 올리는데, 하얀색으로는 무나 숙주나물을, 고비(고사리와 다르다. 고사리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파란 채소로 시금치 같은 것을 올린다. 이밖에 옥춘(빨간 사탕이라고 한다), 다식(콩을 갈아서 꿀로 빻아서 판에 누른 것), 과일(참쌀을 찌서 방망이로 짰어 으갠 다음 솔잎을 깔고 며칠 동안 숙성시킨다. 이것을 다시 햇볕에 말린 후 기름에 튀겨 잘 일어나면 튀긴 쌀이나 조를 조청을 발라 그 위에 입힌다. 완성하는 데 보름 정도 걸린다)을 올린다.

칠월칠석이 되면, 10여 년 전까지는 밀부치기(밀전)를 해서 먹었다. 김치나 배추 절인 것에 밀가루를 묻혀서 부친 것인데, 배추전 같은 것이라고 한다.

강상면 교평리 강상두레패 및 남사당패

1950년대 중반에 남운영이 강상면 교평리에 정착하였다. 남운영은 남사당패의 '뜯쇠', 즉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꼭두쇠 바로 밑에 있는, 선임 연희자 출신이었다. 자유당 시절에는 서울에 몰려가서 생일축하연에 공연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 초 남운영은 서울 국악예고 교사로 가고 부인 박계순이 민속촌에서 아들과 함께 남사당패 활동을 이어나갔다. 남운영은 남사당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고, 그가 작고한 후 부인 박계순이 남사당패 보존회장을 맡고 있다.

양평에서는 1970년대 초에 일단 맥이 끊겼다. 따라서 강상면 교평리가 남사당패의 마지막 정착지가 된 셈이다. 당시 민속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던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광복렬 씨(63세)가 그 중 한 분이다. 현재 사물놀이패를 이끄는 김덕수는 1972~73년경까지 이곳에서 활동했다. 김덕수는 충남 출신으로 그 아버지가 이곳에서 2~3년간 생활하면서 남사당패에 가담하였으나 이후 외지로 나갔다고 한다.

남사당패가 교평리에 정착하기 전부터 교평리에는 두레패 활동이 활발하였다. 남사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풍물로만 하던 것이 남사당이 들어오면서 풍물 이외에 무동태우기, 버나돌리기, 꼭두각시 인형극 등 여러 가지 공연을 하게 되었다.

텃고사

일 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상달 중에 터주를 갈면서 지내는 고사이다. 새 터주를 세우면 이전 터주는 강에 떠내려보냈는데, 요즘에는 집 앞 텃밭에서 태워버린다. 텃고사 약 한 달 전에 미리 맘속에 하고 싶은 날을 정해 놓는다. 원래는 말날(戊午日)에 하는 것이 “굿한 맛잡이”(돈을 내어 신이 굿을 해주는 날처럼 좋은 날이라는 뜻)라서 좋다고 한다. 터주 가는 날에는 왼새끼로 끈 금줄을 대문 앞에 쳐놓는다.

제물은 떡시루 3개, 쌀막걸리, 초, 정화수, 북어를 준비한다. 멍쌀 5뿔박, 찰쌀 5뿔박으로 팔시루떡을 만드는데, 모두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사용한다. 무오일에 고사를 지낼 때는 무시루떡을 준비한다.



터줏거리 태우는 모습

2. 집안신앙

뱃고사 또는 배걸이는 강이나 나무와 관련하여 행해지던 강안마을의 민속이다. 뱃사공이 아니더라도 배를 가진 집에서는 이른 봄과 음력 10월 상달고사 등 일 년에 두 번 정도 뱃고사를 지내거나 만신을 불러 뱃굿을 했다. 반면 산간지방에서는 산치성을 지내고 나서 집고사를

지내는 집안들이 있었다. 대부분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지만 정월이나 2월에 집고사를 지내는 집도 많았다.

양서면 대심2리 뱃고사와 배걸이

음력 정월 보름 경에 얼었던 강물이 녹을 때 떡 조금과 술로 뱃고사나 배걸이를 한다. 돼지머리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안마다 다르다. 그 해에 처음 배를 띄우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룻배를 운영하는 뱃사공도 배걸이나 뱃고사를 한다. 나룻배를 운영하던 뱃사공 최현 씨(61)에 의하면 매년 음력 2월 중순경이면 뱃고사를 지냈는데, 제물로는 돼지머리, 복어, 시루팥떡, 막걸리 등을 놓았으며 과일과 밥은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배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막걸리를 붓고, 절을 하고, '뱃삼'을 세 번 치고 그 위에 떡시루를 올려놓는 것으로 고사는 끝난다. 무당을 부른 적은 없었다. 배를 새로 만들고 나서 하는 진수식 고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여름에는 장마가 저서 송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배는 주로 봄에 짓는다.

양서면 신원1리 샘골

가을고사는 햅쌀이 나면 음력 9월이나 10월에 집에서 마을 뒤편 부용산을 향해 절을 하면서 가구 단위로 고사를 올렸다.

양서면 부용리

부용리 한 가정에서는 음력 10월 2일에 산치성이 끝나고 당일이나 다음날 각각 집에서 고사를 지낸다. 햅쌀을 찿어놓은 집에서는 산치성을 지내기 위해 조심해 왔기 때문에 다음날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사를 지낼 수 있다. 고사 지낼 때 떡은 지석(제석, 안방), 성주(마래, 마루), 터주(장광)에 올리고, 대문간, 우물, 화장실에도 놓는데, 화장실에는 일을 보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놓는다. 안방과 마루에는 시루팥떡을 해서 시루째 놓고 술도 놓는다. 터줏가리 안에는 향아리를 놓고 그 안에다 옛날에는 벼(곡식)를 넣었는데, 지금은 돈(동전)을 넣는다. 음식을 새로 사오면 익히거나 조리하기 전에 날것 상태로 군웅을 모시는 장광에 놓고 고한 다음에 먹는다.

음력 3월에는 모자리(못자리) 고사를 지내는데, 봄에 벼 못자리를 만들고 집집마다 시루팥떡을 해서 가을고사를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 늘 놓는 자리에 제물을 놓고 지낸다.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엄나무

김이선 집 입구의 엄나무는 김이선이 직접 산에서 구해온 것이다. 상하거나 떨어지면 새것을 구하여 다시 다는데 이것은 남자들의 역할이다. 김이선의 경우 엄나무를 대문에 건 이유는 이전에 꿈자리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잡귀가 가시에 찢려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제면 일신리 김이선 집 입구의 엄나무

지제면 일신리 김씨 할머니네 집

일신리 김씨 할머니는 구둔에 있는 만신(보살)을 일 년에 정월 초사흘, 4월 초파일, 칠월 칠석, 10월 상달 등 4차례 방문하였다고 한다. 한 번 찾아갈 때 비용은 2~3만 원(쌀 한 말) 정도 든다. 따로 만신이 쌀을 거두러 다니지는 않았다. 구둔에 있는 만신은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도 있다. 신병이 나서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자식들 오남매가 다 외지로 나갔다. 상달고사 때는 안방, 옷방, 마루, 우물, 대문간에 팔떡과 콩떡(동부)을 둔다. 가을에는 주로 팔떡을 하고, 콩이 날 때는 콩떡을 만든다. 안방과 마루는 시루째 올리며 나머지는 떡을 찢어서 조금씩 둔다. 대문간에 떡을 놓는 것은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이며, 방에 두는 것은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3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꼴로 성주를 받으러 갔다. 이때는 떡만 준비한다. 성주 받을 때는 쌀 한 가마 정도의 비용(약 20만 원)이 든다. 성주 외에, 방과 마루에도 쌀을 놓아두어야 하며, 복사나무나 솔가지 등을 꺾어 자리를 잡는다. 성주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손대지 않는다. 구둔에 보건소가 있지만, 멀어서 잘 가지 않는다.

개군면 상자포리 김연희 할머니 댁 집안신앙(뱃굿)

배를 가진 집에서는 이른 봄과 음력 10월 상달고사 때 등 일 년에 두 번 정도 뱃굿을 했다.

만신을 불러 배에 떡시루, 삼색과일, 술을 차려놓고 정치기, 굶치기를 한다. 절의 보살이 와서 해주기도 한다. 배 안에서 어부심을 할 때는 고사떡을 배 가운데 놓고 지낸다.

단월면 산음1리 고복마을 가을고사

음력 10월 초사흘날이나 초이렛날, 또는 말일에 시루팍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는데 귀찮으면 밥만 해서 올린다. 안방에는 지석(제석)을 모시고, 마루에 성주, 부엌에는 조왕, 장독대에는 터주를 모신다. 이외에 우물(수돗가), 외양간(소구영, 구유), 문간(대문)에다 고사를 지낸다. 모시는 신체는 따로 없다.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터고사'를 지냈다. 당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움을 받아 고사를 주재하였다. 팍시루떡을 해서 고사가 끝난 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집들이를 겸한 것이었다. 약 7년 전에 집을 개량하면서 성주는 마루의 상기둥(상량)에 창호지를 네모로 접고 안에 쌀을 넣어 모셨다. 성주를 받을 때는 보살님을 모셔 크게 지냈다.

제물은 지석과 성주에는 팍시루떡을 시루째 놓고 시루 위에 정안수와 막걸리 각 한 사발씩, 올리며 나머지는 떡을 잘라 조각을 놓는다. 예전에는 쌀을 3말 정도 해서 마을 사람들 30호가 다 나누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1말 정도만 한다.

청운면 여물리 집안고사

이 마을에는 정월이나 2월에 고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 자기 나름대로 성주를 모시는 고사를 지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살님이나 스님이 와서 해주는 집도 있다. 명절차례 중에 한식차례를 지내는 집은 별로 없다.

3. 마을신앙

양평의 마을신앙은 산제, 또는 산신제가 주를 이룬다. 엄밀하게 산제와 산신제는 다르지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신제나 산제 모두 과거의 호환(虎患)과 관련된 듯하다. 산간지역일수록 호환에 대비하거나 호랑이를 달래서 화를 면하려는 의도가 남아 있다. 장승신앙도 더러 나타난다. 솟대 또는 짐대와 관련된 신앙은 간혹 보일 뿐이다. 성황제 또는 서낭제가 주로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동북지역이다. 지평리 성황제의 경우는 조선 말기까지

읍치 단위에서 행해졌던 것 같다. 그 밖의 성황제도 지역범위가 넓었던 것 같으나 이제는 대부분 마을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강하면 성덕리의 고창굿이나 용문면 덕촌리의 구천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마을제사이다. 도당굿은 김포, 시흥, 강화 등지에서 행해진 굿인 반면 고(곳)창굿은 광주, 여주, 이천 등지에서 행해지던 굿의 이름인데, 1970년대 전반까지 행해졌다.

강하면 성덕리 고창굿

성덕리 네 곳에는 각각 고창굿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 국수당,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 삼신당 등이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 당의 관계는, 국수당이 제일 웃당이며, 도당 할아버지는 국수당의 아들격이며, 도당 할머니는 국수당의 며느리격이 된다. 고창굿은 일종의 산제사이며, 원래는 한날 한시에 각 마을에서 국수당,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머니에 대한 제사를 동시에 지내던 것인데 어느 때부터가 세 당을 돌아가면서 제를 올리게 되면서 가장 밑에 있는 할머니당부터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할아버지당, 국수당순으로 옮겨갔다. 첩당은 다른 당처럼 제사를 독자적으로 지내지는 않고, 세 당에서의 제사를 마친 후에 "대를 모시고(대내림을 하고)" 술 한 잔 부어놓는 곳이었다. 세 당에서 별도로 산제를 올릴 때에는 각기 화주가 별도로 있었고 소지도 각각 올렸지만, 제물은 할머니당을 모시는 화주가 모두 만들어서 이를 나누어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국수당에서 산제사를 지낼 때는 쇠로 된 동물들을 넣어둔 곳의 돌을 떼어내고 그 앞에다 늘 어놓은 후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현재 국수당의 돌로 쌓은 곳에 앞쪽으로 나와 있는 철마 등은 부러지거나 상한 것을 바깥쪽으로 꺼내놓은 것으로, 온전한 것은 모두 안쪽 깊숙한 곳에 들어 있다.

고창굿은 격년으로 지낸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3년에 한 번 지낸다고 말한다. 음력 정월 그믐날 동네분들이 모여서 '걸택일'을 하고, 2월 초하루에 '속택일'을 하여 그 중 한 날로 잡는데 대부분 걸택일로 잡게 된다. 지금은 음력 2월 3일로 날짜가 고정되었지만, 예전에는 매년 좋은 날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잡았다. 날은 아무리 늦어도 음력 2월 12일을 넘기지 않았다. 날짜를 택하고 2월 초하루날 그 해에 당화주(세 당의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를 맡을 세 집과 도가를 맡을 집, 소임을 맡을 사람 2명(소임이라고 부르면 낮춰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하면 성덕리 입구의 천하대장군(왼쪽)과 지하여장군(오른쪽)

사람 앞에선 유사라고 부른다), 주비(당곳 비용을 걷는 사람으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서너 집이 되기도 하고, 작은 마을은 두 명 정도 나온다)를 뽑았다. 화주는 전 마을 사람들의 생기복덕이 맞는지, 상이 낮거나 애를 갖 나온 집의 식구들은 제외하고, 부정하지 않고 내외가 모두 있는지를 가려서 뽑았다.

이날 뽑힌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날까지, 동네 깨끗한 개울에서 매일 몸을 씻어서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몸을 씻는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옷물(샘물) 세 군데는 3번 치고(청소를 하고), 제사가 끝나도록 사사로운 일에 절대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 우물은 제수 음식을 만들 때만 사용하였다. 우물은 주로 당하고 가까운 곳이 대부분이지만, 부정한 일이 있었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바꾸었다. 떡 감는

데는 금줄을 쳐놓고 제 지내는 사람집에도 금줄을 쳤지만, 떡을 빻는 방앗간까지 금줄을 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제사 지내는 시기에는 매우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날 받고 나서 상이 나오기 기다렸고 굶다 끝나면 그때 나갔다. 혼례일도 이때는 아예 잡지 않았다. 택일하는 날에도 부정한다고 마을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강하면 왕창리 왕충마을 산치성

왕충마을의 다른 이름은 부루개이다. 매년 음력 동짓달 초하루에 산치성을 올리고 있다. 산치성을 올리는 자리에는 큰 참나무가 있으며, 그 밑에서 치성을 드린다. 제물은 삼색과일과 살코기를 사다가 만든 돼지적, 막걸리를 올린다. 과거에는 부정 없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집에 인줄을 매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게 한 후 산치성 준비를 맡겼다. 제주는 현재에는 막걸리를 사다가 올리지만, 과거 10년 전까지는 새벽에 누룩과 쌀을 '섞어' 넣은 조라술을 담가서 올렸다고 한다.

강하면 운심2리 운포나루 관련 의례

예전에는 정월달에 강가에 나가 밥을 풀어 흘려보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그냥 '고기밥 준다'고 했다고 한다. 겨울이 되어 강이 얼면 강에 매두었던 배를 묶으로 올려서 겨울을 나는데, 이때 배를 묶으로 올리는 것을 '배를 건다'고 하고, 봄에 배를 강에 내리는 것을 '배를 댄다'고 한다. 배를 걸거나 떼는 일은 기본적으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배를 묶에 올려놓을 때 받치는 '권목'을 해오는 일이라든가 배를 끌어올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여타 마을 사람들도 전부 강가로 나가서 여기에 참가하거나 구경하였다. 일이 끝나고 간단한 고사를 치르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 산신제

음력 10월 상달 초순에(주로 초닷새 안에) 택일을 한다.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뽑기 위해서는 날이 많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제관으로는 음식을 차리는 도가 및 도가를 돕는 집 각각 한 집씩, 축관 한 집(깨끗한 집으로 축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등 세 집을 선정하고, 세 집 앞에 각각 황토를 피운다. 그리고 '조래(조라술, 제주)'는 산제일이 틀 전 저녁에 새로 지은 밥을 누



정자동 산신제 당집

룩을 섞은 물과 같이 항아리에 담아 국수산 당집에 올라가 당집 안 지정된 장소에다 묻는다.

제물은 제사일을 받아 놓고 장을 보아 마련한다. 밤·대추 각 1되, 감 몇 개, 묵, 양초 2개를 준비하고 떡은 쌀로 3되 3홉을 뺀다 만들어, 북어포도 통째로 1마리를 올린다.

제를 마치고 하산하면서 마을 입구의 큰 오리나무(일명 귀신나무)가 서 있는 곳과 (과거의 큰길이었던 곳의) 마을 입구 두 곳에 쇠머리, 북어, 떡, 과일을 조금씩 놓고 절을 한 다음 역시

'봉송'을 싸서 나무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마을 입구 두 곳의 제를 다 마친 후에 제물음식 맛을 본다. "어떤 사람은 쇠머리 삶은 국이 짠가 미리 간을 보다가 탈이 났다"고 하여, 제를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에 손대지 않는다고 한다.

옥천면 신복2리 복골 산제사



옥천면 신복2리 복골 산제사

산제사는 복골마을 절골에서 지낸다. 원래는 산봉우리 바로 밑 소나무 아래에 산신제 터가 있었는데, 돼지 한 마리를 지고 올라가기 힘들어 누구도 메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같은 산줄기 밑이라고 여겨 3년 전에 현재 밤나무 아래로 옮겼다. 또 원래는 날을 택일하였으나 요즘은 음력 10월 3일로 정해 놓았다. 신복2리 60호 전체가 참여한다. 신복2리에는 전주 이씨, 청주 한씨, 광산 김씨 및 각성들이 산다. 신복 3리는 동짓달 초하루, 즉 음력 11월 1일에 지낸다. 제물은 돼지, 노구메, 사과, 배, 삼색실과, 통복어, 제주, 백설기시루떡 등이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산제를 시작하는데 약 1시간 가량 걸린다. 칼을 미리 깨끗이 닦아 놓았다가 제 지낼 때 이것을 돼지머리에 꽂아 두는 것이 특이하다.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장승제와 척사대회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에서는 장승제를 지낸다. 이어서 척사대회도 갖는다. 제일(祭日)은 정월 보름밤이었는데, 최근에 안섬부리 향우회가 제를 주관하면서 보름 전후 일요일이나 공휴일 오전 10시경에 행한다. 전날 돼지를 잡고 다음날 장승제를 올린다. 장승 옆에 있는 솟대에는 별다른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제가 끝나면 동네 노인들을 모시고 종일 윷놀이를 벌인다.

장승은 5년 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원래는 두 마을 입구에 각각 천하장군과 지하장군 1기씩 솟대와 함께 서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마을에 주둔했던 중공군을 공격하던 미군들이 마을에 불을 놓으면서 타버렸다 한다. 1960년부터 장승제를 다시 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장소로 모아서 세웠다.

지제면 일신리 장승제사

일신리에서는 장승제를 '숲제'라고 부른다. 마을입구에는 '수평'을 해놓았다. 예전에는 매년 제를 올렸으나 지금은 한 해 걸러 하고 있다. 음력 2월 초에 즈음하여 좋은 날을 택한다. 주로 일요일을 택하며, 흥사가 있을 때는 다소 지연되기도 한다.



지제면 일신리 장승과 짐대

숲제가 있기 일주일, 혹은 3일 전에 장승과 숲 주위에 금줄을 친다. 흥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삼가고,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다. 마을 주민 가운데 제주 있는 사람이 매년 장승을 깎아서 숲제 당일 새벽에 예전에 있던 장승 옆에 나란히 세워놓는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2기 1쌍으로 된 장승 옆에는 장대가 있고, 장대 위에는 '기러기'라고 불리는 새가 있다. 기러기는 한 해 걸러 만든다.

한 시루당 쌀 3되 3홉으로 떡을 해서 각 장승에 놓고, 약주, 북어, 실 등도 놓는다. 땅에 묻어 만든 막걸리를 놓고, 제물로는 내장을 뺀 통돼지를 쓴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어른들을 모시고 국을 끓여 먹는다. 쇠소리를 내면 좋다고 하여 종일 농악을 놀기도 했지만 원래 방식은 아니다. 또한 박수를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박수 없이 지낸다.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구천제사

운계마을의 동제는 '길제사' 또는 '구천제사'라고 한다. 음력 정월 2일 밤부터 3일까지 행해진다. 제를 올리는 곳은 장승거리인데, 예전에는 느티나무와 장승을 보며 동북쪽을 향해 제

사를 지냈다. 지금은 둘 다 사라졌고 최근에 만든 장승은 위치도 예전과 다르다. 구천제의 유래는 호환(虎患)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장승거리가 호랑이 길목이어서 사고가 나곤 했다는 마을 사람의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제사 전에 느티나무와 장승에 인줄을 두르고 제사가 끝난 다음 당일 소각했다. 몇 해째 평양 조씨 종중회관을 도가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과는 다소 떨어진 외진 곳에 종중회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에는 제관과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제관과 축관은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흥한 것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며, 정월 초하룻날에도 차례만 지내고 세배나 성묘를 다녀서도 안 된다. 제사를 마치면 고기와 떡을 조금씩 떼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던지면서 고시례를 한다. 소지는 대동으로 올린 다음,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풍년, 장사, 지손 등을 고하며 축원하면서 개별 소지를 올린다.

단월면 보룡리 기우제

옛날에 “서낭덩이에서 지저분을 피우면 비가 온다”고 하여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서낭당 주변에 피를 뿌린 적이 있었다. 해방 후에도 기우제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쾌일산에 올라가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지냈다. 쾌일산은 해가 걸려 있다는 뜻의 쾌일산(掛日山)이다.

단월면 산음1리 산제사

윤재정의 5대조인 윤행귀가 김포에 살다가 산음리로 들어왔는데, 가축을 먹여도 산짐승들이 전부 가져가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여서 산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한다. 이 제사가 산음1리의 산제로 확대되었다. 옛날에는 산음리 전체가 한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산제 지내던 곳에는 제단과 함께 서너 아름 되는 큰 소나무를 당나무로 모셨다. 그 형상이 장군이 말을 타고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산불이 나서 타는 바람에 나무를 바꾸었다. 그러나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다른 ‘젯버덩’으로 옮겼고, 그곳도 자리가 좋지 않아서 지금의 세 번째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청운면 여물리 성황제

여물리 성황제는 여성황을 모시는 제사이다. 이웃마을 용두리 성황을 남서낭이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당집의 규모로 봐서 여물리 성황제는 마을보다 큰 단위의 제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당집 안에 모셔진 위패에는 “여선성황지신위”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

데, '여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女)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실시되며, 예전부터 택일하지 않고 날을 고정해서 행하고 있다. 용두리에 '신수'를 보는 사람(지관)이 있는데 매년 제관한 사람, 음식 만들 집 두 곳을 뽑아달라고 간단한 선물을 들고 가서 부탁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집, 즉 도가와 제관으로 선정



도가(都家) 집 대문에 인줄을 매단 모습

된 집은 창호지를 끈은 인줄을 매단다. 성황당에도 인줄을 매단다. 음식은 성황당 앞에서 준비한다. 인줄은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태운다.

제물로는 돼지 부위 중 돼지머리와 족발, 간, 불알(알과 신을 분리), 꼬리, 콩팥 2개, 살(갈비살), 지라만 올라간다. 이때 돼지머리와 족발만 제사 지내기 전에 삶고, 나머지는 생채로 올려 놓는다. 이외에 쌀 3말 3되 3홉으로 만든 떡(소금을 넣지 않는다), 삼색과일, 포 1개이다. 제사가 끝나면 당집에서 내려와 마을 앞 장승백이 앞에서 고시래를 한다. 고시래로 3번 음식을 던지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장승백이에서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음복을 하고 제물에 썼던 음식을 먹으며 '대동지추' 또는 '대동계추'를 한다. 이 말은 조선 후기에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대동세를 걷는 추봉(秋奉) 행사가 있던 것에서 비롯된 듯하다.

청운면 다대리 서낭제

과거 동네에 서낭이 있어서 정월 초순 밤 12시 이전에 서낭제를 지냈다. 서낭나무는 참나무로 마을쪽 초입에 있었는데 약 30년 전에 없어졌다. 당시 서낭제 지낼 때는 무당이나 박수도 왔다.

청운면 용두리 서낭당 고사

예전에는 용두리라 부르기도는 용머리라 불렀다. 음력 정월 초닷새 이내에 날을 잡아 지

내며, 지관에게 가서 날을 받아온다. 제사는 새벽에 지내므로, 전날 아침부터 돼지를 잡는다.

서낭당 고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제원(祭員)' 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을 뽑는다. 그 중 한 명은 '도가' 라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다른 두 사람은 함께 제사를 올리는데, 그 두 사람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다. 전날 아침에 왼새끼를 꼬고 창호지를 꿰은 금줄을 제원의 집과 서낭당에 친다.

제물은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푹 삶아서 올린다. 돼지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일색으로 올려야 한다. 일 년 중의 정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백설기떡과 삼색실과를 올린다. 백설기는 쌀 한 말 정도를 하고, 삼색실과는 사과, 배, 대추, 밤을 올린다. 제주는 쌀로 탁주를 담그는데, 제 지내기 전날 아침 당집에 있는 구덩이에 파묻으면 다음날 새벽에는 술이 익는다.

4. 불교의례



4월 초파일 제등행렬

양평의 대표적인 절로 상원사, 용문사, 사나사가 있다. 절에서 행하는 4대 의례행사는 음력 2월 15일(부처님 열반일), 4월 8일(초파일), 7월 15일(우란분제 및 모든 조상에 대한 천도제), 12월 8일(부처님 성도일, 성도제) 등을 꼽는다. 우란분제 대신 2월 8일(부처님 출가일)을 치기도 한다. 어느 때나 신도들은 조상에 대한 영가천도를 한다. 특히 용문사에서는 부처님

열반일인 음력 2월 15일에 은행나무 고사도 지낸다.

5. 군·현 의례

용문산 은행나무제와 산신제

양평의 상징인 용문산과 그곳에서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은행나무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높은 관심은 봄과 가을 각기 두 차례의 의식행사에서 잘 드러난다. 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일에 용문사에서 행하는 은행나무제와 10월 16일에 양평문화원 용문분원에서 주관하는 영목제(靈木祭)는 은행나무를 위한 유림제사이다. 4월 18일 용문면 신점1리 주민들이 용문산 입구



용문산 산령제

에서 행하는 산신제와 9월 20일에 백운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용문산 산령제는 용문산 또는 산신을 위하는 행사이다.

지제면 봉미산 성황제

지제면 지평리는 과거 지평현 시절에 읍치로서 관아가 있었으며, 아전 등 관리들과 읍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현 단위 성황제가 행해지던 곳이다. 일제 때에도 면장을 낸 온양 방씨 주도로 행사가 지속되었다고 하며, 1993년경부터 양평문화원 지제분원에서 성황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관해 오고 있다. 이곳 성황제를 진행하는 제관은 지금은 유교식 제례를 따라 초헌관·아헌관·종헌관·대축·집사 약간 등 5명 이상을 선출하나 원래는 상유사·중유사·하유사 등을 생기복덕을 보아 뽑았다고 한다. 또한 과거 성황제 때는 당일 자정에 봉행한 후 이어 무당이 밤새 굿을 하였고, 주민들은 산에 올라가 기원하고 놀았는데, 사당패들도 와서 줄타기 등 공연을 하였다. 제일도 음력 3월 초순경이었으나 지금은 음력 2월 초순으로 1일에서 3일 사이에서 택일하며 당일 오전 10시경에 시작한다.

양근향교 추계 석전례

9월 21일은 음력으로 8월 초정일(初丁日)로 향교 석전례가 있는 날이다. 양평은 원래 양근군과 지평현의 두 고을로, 1908년 10월 14일에 하나의 군으로 합해졌으나 향교는 합쳐지지 않고 내려와 현재는 양평 서부 7개 면의 유림은 양근향교에, 동부 5개 면의 유림은 지평향교에 각각 나누어 관여한다.

운계서원 추향제사

용문면 덕촌리 운계서원에서 지내는 추향(秋享)제사는 음력 8월 21일로 운계서원에서 주벽(主壁)으로 모시는 용문 조욱(趙昱, 1498~1557) 선생의 생신일이다. 원래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춘추 향제로 지내오던 것을 10월 9일 한글날로, 이후 10월 네째주 일요일로 변경했다가 음력 8월 21일로 고정하여 지내게 되었다.

제2절 민속유물과 유적

1. 민속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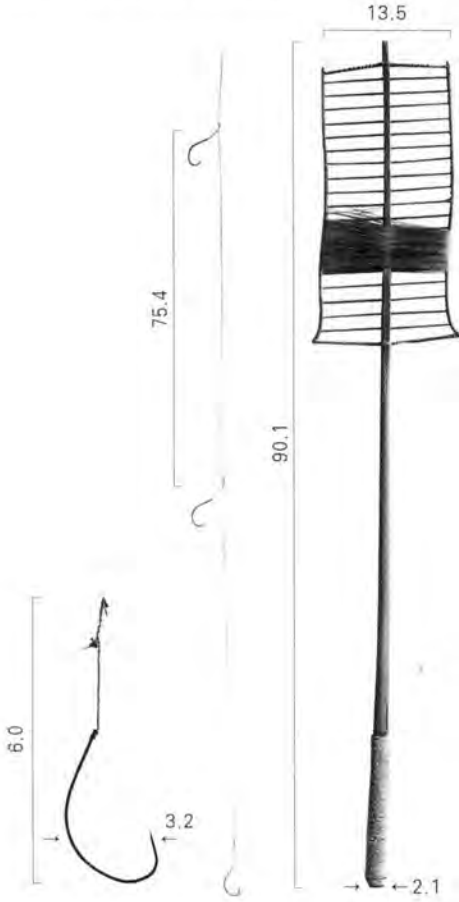
강상면 화양2리 민물고기 낚시어구

강상면 화양리 연양마을에 살고 있는 김건수(남, 1921년생)는 스무 살부터 낚시를 배웠다. 그에게 낚시를 가르쳐준 이는 현재 양평의 비원 매운탕집의 87세 된 주인인데, 그 당시 양평군 내에는 낚시꾼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어구들은 김건수 씨가 쓰던 것들이다. 주낙, 뜰채, 사슬낙, 쓰레, 잡어(雜魚) 그물, 못 등의 도구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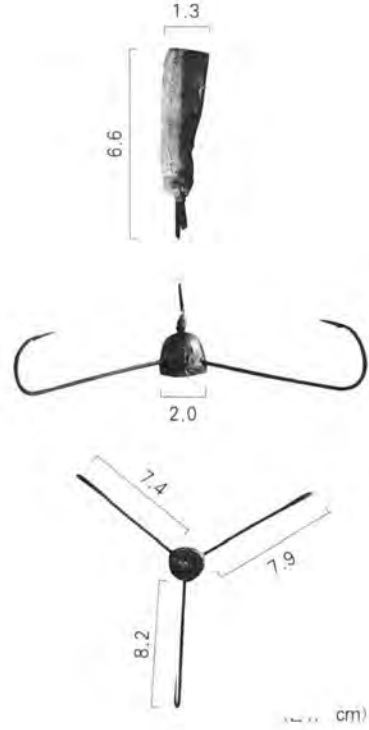
사슬낙

얼레에 줄이 감겼고, 그 줄 끝에 낚시 세 개가 사슬처럼 줄줄이 매달려서 '사슬낙' 이라고 하며 고기를 낚아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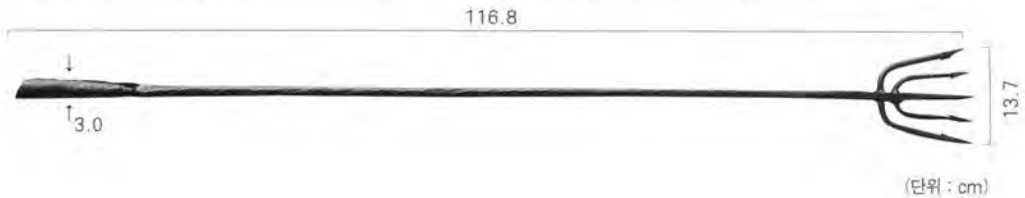
삼봉

얼레는 몸·살·섞으로 이루어졌는데, 손잡이인 몸의 위에 황대나무의 대오리 16개를 줄줄이 박았다. 이를 '살' 이라고 하며, '살' 을 고정시키려고 그 양쪽에 이대를 끼웠는데 이를 '섞대' 라고 한다. 여기에 100m 정도 줄이 감겨 있고 그 끝에 삼봉낚시가 묶여 있다. 주로 겨울에 잉어를 낚을 때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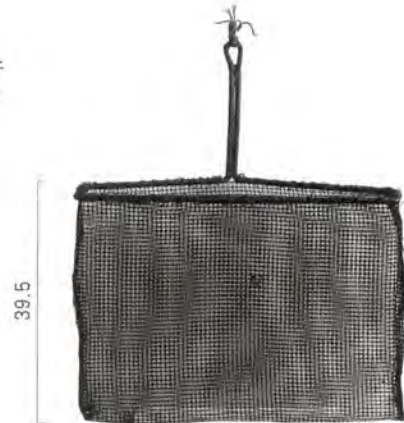
못

'무시' 라고도 하는데, 다섯 가닥의 작살 날이다. 이것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못질' 이라고 한다.



뜯체

강바닥을 긁으며 조개를 떠내는 체라는 말이다. 물 흐름을 거스르며 배로 잡거나 걸어다니며 강바닥을 긁어 민물조개를 잡는다.



(단위 : cm)

단월면 산음1리 대우종댕이

김종렬(남·1934년생)이 만들어 쓰던 것이다. '대우종댕이'는 '대우' 때 종자를 담은 '댕이'라는 말이다. 『농가월령가』음 6월조에,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비여 내고 / 늦인콩, 팥, 조, 기장을 뷘기 전 대우 드려"의 '대우'가 바로 그것이다. 생장기간을 맞추려고 겨울작물인 보리·밀·귀리를 베어내기 전에 여름작물인 메주콩·팥·조·기장 따위를 사이짓기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우종댕이'는 그럴 때 씨앗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이다. 짚 줄로 날을 세우고 짚으로 걸어 만들었다.



(단위 : cm)

2. 민속유적

강하면 성덕리 고창굿 관련 유적

강하면 성덕리는 4개 리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에 고창굿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 먼저 고창굿의 중심이 되는 국수당은 대곡(성덕3리)에, 도당 할아버지는 덕촌(성덕4리)에, 도당 할머니는 성촌(성덕1리)에, 삼선당(첩당)은 덕촌(성덕4리)에, 장승은 아주(성덕2리)에 있다. 국수당은 돌로 쌓은 위로 짙을 씌운 형태이며, 할아버지당은 높이 7.5m, 둘레 1.5m이고 도나무(고유번호 5-129)로 지정된 말채나무로 수령은 약 500년이다. 할머니당은 원래의 할머니당나무가 약 50년 전 고사하자 주민들이 밤나무를 캐다 심었는데, 그 옆에서 느티나무가 자라자 밤나무는 심은 지 5년 정도 지나 베어버리고 새롭게 당으로 모신 것이다. 첩당은 원래 밤나무였는데 역시 50여 년 전 죽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나무를 새로 심어서 첩당으로 모시고 있다.

양서면 국수1리 정자동 산제당집

산제는 산을 위하는 것으로 동네가 생긴 이래로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정자동에는 산제를 지내던 당집이 있다. 조라술, 즉 제주는 산제일 이틀 전 저녁에 새로 지은 밥을 누룩을 섞은 물과 같이 항아리에 담아 국수산 당집에 올라가 당집 안 지정된 장소에다 묻는다. 제물은 제사일을 받아놓고 장을 보아 마련한다. 제사가 끝나면 '봉송'을 써서 당집지붕 오른쪽 구석에 올려놓는다. 제를 마치고 하산하면서 마을 입구 큰 오리나무(소위 귀산나무)가 서 있는 곳과 (과거 큰길이었던 곳의) 마을 입구 두 곳에 쇠머리, 북어, 떡, 과일을 조금씩 놓고 절을 한 다음 역시 '봉송'을 써서 나무에 올려놓는다.

양서면 대심1리 서낭과 장승

서낭은 한여울 마을에 두 곳이 있었다. 지나갈 때 돈을 놓고 가고, 침을 뱉거나 돌을 엮고 가고 했다고 한다. 지금 흥정단 있는 곳에서 큰 길가로 넘어가는 고개에 하나가 있었고, 한여울에서 상심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또 하나가 있었다. 장승은 마을에서 30m쯤 밖으로 나간 곳에 오른쪽으로 두 개가 있었다고 한다.

양서면 신원리 서낭당터

신원1리 샘골에서 부용산을 넘어 목왕리로 넘어가는 길에 서낭당이 있었다. 이 길은 신원리

에서 양수리장을 갈 때 이용하는 길인데, 강가로 큰길이 나기 전에는 이 길이 큰길이었다. 서낭당 수종은 도토리나무였는데, 지나갈 때 침을 뱉고 다니고, 각 집에서 고사를 지낸 후에는 서낭나무에 무언가를 매놓았다고 한다. 산을 위해서는 집에서 그곳에 가서 직접 고사를 올리기도 했지만, 집에서 산을 향해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다. 서낭당 가는 길이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지금은 일부러 찾는 주민들도 없는 것 같다.

서종면 노문리 우물봉 산치성터

음력 8월 초하룻날 노문리 주민 전체가 산치성을 드린다. 노문리가 서종면과 가평군 설악면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같이 산치성을 지냈으나 갈라진 이후에는 각기 따로 지내고 있다. 우물봉에서 밤 1시경에 제사를 지내며, 제사 전에 제관·축관·당주를 뽑는다.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장승과 솟대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 장승과 솟대

지제면 망미2리 안섬부리에서는 장승제를 지내고 이어 척사대회를 갖는다. 장승은 5년 전에 세운 것으로, 내년에 다시 만들어 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두 마을 입구에 각각 천하장군과 지하장군 1기씩을 솟대와 함께 세웠던 것인데, 한국전쟁 때 중공군을 소탕하기 위해 미군들이 불을 놓아 집들과 함께 모두 불탔다고 한다. 1960년부터 다시 장승제를 지냈는데 이때 지금의 장소로 모아 세웠다고 한다. 장승은 소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솟대는 낙엽송인 노가지나무로 만들었다. 장승 옆에는 솟대가 서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의식은 없었다.

지제면 일신리 장승과 마을숲

일신리 장승제는 현지에서는 '숲제'라고 부른다. 일신리는 마을입구에 '수평'을 해놓았다. 이전에는 매년 제를 올렸으나 현재는 격년으로 하고 있다. 숲제 일주일 전에, 또는 늦어도 3일 전에 장승과 숲 주위에 금줄을 친다.

장승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2기 1쌍으로 마을 주민 가운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매년 깎아서 숲제 당일 새벽에 옛것

과 나란히 세워놓는다. 재료는 한솔로 수평에 있는 나무 가운데 택한다. 장승 옆에 세워둔 장대 위의 새는 '기러기'라고 부른다. 주로 소나무 뿌리로 만들고 잡목으로도 만든다. 기러기는 한 해 걸러 만든다.

장승 2기는 원래 마을입구인 현 천하대장군 자리에 같이 세웠던 것이나 건너편에 큰길이나 면서 지하여장군을 그곳 마을 입구로 옮겨 세워 지금은 양쪽 길 입구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제물도 똑같이 두 뭇을 준비하지만 기러기 뭇은 따로 없다.



지제면 일신리 못저울 마을입구의 숲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 장승

용문면 덕촌리 운계마을의 동제는 길제사 또는 구천제사라고 한다. 음력 정월 3일이 제일(祭日)로 2일 밤부터 진행된다. 제의 장소는 장승거리로 예전에 이곳에 어른 다섯 발 굽기의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앞에 장승이 세워져 있어서 느티나무와 장승을 바라보고 동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장승은 원래 참나무로 만드는 것으로, 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아랫 토막으로는 천하대장군을 만들었고 윗토막으로는 지하여장군을 만들었다. 참나무는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매년 만들었으며 새로 만들면 이전 것은 즉시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장승을 만들었다. 느티나무와 장승은 다 사라졌고 최근에 아카시아 나무로 장승을 새로 만들었는데 예전의 위치와 다르다.

옥천면 신복2리 복골 산제사터

복골마을 절골은 산제사를 지내던 터이다. 원래 산신제터가 있던 곳은 산봉우리 바로 아래의 소나무 밑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올라가기가 힘이 들었다. 그래서 3년 전에 같은 산줄기 아래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단월면 산음2리 산제당터

산음리 산제는 음력 10월 초사흘날 밤 1시에 지낸다. 초이튿날 음식을 장만한다. 산제당이라고 하여 특별한 건물은 없고 바위로 지붕처럼 가려진 데를 그렇게 부른다. 제물로는 떡, 북어, 돼지, 사과 등 과일과 술이 올라간다. 돼지는 꼭 검은색의 수돼지만 올리는데 원래는 통째로 올렸으나 운반하기가 무거워 머리와 몸통 반만 올리며 익히지 않는다. 제관으로는 제관 1명, 축관 1명, 음식 장만하는 도가 1명과 제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남자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있다가 제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술을 같이 마시고 날이 밝으면 운동대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웃 고가소 마을에서는 원래 산음1리의 산제에 같이 참여하였는데 지금은 따로 지낸다.

청운면 여물리 성황당

청운면 여물리 성황제시는 여성황을 모시는 제사라고 한다. 지제면의 지평리 성황제와는 달리 마을단위 제사로 지내는 것이지만 당집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미루어 이 역시 그 근원을 따지면 마을보다 큰 단위의 제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웃마을 용두리 성황을 남서낭이라고 한 것도 현재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그 흔적일 것이다. 그 규모도 예전 성황사 당집은 현재 남아 있는 주춧돌로 보았을 때 총 세 칸인데, 한 칸은 마루이고, 한 칸은 제단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마루에 올라가서 제단에 음식을 놓고 지냈다고 한다. 지붕은 기와였으며 당집 안에는 말의 형상 혹은 여러 가지 짐승을 상징하는 무쇠로 만든 손가락 두 마디 크기 만한 작은 조형물이 있었고 말을 탄 장군 형상을 한 돌로 된 조각 4개가 위패 옆에 있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다시 집을 지었을 때는 전부 송판으로 둘러쌓았고 지붕은 이엉으로 얹었다고 한다. 현재의 당집은 두 칸 집으로 건물 옆면을 앞면으로 사용하여 한 칸만 시멘트벽으로 막아 측벽 선반에 위패를 놓고 맞은 편 벽에 문을 내어 나머지 한 칸과 연결하였는데, 이 칸은 우천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 위패는 “여선성황지신위”라고 한글로 썼다.

청운면 여물리 마방터

여물리 입구에 마방이 한 채 있었고 마을 안에는 여러 채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만 해도 소를 몰고 다니는 채꾼들이 있었다. 채꾼은 홍천장(1·6)→용두장(2·7)→양평장·횡성장(3·8)→춘천→여주→이천→서울의 경로로 이동하였는데, 홍천에서 오후 2~3시에 출발하여 여물리 마방에서 자고 다음날 여물리와 용두리 사이를 흐르는 흑천변 우시장터로 출장하였다.

청운면 용두리 서낭당집

서낭당집은 원래 초가였는데, 1996년에 현재의 벽돌·기와집으로 고쳤다. 초가집일 때는 3년에 한 번 정도 짚으로 이엉을 엮어 물이 새지 않게 보수했다. 10월경에 하는데, 서낭님께는 북어포와 막걸리를 올리고 간단히 고사를 지낸 뒤에 보수작업에 들어간다.

용두1리와 3리 주민이 함께 서낭당고사를 지낸다. 음력 정월 초닷새 이내에 날을 잡아 지내며, 새벽에 지내므로 전날 아침부터 돼지를 잡는다. 그 밖에 백설기와 삼색실과를 올린다. 제주는 쌀로 담근 탁주인데, 제 지내기 전날 아침 당집에 있는 구덩이에 파묻으면 다음날 새벽에는 술이 익는다.

당집 전면 벽에는 가로로 맨 줄에 접은 한지가 걸려 있고, 그 앞으로는 흰실에 북어를 묶어서 걸어놓았다. 원래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고기와 떡 몇 점, 북어 한 마리를 당집에 남기고 간다고 한다. 걸어놓은 한지는 1년 동안 두었다가 다음 당제를 지낼 때 태워서 없앤다. 북어와 고기, 떡 등은 며칠 사이에 없어진다.

서낭당 안의 당집 벽과 마찬가지로 붉은 벽돌로 쌓아올리고 석판을 놓은 제단에는 “城隍之神”이라고 적힌 검은색 비석이 있다. 당집을 새로 지으면서 비석에 글을 새겼는데, 원래는 나무판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낭당 출입문 위에는 “龍頭一·三里城隍堂”이라고 적힌 편액이 걸려 있다. 이 역시 당집을 새로 고치면서 단 것인데, 그 전에는 나무판에 그냥 “城隍堂”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당집이 초가집이던 1996년 당시의 위패와 현관은 새로 당집을 지으면서 태워 없앴다.

새로 만든 당집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제주를 파문을 자리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비닐 포대에 모래를 담아서 제단 우측에 놓아두었다가 거기에 술을 묻는다고 한다. 원래 술을 묻었던 자리도 현재 비닐 포대가 놓여 있는 곳이다.

여 백

제4장 양평의 지명유래

제1절 양평군 이전

제2절 양평군 이후



여 백

제1절 양평군 이전

양평군 내의 지명은 산악지대, 하천지대, 평원지대 등 세 가지 유형의 명칭으로 분류된다. 고대에는 순수한 우리말로 불리다가 한자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명이 한자화되었다. 지금은 다시 우리말 지명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속칭과 개칭의 지명유래가 많다.

1. 양근

양근이라는 지명은 고구려시대에 생겨난 지명이다. 버드나무 뿌리라는 양근(楊根)의 어원으로 짐작컨대, 남·북한강을 옆으로 끼고 둘러 있으면서 아득한 상고시대부터 강변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을 쌓고 버드나무(楊)를 심고 가꾸어 경관을 살리고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지명은 현재의 갈산이나 양평교 부근의 양근리만을 두고 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냇가 어디에나 버드나무(楊)가 자라 그 뿌리(根) 밑동이 얽혀진 채로 뻗어나 기초가 튼튼한 고장'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 즉 양제근기(楊堤根基)의 근원을 암시하고 있다.

항양(恒陽)은 양근이라 불리던 시대에 같이 불리던 지명이다. 화창한 태양 빛이 변함없이 항상 비취든다는 의미로 양지쪽의 만물은 계속 번창하므로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보려 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빈양(濱陽)은 신라시대에 지어진 지명으로 물가에 인접한 양지(陽地)라는 의미다. 오늘날 이야 주거지(집터)의 위치를 그다지 가리지는 않으나,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풍수 지리설의 조건을 따르려는 습속이 지배적이었다.

영화(永化)는 고려시대의 양근군 지명으로 장구한 시간을 두고 덕(德)을 닦아가며 번창한 생활을 지속한다는 속뜻이 있다. 영생화육(永生化育)을 함축하는 뜻으로 불교적인 면도 담겨져 있으므로 순박한 인심, 먼 미래까지의 영구함이 내포되어 있다.

익화(益和)도 고려시대에 일컬었던 지명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화목하기를 더

육 유익하게 하는 고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평화와 번영, 일익화창(日益和昌)을 바라는 선인들의 속마음이 들어 있다.

2. 지 평

고구려시대의 지현(砥峴)이나 신라시대의 지평(砥平), 고려시대의 지제(砥堤)라는 지명은 이 고장 지산(砥山)에서 숫돌이 채석되므로 붙여진 것들이다. 후대로 오면서 평지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아 들관의 지형을 가꾸왔는데, 이러한 선인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지역 명칭이라 볼 수 있다.

제2절 양평군 이후

1. 양평읍

군내 중앙에 위치한 양평읍은 양근리(楊根里)를 비롯하여 12개 리로 형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읍내면 양근리, 오빈리(梧濱里) 등 4개 리와 동종면(東終面) 도곡리(道谷里) 등 4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부(府)·군(府)·면(面) 폐합에 따라 위의 2개 면을 합병하여 갈산면(葛山面)이라 하고, 1938년에는 양평면으로 개칭했다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해 양평읍으로 승격시켰다. 양평읍은 북쪽으로 옥천면, 서쪽으로 양서면, 남쪽으로 개군면·강상면, 동쪽으로 용문면과 접해 있다.

양근리(楊根里, 칩미, 갈산, 양근, 읍내, 양평읍내)

원래 양근군 읍내면 중심지역으로 칩미 또는 갈산이라 하였다. 1747년에 양근군 관아가 읍



양평읍 양근리 장사바위

거와 양근읍내가 되어 양근읍내, 읍내, 양근이라 하다가 1908년에 양평군이 됨으로써 양평읍 내라고 했다. 그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산(갈산) 관문거리 동남쪽에 있는 산. 험이 많아 양근리 남쪽 강변의 독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갈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객사터(客舍-) 양근리에 있는 양근군의 객사터로 양근대교 위 옛나루터 위쪽.

관문거리(官門-) 현 양일종합고등학교 아랫마을에 옛 관아가 있었다.

나루터 양평대교가 있는 터로 서울과 강원·충청지방 간의 수송물자를 나르는 배가 쉬던 곳이며 예전에는 객줏집도 있고 양평읍과 강상면 나룻배가 오가던 자리.

삼거리 관문거리 남쪽의 마을로 시내 중앙에 있는 여주, 홍천, 서울로 갈라지는 곳.

쇠전거리 장터 서쪽의 소를 파는 곳으로 창대2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창대1리로 이전.

장사바위 갈산 너머 강변에 있는 큰 바위.

장터 오일장이 개설되었던 사거리 동쪽의 마을로 오늘날에는 시장의 가게가 있다.

참샘물 물맛이 좋은 샘물이 나오는 골안마을.

공흥리(公興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공산리(公山里)와 흥천리(興天里)를 합병시켰고, 두 지역 첫 글자를 따서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



양평읍 대흥리 사모바위

공산이 북바위 북쪽의 마을로 지형이 한자 '공(公)' 자처럼 생겨 지어진 이름.
 북바위 이 마을 북쪽에 큰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인데, 지금은 바위는 없어졌다.
 수청거리(水淸-) 공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주막이 있던 거리. 앞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흥천골(興天-) 흥천사가 있는 마을.
 흥천사 수청거리 북쪽에 있던 절로 현재는 없다.

대흥리(大興里)

원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신흥리, 천변리, 용산리, 대곡리를 합쳐 네 지역 중 대곡리와 신흥리 두 곳의 의미가 깊은 두
 글자를 합성한 마을 이름이다.

개울개 황골의 서쪽 개울 마을.

난간터 일명 '남간터' 라고도 하며, 남씨가 많이 살았다는 유래가 있다.

너박다위 난간터 서북쪽 산 위에 넓은 바위가 있다 한다.

마산(馬山) 대흥리 소재의 산으로 말 모양으로 보인다.

불당골(佛堂-) 새골 북쪽의 마을로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사모바위(沙帽-) 대흥리에 있는 모자 모양의 바위.

새골 백안리 장골과 대흥리 황골 사이의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
 약정나무골 대흥리 소재의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있었다 한다.
 영산재(靈山-) 대흥리 소재의 작은 산으로 산신당이 있었다.
 지네바위 지네가 많았다는 바위.
 태봉 새골 뒤의 봉우리로 왕자의 태를 묻어 영릉이라고도 한다.
 황골(안말, 대곡) 마을 뒤쪽 용문산 방향으로 난 2km가 넘는 넓고 깊고 긴 골짜기로 일명 '피
 란골' 이라고 부른다.

덕평리(德坪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언덕말, 잼말, 평리, 돌다리, 요골' 을 합쳐 그 중에 언덕말의 '덕' 자와 평리의 '평' 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돌다리 잼말 서쪽이며 상평과 하평 중간마을로 돌다리가 놓여 있다.

벗말 돌다리 서남쪽 넓은 마을.

옷골 벗말 동남쪽의 마을.

잼말[上坪] 덕평리에서 제일 큰 마을로 위쪽에 위치. 일명 '잼말' 로도 불린다.

한들 벗말 앞의 넓은 들.

도곡리(道谷里, 도지울, 도주울)

원래 양근군 동중면에 속하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사리, 탑곡리, 간마리, 능산리, 신대리, 성산리의 각 일부를 합쳐 도곡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가마을 밤나무골 북쪽 마을로 일설에 말을 먹이던 곳이라고도 전해진다.

까치골 도곡리에 있는 골짜기로 까치가 많아 이런 이름이 유래했다.

갈미 촌이 많아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유래가 있다.

능말 죽저울 밑의 앞산에 한양 조씨(조공근) 사당이 있으므로 생긴 마을. 능이 있다는 설도 있다.

둔주울(둔지울) 밤나무골 서쪽 마을로 옛날 병마(兵馬)가 머물렀던 데서 연유한 이름.



양평읍 도곡리 탑골

도독골(도장골) 도독이 숨어 있었다는 골짜기.

도지울 도리(道理)가 밝은 이가 살아서 생긴 이름.

매봉재 도곡리의 높은 산에 매가 있었다 한다.

밤나무골 도주울 서쪽 마을로 밤이 많았다 함. 한자로 울목동(栗木洞)이라 쓴다.

방아다리 도곡리의 들판 이름으로 전염병이 나돌 때 이곳에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도역을 하던 민간 속신설(俗信說)에서 유래.

병막골 병마가 머물렀다고 한다.

죽사(竹寺) 도주울 동남쪽 마을로 옛날 이 마을 앞에 대나무로 지은 큰 절이 있어 생긴 이름.

일명 '죽질' '죽지울' 로도 불린다.

진골 탑골 서북쪽의 골짜기 마을로 긴 골짜기에서 '긴' 이 '진' 으로 방음(方音) 구개음화된 것임.

탑골 죽저울 동남쪽 마을. 1500년경 큰 절이 있었고 탑이 여러 개 있어 불린 이름.

백안리(白安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동리, 장안리, 공산리 일부와 동중면 간마리, 신대리의 각 일부를 합병하여 백동과 장안의

두 지역 글자에서 한 자씩 합쳐 만든 이름으로 갈산면(양평군)에 편입되었다.

몽둥바위산 몽둥바위가 있는 산.

붉은언덕고개 장안 뒤의 붉은 흙이 있는 고개.

살구재 살구나무가 많이 있던 언덕.

새수골 양짓말 북쪽 마을로 백운봉 밑에 제일 높은 곳. 옛날 동래 정씨가 이곳에 처음 정착하여 새로운 곳에서 살 만하다(新宿) 하여 지은 이름.

서낭당고개 장안에서 용문면 연수리로 넘어가는 서낭당이 있었다는 고개.

신골 백안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맑은 물이 마을 북편에 흐름. 흰골(白洞)에서 속음화로 변한 이름.

풀무간 신골 남쪽의 대장간이 있던 마을.

학교말길 양평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산.

봉성리(鳳城里)

원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곡리, 송곡리, 성산리를 합쳐 봉곡과 성산의 두 지역 이름을 합성시켜 봉성리라 하였다. 산림이 울창하므로 각종 새들이 깃들어 살며, 임진왜란 당시엔 마을 앞뒷산에 성까지 쌓았다고 한다.

가는골 비좁은 마을의 골짜기.

말무덤잔등 등성이에 커다란 무덤이 있는데 원덕리 용이부리소에서 나온 용마가 주인을 찾다가 죽어 묻혔다는 곳.

쇠이랑 봉성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일명 '봉곡(鳳谷)' 이라고도 불린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있다는 고장.

성미 쇠리골 서북쪽 마을로 성을 쌓아 주변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쇠리골 쇠이랑 서쪽의 마을로 일명 '송곡(松谷)' 이라 함은 소나무가 많은 골짜기였기 때문에 붙은 지명 같다.

애기능 큰산수말림에 있는 어느 왕자의 무덤.



양평읍 신애리 신애저수지

신애리(新愛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애곡리, 신만리, 석교리 일부를 합쳤다. 신만과 애곡의 두 지명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다. 이 지역의 지명에 관한 또 다른 일설로 새마니(新摩尼, 새로이 불교를 전파시킴)라는 말에 아사란 절 이름이 애골로 변이되어 합쳐진 것이라고도 하나 신빙성은 희박하다.

새만이 신애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이 지명은 신애리의 옛말이며, 마을 뒤 두리봉에 새만니 [新晩尼] 스님이 수월암을 지어 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쉬지고개 애골에서 옥천면 용천리 사내골로 넘어가는 험터가 있는 고개.

신애저수지 새만이 남쪽의 저수지로, 1939년에 만들었다.

애골 새만이 서북쪽 마을. 일명 '애곡(愛谷)' 이라 함. 아야사(我也寺) 절에서 아야골 애골로 변이된 듯하다.

오빈리(梧濱里)

본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오빈역이 설치되어 오빈 또는 역말이라 하였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고읍면 덕곡리, 용암리, 응암리, 사탄리 일부를 합쳐 오빈리라 하여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양평읍 원덕리 삼형제바위

덕구실나루터 덕구실에서 강상면 병산리 작개로 건너는 남한강의 나루터(옛 오빈진). 떠드랑산 오빈리에 있는 산. 예전의 장마로 떠내려온 산이라 전해진다. 일명 '부래산(浮來山)'으로 쓰기도 한다.

용배미 덕바위 북쪽 마을로 동네 북관에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

원덕리(元德里)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암리, 원당리, 성산리 일부를 합쳐 원당과 덕암의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시킨 마을 명칭이다. 구진터 옛날 진을 쳤던 들판.

덕암 원덕리의 서쪽에 있는 으뜸 마을로 속칭 '바위' 또는 '덕바위'. 이 마을 뒷산에 마을을 보호한다는 바위(바위)가 있어 생긴 명칭 같다.

마루들 지대가 높은 들. 원덕리에 있는 넓은 들. 지금은 여기서 특수농작물을 재배한다.

삼형제바위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는 곳.

용이부리 덩바위 서쪽의 용처럼 생긴 산자락.

용이부리소 용이부리 아래로 흐르는 흙천의 깊은 소. 옛날에 용마(龍馬)가 나와 주인을 찾다가 본성리 말무덤 잔등에 떨어져 죽었다고 함.

원당 논두렁이 많아 '두렁맹이' 라는 속칭이 있고, 일 년 내 맑은 물이 흐르는 살기 좋은 마을이란 뜻이 있다.

창대리(倉垞里)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조선시대 전창(前倉)이 있었으므로 '창터' 라고도 한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산리, 신대리, 능산리, 간마리의 일부 지역을 합쳐 창대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가을 양짓말 동쪽의 마을로 일명 '갈월(葛月)' 의 속음화. 이곳에 갈월암이 지금도 있다. 기산(岐山) 창터 서북쪽 기산 밑의 마을로 조선시대 동종면사무소가 있었고 또 다른 지명으로 '동중' 또는 '동중' 이라고도 한다.

꽃동산 마을 뒷산으로 진달래가 많이 피는 창대리 소재의 산.

시저골 청해 이씨가 뒷산 조상묘에 시제(時祭)를 지내므로 변음(變音)되어 생긴 마을 이름. 일명 '시적골' 이라 하기도 한다.

우시장계 양근리 우시장이 이전되어 생긴 마을.

원수골 창대리에 있는 더운 물이 나왔던 골짜기로 온수(溫水)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마을 동초등학교 부근에 새로 생긴 마을.

회현리(會賢里, 삼현바위, 삼현암, 삼현편, 회암, 회현)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으로서 고려 말에 삼은이라 일컫는 목은(牧隱)·야은(冶隱)·포은(圃隱) 세 사람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모였던 고을이란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가소리, 백곡리, 진변리, 축동리, 창대리 일부를 합쳐 회현리라 하며 갈산면에 편성되었다.

가소(可巢) 축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문화 유씨 조상이 살기 시작하면서 가히 살 만하다 하여 지어진 명칭.

돌고개 마을을 넘는 고개에 돌이 많으므로 붙여진 이름.

축동(築洞) 삼현바위 서쪽 마을로 아직도 저수지 흔적이 있으며, 일명 '방축골' 로도 일컬어진다. 조선시대에 저수지를 만든 곳.

허병바위 벼밭 북쪽 마을로 낮은 지대에 바위가 많다는 데서 유래한다.



양평읍 회현리 축동

삼현암 세 현인이 풍류를 즐기던 넓은 바위.
 해나무소 삼현암 아래로 흐르는 흙천의 소.
 새보·돌보 회현리 석장리의 농업용수로 이용하려고 만든 보. 시내에 있다.

2. 강상면

강상면(江上面)은 군내의 서남부, 즉 남한강 좌안에 위치한 면으로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남시면으로 불렸으나,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한 폐합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되었다.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건너 양평과 접한다. 서쪽과 남쪽은 험준한 산지이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양자산(楊子山, 709m)이다. 명승지로는 교평리 봉의정(交坪里 鳳儀亭), 송학리 구곡사(松鶴里 九谷寺)가 있다.

교평리(交坪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번리, 평리, 교암리, 송산리, 내생화리, 지레리의 각 일부를 합쳐서 교암과 평리의 첫 글자를 합성시켜 교평리라 하고 양평군 강상면에 편입시켰다. 예전 강을 건너 양평읍 장을 보고 다

닐 때에는 병산리, 송학리, 신화리, 화양리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곤 하던 곳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속설도 있다.

관둔들(官屯-) 뒤맹이 고래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둔전이 있었다고 한다.

나루개(나루계) 양근 나룻가의 마을로 강상면이 도선 운영. 일명 '진변(津邊)'으로 속음화되었거나 간이화된 명칭. 지금은 탐재와 함께 다리개로 불린다.

뎡이 논물 준비로 웅덩이가 많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

들말 봉의정 북쪽 들판에 있는 가장 넓은 마을. 일명 '평리(坪里)'라 한다.

마금거리 산세가 마을을 둘러싸고 나무장사에 힘써 마른 나뭇가지가 많았던 연유로 생겨난 명칭.

막장거리 들말 서쪽의 마을로 지대가 높아 논갈이가 맨 나중에 끝나는 데서 붙은 이름.

방아다리 디덜방아, 물레방아가 있었던 마을.

봉의정(鳳儀亭) 서라위 북쪽의 마을로 봉의정이 예전에 있었다.

서라위 교평리에서 으뜸인 바위가 많은 마을로 남한강변에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붙어 있으므로 서로 짝지어 서 있는 바위란 말에서 축약된 지명. 한자어로 '교암(交岩)'이라 한다. 조선 시대 영의정을 지낸 윤승훈 공이 한때 지냈던 곳.

읍내나루 탐재에서 양근읍으로 통하는 나루터로 일명 '양근나루'라 한다.

탐재 들말 북쪽의 마을로 탐이 있었음.

효자말 예전에 효자가 많았던 마을.

대석리(大石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감리, 백석리와 여주군 금사면 용담리 일부를 합쳤다. 대감과 백석의 두 마을 글자를 합성시켜 이름을 지었다.

대감골 백석골 북동쪽 마을로 옛날 양근 김씨 시조가 은거하므로 붙은 지명. 한자로 '大監'을 '大甘'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 쓴 것이다.

배사골 본래 '백석(白石)골'이 동음(同音)의 묵음현상에 의해 변이된 이름이다. 흰 돌이 많은 곳이며 대석리에서 으뜸 마을. 또 다른 속설은 이 마을 뒤편에 큰 절이 있었는데 불자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쌀 백 석을 씻어낸 물이 하천으로 흘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강상면 대석리 배사골

중말 상촌과 백석의 중간 마을.

항강개 대감 북동쪽 마을이며, 마을이 남한강가와 인접되어 '한강가에' 어휘가 속음화된 말.

병산리(屏山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으로 백병산에 병풍 같은 바위가 있어 '병산'이란 명칭이 생겼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곡리, 작개리, 지례리, 진변리 일부를 합쳐 붙인 이름이며 강상면에 편입되었다.

갑바고개 지월에서 송학리 송산으로 넘어가는 급경지의 고개로 고개 위 바위가 마치 삿갓 쓴 모양이라는 데서 연유. 일명 '갓바위 고개'라 한다.

느리울 병산 남쪽의 마을로 누런 곡식을 거둬들인 들이라 하여 부르던 '누리'가 속음화되었다. 한자로는 황곡(黃谷)이라 쓴다.

말무데미 한배미 동쪽의 들로 강하면 성덕리 장수고을의 장수가 무술을 익히며 타고 다닌 말이 죽어 묻었다는 연유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일설이 전한다.

밤벌 느리울 서북쪽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다 한다.

병산(屏山) 병산리의 준말로 일명 '벼래'라고도 하는 마을.

살구쟁이 살구나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



강상면 세월리 꽃봉

안장바위 말바위 옆에 있는 바위.

옹주능 지월 서쪽 산으로 조선시대 선조의 막내 딸 정근옹주 능에서 유래함.

작개(作介) '번말' 또는 '밭지울' 로도 불리며, 마을 앞들에서 제각기 농사를 지으며 산다고 하여 '작개' 라 했다 하나 역설이다.

절터골 예전의 절터 흔적이 있어 붙인 이름인데, 여주군의 세종 능의 석물을 이곳에서 채석 하였다고 전한다.

지례 번말의 남쪽 마을로 일명 '지월' 또는 '안지울' 이라 하며 어떤 이는 '터골(基谷)' 로도 부른다.

세월리(洗月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리, 세심리와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일부를 합쳤다. 세심리·월리의 두 지역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며, 이후 강상면 소속 마을이 되었다.

가재울 금사면 상북지역과 강상면 대석리 안골짜기에 있으며 물자수급의 요지(要地)로 무엇이나 다 있다는 의미로 가재(可在)에서 유래한다.

꽃봉 세심 서쪽 산으로 진달래가 많다.

배람뱅이 세월리의 들로 곡식이 잘 되지 않음.

벼루산 세심 북쪽 산으로 높이가 167.8m임.

세심(洗心) 일명 '심벼루' 라고 하며 세월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앞에는 파내탄(波乃灘) 여울이 있다.

장터거리 세심 동쪽 마을로 예전 강벼루에 배를 대고 숙식을 하며 주막에서 물물교환을 하던 곳.

칼산 칼 같은 바위가 있는 세월리의 산.

송학리(松鶴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송산리, 신흥리, 학곡리를 합쳐 송산·학곡의 두 마을 첫 글자를 따서 붙인 명칭이다.

가래복골 하일 서남쪽의 마을로 일명 '가래밭골' 로도 일컫는다.

구절골 옛 절터 또는 절 아흔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하였고 지금도 약수가 나오고 있다.

길마재 신흥에서 강하면 성덕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남중(南中)장을 보려고 소 등에 짐을 싣고 가다가 쉬어 가던 고개였다 한다.

느리울고개 옷초개에서 병산리 느리울로 넘는 고개.

땡땡바위 송학리의 바위로 땡땡 소리가 난다고 한다.

매봉재 길마재 서쪽 산으로 '응봉' 이라고도 한다.

방축골 송산 서북쪽 마을로 예전에 방축이 있었다 한다.

분터골 웅기 흙이 나오던 골짜기. 이곳에서 설화로 영산 신씨 선조묘소를 장사할 때 내광에서 백조가 날아갔다 하여 명당을 잃어 분통해했다는 데서 유래.

송산(松山) 하일 동북쪽 마을로 뒷산에 소나무가 많았다 한다.

탑골 신흥 옆의 마을로 탑이 있었다 한다.

하일 송학리에서 으뜸의 마을로 어느 날 학의 무리가 많이 날아와 서식했다 한다.

신화리(新花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당곡리, 구당곡리, 내생화리, 평리, 교암리의 각 일부가 합쳐졌다. 신당곡·내생화의 두

곳 지명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며, 강상면에 편입되었다.

거침외 산중 동쪽 산.

꽃밭재고개 당골에서 새터로 넘어가는 고개. 진달래꽃이 많은 곳.

내생화(內生花) 이곳은 북만터, 뒷능, 당골, 분터골이 있으며 일명 '안생화' 라고도 한다.

당골 생화 서쪽 지성을 올렸던 당집이 있었다 함.

뒷능 생화의 동북쪽 마을로 영산 신씨의 선조묘가 있어 붙은 지명.

분터골 원래 부퇴(甓退)골이 와전된 명칭. 영산 신씨 묘를 자리잡을 때 유택(幽宅)을 파니 낮
게 바위가 깔려 있어 그 밑을 더 파고 보니 오리 한 쌍이 날아갔다는 민담이 전해진다.

산중(山中) 생화 남쪽 골짜기로 양자산 밑의 산 가운데라서 붙은 지명.

새터(신당곡, 외생화) 생화 바깥쪽의 새로 된 마을, 즉 당골 어귀이며 일명 '신대(新垓)' 라고
도 한다.

여우바위 신화리에 있는 여우 모양의 바위.

웃나무골 당골 서쪽 웃나무가 많았던 마을.

홍복골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살았다는 곳으로 예전 집터만 있다.

화양리(花陽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곡
리, 외생화리, 연양리를 합쳐 외생화·양곡의 두 지명에서 채자(採字)하여 붙인 지명이다.

구터 사람이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흔적조차 없다.

담안 담을 마을 전체에 쌓은 곳이라 하며 담 쌓은 흔적이 남아 있다.

도러소 남한강물이 돌아 흘러 소가 있었다 하나 현재는 한국방송공사 남한강종합연수원이
세워져 있다. 이곳을 반외용추라 하여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동배재 동(董)씨와 배(裵)씨가 살던 곳.

미라우 주변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붙은 지명.

세집골 세 집만 모여 살고 있어 불리는 지명.

오가촌 다섯 집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유래.

절터골 절이 있던 곳으로 자취는 남아 있다.

3. 강하면

강하면(江下面)은 군내의 남서단, 남한강 남쪽에 위치한 면이다. 1747년(영조 23) 양근군 남중면이라 하여 상심리·운포리 등 13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3월 1일 강하면이라 하고 13개 리를 운심리 등 6개 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다. 강하면은 양평군 남측 3개 면, 즉 남시면·남중면 중간에 위치하여 남중면이라 하였으나 후에 군소재지에서 남한강을 건너 강상면과 대면 아래쪽이라는 데서 면 이름이 붙었다. 남·동·서 3면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요 산봉은 양자산(楊子山, 709m), 영자봉(榮子峰, 667m), 백병봉(白併峰, 424m)이다.

동오리(東梧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리, 간촌리, 동문리와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일부를 합쳐 동문과 오리의 두 고장 이름을 글자를 따서 동오리로 하였다. 그리고 강하면에 편입되었다.

간촌(間村) 일명 '셋말'로도 불리고 오리골 북쪽에 위치하여 동문과 왕창리 사이 마을.

동문(東門) 마을 서쪽 두 개 바위가 문설주처럼 서 있어 이렇게 불리며, 동오리에서 으뜸 마을. 세지골 셋말 동북쪽 마을로 조선시대 권세 있는 사람이 살아 생겨난 이름이라고 와전되었다.

일명 '소주골'로 속음화.

오리골 동문 동쪽 마을로, 그 지명이, 오동나무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마을 뒷산 영암 송씨 묘소 자리가 오리형국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전한다.

성덕리(聖德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촌, 성촌, 아주를 합쳐 성촌·덕촌의 두 마을 글자를 따서 성덕리라 하면서 강하면에 편입시켰다.

공기돌바위 마귀할멈이 바위를 치마에 싸가지고 다니다 흘렀다 한다.

대곡 일명 '큰골'이라 하며 화담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한 데서 이름한 곳. 응달말 남쪽 큰 마을.

덕촌 일명 '응달말'로, 남쪽에 있는 마을로 화담 선생이 다녀가신 이후 그의 자인 경덕(敬德)에서 '덕'자를 본떠 지은 지명. 여기서 격년으로 고창제를 지낸다.



강하면 성덕리 성덕저수지

북덕고개 큰골에서 양달말로 넘어가는 고개.

성덕저수지 성촌과 덕촌 앞의 저수지.

성촌(聖村) 일명 '양달말' 로, 성인(화담 선생)이 지나간 고을이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양자산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왕창리(旺倉里)

원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이었으나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촌리, 왕충리, 부로리, 운포리의 각 일부와 광주군 퇴촌면의 영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왕충·창촌의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시켜 왕창리로 개칭하였다.

부르개 왕충 북동쪽 마을로 함·박·지씨 세 성이 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로라 하여 붙은 지명. 와전인 듯하다.

왕충(旺忠) 왕창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조선 초의 류관 선생 묘소와 신도비가 있으며, 그 옆엔 연안 김씨의 세 명신 묘가 있다. 충성이 빛나는 곳이란 의미도 있는 곳.

창데미 왕충 서쪽 마을로 예전에 양곡과 물품저장 사창(社倉)이 있었다. 현재 노인정이 세워져 있다.

운심리(雲沁里)

원래는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강하면 전수리 다루레기 나루

따라 운포리와 상심리의 두 지역 글자를 본떠 운심리라고 만들어 강하면에 편입시켰다.
구름개 상심 서쪽의 강가마을로 홍수가 나면 마을 앞들에 온통 구름모양의 개(진흙)가 낀다
는 데서 유래.

사래갈 나루터 위에 침수가 잘 되는 지역.

상심(上沁, 남상심) 운심리에서 으뜸 마을로 상심이 있다.

섬말 구름개 북쪽, 남한강 섬 안에 있는 마을.

상심나루 나룻배로 양서면 상심리로 건너다니던 곳.

전수리(全壽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의리, 사기막리, 수대리, 상심리, 부로리의 각 일부를 병합시켜 전의·수대 두 곳의 처자를 골라 합성시킨 이름이다.

다루레기 나루(전일나루) 옥천면 아신리 기곡월루로 건너는 전일 북쪽 남한강 나루터.

망두석산(望頭石山) 전수리 안의 산으로 망두석이 있다.

바람넘이고개 높은 백병산을 일컫는 명칭으로 서풍이 불 때는 쉽게 넘는 고개라 하여 붙은 지명.

베틀바위굴 베틀바위 뒤의 광산이 있던 곳.

사기막 배틀바위 북쪽 마을로 일명 '사호(沙湖)'라 하고, 예전에 도자기를 만든 흔적과 절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세우자리 '전의(全義)의 옛 이름. 배를 세워두고 잠을 자며 왕래하던 곳.

수대(壽臺) 전수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장수 마을이었으며, 한국전쟁시 마을 뒷산의 삼형제 바위가 파손된 후로는 장수하는 이가 없다 한다.

쉬골논 전수리의 들로 쉬(수령)가 많다.

전의(全義) 사기막 북동쪽 마을로, 예전에 살던 송씨가 온후한 성품과 바른 행동이 남들에게 모범이었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 마을 명칭을 붙였다.

찬샘골 수대 동쪽 마을로 찬 샘물이 나오고 있음.

치마바위(절바위) 치마 모양의 바위.

항금리(恒金里, 황금골, 황금동, 항금)

원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금이 많이 채금되어 황금이라 사용하던 한자를 일부러 '항금(恒金)'으로 고쳐 불러 금 매장을 감추고자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도 금 광업이 계속되었고 오늘날에도 냇가에서 사금을 채취한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문리 일부를 합쳐 항금리로 하였다. 격년제로 동화제를 지낸다.

막티골 더 이상 가지 못할 막바지 골짜기의 지명.

송구벌 항금 북서쪽 마을로 예전에 오래된 엄나무가 있어 붙은 지명. 또는 송씨가 이 벌판을 전부 소유하므로 지어진 지명이라고 전한다.

쏘다지기 항금 남쪽 골짜기. 앵자봉 밑으로 여기서 황금이 마구 나왔다고 전한다.

4. 개군면

개군면(介軍面)은 군 동남부, 남한강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1760년(영조 36) 여주군 개군산면이라 개칭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여주군에서 양평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하자포리 외 12개 리를 관할하는 이 면은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 당시에 지역 주민과 관군이 협동하여 구미포에서 왜적과 격전을 벌여 개군산이란 이

름이 생긴 데서 지명이 유래했다. 1914년 '개군산면' 이 '개군면' 으로 개칭되었다. 문화제는 앙덕리 지석묘군(仰德里 支石墓群), 파사성지(婆娑城址), 상자포리(上紫浦里) 선사유적 등이 있다.

계전리(癸田里)

원래 여주군 개군면에 속해 있던 마을로 계밭 또는 계전이라 하기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오룡동을 합쳐 계전리로 하고 1963년 양평군에 편입시켰다.

계전 계밭, 계전리. 여주군 북쪽 밭이 많은 마을에서 유래한 지명.

소감타(소감터) 오룡가리의 서쪽 마을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가 가랑이에 숨겨둔 감투를 얻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 또 다른 일설에 따르면, 옛날 젊은이가 마을의 말단 일을 보아 관직이 작은 것이란 말에서 '소감투' 가 변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오룡동(五龍洞) 오징계, 오룡가리. 계밭 남쪽 지명으로 다섯 용의 모습을 이곳 능선에서 볼 수 있다는 데서 연유한 지명.

공세리(貢稅里, 공세울, 공세동)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세금을 바치는 창고가 있던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은리, 불곡리 일부가 합쳐 공세리로 명명되어 오다가 1963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공세동(공세울, 공서울) 세금 바치던 창고가 있던 마을.

독골 공세울 남쪽마을로 옹기그릇 만들던 터가 있다. 일명 '돌독부리'.

무수동(舞袖洞, 무시울) 신내 남쪽 마을로 신선 또는 무속신앙에 근거를 둔 지명. 지형이 춤추는 소매자락 같다고도 한다. 무수가 있는 곳.

물래울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던 곳.

구미리(九尾里, 후미개, 구미개, 구미포, 구미)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남한강 줄기가 후미져 지나고 있어 붙은 마을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미리로 하였고, 1963년 양평군 소속이 되었다.

구미개(구미포, 후미개, 후미개, 구미리) 구미리의 또 다른 속칭. 구미의 '구' 자를 거북 구(龜)로 생각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말도 전하나 억지풀이다.



개군면 구미리 구미포

구미포 남한강을 건너 여주군 금사변 용담으로 가는 나루가 있었음.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과 격전을 벌이던 곳.

개군산 구미포 뒷산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과 교전한 민·관군이 숨어 있어 온 산에 군인이 산재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산명.

서낭대(서낭대이, 서낭데이) 후미개에서 하자포리 방축골로 넘는 서낭대이 있던 곳.

내리(內里, 안말, 내동)

원래는 여주군 개군산면의 지역군으로, 추읍산 안쪽 마을이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향리와 주읍리 일부를 합쳤으며 1963년 양평군으로 편입시켰다.

가시벌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양성 이씨가 묘를 쓰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려 하였으나 가시덤불이 많아 못 올라갔다 하여 그뒤부터 이곳을 가시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개나리고개 내리에서 향리로 넘어가는 곳. 개나리가 많은 데서 연유.

검정터 옛날 이곳에 피부색이 검은 사람(혹은 중)이 정착하여 살던 곳이라 하여 불리는 지명.

독고개 원덕리로 넘어갈 수 있는 길(통로)이 한 곳밖에 없다 하여 붙여진 지명.

모루모퉁이 내동에서 새상골로 넘어가는 모퉁이에 있다 하여 불리는 지명.



개군면 내리 신제당터

무쇠말백이 추읍산 중턱에 있으며 한일합방 이후 산에 철을 끊고자 무쇠를 박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무제봉(무대봉) 임진왜란 때 왜병이 주둔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부역으로 밥을 짓게 하였다. 밥을 지고 산에 올랐는데 의병에 쫓겨 왜병이 아무도 없다 하여 무대라 불려졌으나 변음되어 무제봉으로 불리고 있음.

배너미고개 내리에서 원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에 수해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어 들었다 하여 연유한 지명.

병기들 임진왜란 때 군대가 주둔하여 병기를 만들던 곳이라 하여 유래된 지명.

불당골 추읍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불리는 지명.

신제당터(神祭堂-) 추읍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전 맹수의 피해를 막고 마을주민의 안녕을 위해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다. 오늘날에도 격년제로 산신제를 지낸다.

선바위 내동 무제봉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서 있는 형상이라 하여 선바위라 한다.

수리재(수비재) 본래 군대가 주둔하여 수비를 하던 곳이라 하여 수비재라 불렸으나, 최근 저수지를 만들려다 수원 부족으로 중지한 뒤부터 수리재라 불린다.

신당이 내동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신당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으나 지금은 변음되어 신텡이로 불리고 있다.

오얏골 내동 서쪽에 외따로 떨어져 있다 하여 외얏골이었으나 변음되어 오얏골로 불린다. 옹머리 내동 남쪽 마을로 뒷산이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는 데서 연유한 지명. 조산 내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뒤로 뺀 산의 맥이 끊겼다고 해서 인공적으로 산에 흙을 쌓아 맥을 이어주었다 하여 조산이라 한다.

부리(釜里, 부동, 가마골)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회를 구워내는 가마터가 현존하여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청두말, 분투골을 합쳐서 부리라 했고, 1963년 1월 1일에 양평군에 편입시켰다.

분투골(분토골) 가마골 북동쪽 마을로 이 뒷산에서 분토(粉土)가 구워진 곳으로 전해 내려온다.

수만터 수만 채 가구가 모여 살아갈 수 있다 하여 불려진 지명.

청두말(靑頭-, 청두정) 가마골 동쪽 마을로 우물이 있다.

불곡리(佛谷里, 부처울, 불곡)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 지명 유래는 미륵부처가 있는 마을이란 데서 연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병계를 합쳐 불곡리로 부르게 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미륵사(彌勒寺) 부처울 북쪽 절로 미륵부처가 있으며 일명 '용화사'로도 불린다.

병계(병계) 부처울 남쪽 마을로 길가란 어휘가 속음화된 것. 또 다른 별칭은 '병해'로 옛날 주점이 있던 곳.

부처울 미륵불이 있으며 신라 때 금강산으로 걸어가던 한 스님이 엎드려 샘물을 마시려는 중에 물 속에 불상이 비치 그 자리에 터를 닦고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는 마을.

상자포리(上紫浦里, 윗자진개, 상자포)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 자진개 위쪽 마을로 자포에서 유래하며 윗자진개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별말을 합쳐 고유지명이 되었으며, 1963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사창터(창말, 창동) 상자포리에서 가장 큰 마을. 사창(社倉)이 있던 곳.

위자진개나루 위자진개 앞에 있는 남한강의 나루.



개군면 불곡리 부처울



개군면 상자포리 사창터

장수바위 장고개의 바위로 굴이 있고, 장수바위에는 마애여래상이 음각되어 있다. 본래 자포(紫浦)는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란 뜻이다. 남한강변의 저녁노을 빛 또는 봄날의 진달래꽃 빛이 강물에 비침을 뜻한다고 보아야 옳다. 옷다리 풍물패가 있으며 파사성이 있는 곳. 자진개 이의 원음은 좌진개로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구미포전투 때 우군진영의 좌진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



개군면 양덕리 지석묘군

석장리(石牆里, 돌담, 돌다미, 석장)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 마을에 돌담이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신라시대 남녀 두 장군이 내기를 하여 진 쪽이 돌을 날라 마을 경계에 돌담 쌓기를 약속하였다. 결국 여자 장군이 패하여 부너자 수백 명을 동원하여 강변 돌을 치마폭에 날라다 쌓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삼리를 합쳐 석장리로 불리오던 중에, 1963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돌담(돌다미, 석장, 돌뎀이) 마을에 돌이 많아 그 돌로 쌓은 담이 여러 곳 있다.

새샘 속칭 '새세미'로 불리며 새 우물을 파니 물이 잘 나온다는 연유로 지명유래가 구전되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함. 한편 사람이 살지 않았던 수백 년 전 새 마리의 새소리만 들렸으므로 붙은 지명이라고도 한다.

양덕리(仰德里)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 먼 예전에 안동 김씨 효문공이 낙향 은둔하여 지역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주민 모두가 그의 인격을 추앙하였다는 데서 양덕이라는 지명이 전한다는 설이 구전된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덕리라 하여 오늘까지 전하는 지명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나루개 남한강변나루가 있던 곳. 풍광이 아름다워 상춘객이 많이 모이는 곳. 낚시터로 유명함. 양덕나루 남한강 양덕포구에서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로 건너다니던 나루.

지석묘군 고인들이 산재하는 곳.

자연리(自烟里, 자암, 자암배, 잠배, 잼배, 자암바위, 자연)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붉은 바위가 있었다 하여 자암(紫岩)이라 불렀는데 자연으로

변이된 듯 보인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 앞 들관에 황새가 많고 곡물이 풍성하여 집집마다 굴뚝연기가 스스로 피어오른다는 데서 자연리로 지칭한다는 이야기는 억측 같다. 1914년 지방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황새바위를 합쳐 오늘에 이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황새바위① 황새 바위가 있는 마을. 예전에 황새가 서식했던 마을.

황새바위② 잭배 동쪽 황새처럼 생긴 바위.

주읍리(注邑里, 추읍, 주읍)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주읍산 밑에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이 산 정상에서 보면 일곱 고을이 보인다고 하여 유래된 듯하고, 속설에 따르면 유명한 지관이 마을 뒷산에 올라보니 이 산이 용문산을 뒤쫓는 형상이므로 추읍(趨揖)산이라 명명했다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주읍리가 오늘에 이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전입되었다.

고사터 곳집이 있는 들로 일명 '동막골'로도 지칭.

솔무재이 아랫말 남쪽의 소나무가 많았던 들.

신데이고개(절골고개) 가자골에서 내리의 절골로 넘는 고개. 여기에 신당(神堂)이 있었다.

언덕말(엉덕말) 언덕이 있는 마을.

지경고개 아랫말에서 지제면 수곡리로 넘는 고개. 조선시대에 지평과 양근의 경계가 되었다.

하랑골(화랑골) 화랑(花郎)이 태어났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구전된다.

하자포리(下紫浦里, 아래자진개, 하자포)

면사무소, 우체국 지서, 농협 등의 기관이 있다.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속칭 '자진개' 아래쪽이므로 한자어휘로 하자포리라 불리는 곳이다. 예전에 이 부락을 지나던 한 선비가 비뚤은 뒤의 풍경을 살피니 찬연한 노을빛이 포구에 어러 비치므로 자포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축골을 합쳐 하자포리가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구렁테이 움푹 패인 지형의 마을.

방축골 중간말 북쪽 마을로 동쪽에 방축(防築)이 있음.

자진개나루 아래자진개 앞 남한강의 나루. 자진개란 원래 좌진개로, 임진왜란 때 구미포에 본진, 동쪽으로 좌진을 포진한 데서 유래.

향리(香里, 상골, 향동)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안동 김씨 문정공과 김달행 묘비명에 향곡리(香谷里)라 쓰인 것으로 보아 중간에 고을 곡(谷)자가 생략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하여 향리로 고정된 지명이고, 1963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개군저수지(상골저수지, 향리저수지) 향리 소재의 저수지로 구한말에 만들어졌다.

웃상골 상골의 위쪽 마을. 옛날 만포정 주막이 있던 곳.

향동 '향곡'으로도 불리며 이 향곡은 조선시대 정조의 유언으로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조부인 김달행과 백부인 김이기의 묘자리를 찾고 있던 중 이곳 어디에선가 향기가 풍겨 지어진 지명으로 전해온다.

5. 단월면

단월면(丹月面)은 군내의 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사무소는 보룡리에 있다. 1688년(숙종 14)에 지평군 하북면이라 칭하였다. 구한국시대부터 지평군의 북쪽에 있었고 북면(北面)으로 불려오다가 1914년 단월면으로 불려 오늘에 이른다. 북쪽으로 홍천군 서면, 서쪽에는 가평군 설악면, 남쪽은 옥천면·용문면·지제면, 동쪽이 양동면·청운면·홍천군 남면에 인접하고 있다. 지방 문화유적으로는 보룡리의 보산정(寶山亭)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보산정 밑에는 시퍼런 물이 고여 있었는데 요승의 피에 속아 소금 300석을 부었더니 그 연못 속의 보배스런 용(龍)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청운면 용두리(龍頭里) 쪽으로 비틀대고 넘어갔다 한다. 이때 용이 피를 흘린 자국이 달빛에 붉게 물들었다 하여 단월면(丹月面)이 되었다고 하나 억측일 뿐이다. 면 대부분이 수풀에 둘러싸인, 신선이 사는 밝은 달이 비취진 정자의 마을, 즉 단구월사(丹丘月謝)의 준말로 봄이 타당하다.

덕수리(德水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덕수라 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덕수, 점동, 백동리, 진목리 일부를 합쳐 덕수리가 되었다.

덕수 농사짓는 데 물의 덕을 많이 입는다 하여 지어진 지명으로 덕수리, 덕수터, 교회터 지역.

백동(柏洞) 점골 동쪽마을로 300년 넘는 잣나무가 지금도 몇 그루 있다. 한자로 백동(白冬)

또는 백동(伯洞)으로 쓰는 변이된 말임.



단월면 명성리 뺑치고개

백동절 백동 뒤의 절이 있던 곳. 이 절은 남원 양씨 문중에 병사를 지낸 분의 재궁이었다고 전한다.

백동안산 백동절골 뒷산에 양헌수 장군의 묘와 비가 있다.

백동저수지 백동절골 아래 새로 생긴 저수지.

장터골 옛날 백동역이 있을 때 장이 서던 곳.

점동(店洞, 점골) 덕수 북쪽 옹기점이 있던 마을.

진흙고개 안점골에서 아랫백동으로 넘는 진흙으로 된 고개.

명성리(明星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분지, 단월, 당의리를 합쳐 명성리로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단울(다우리) 당의 남동쪽 마을로 이곳 명칭에서 단월면 지명이 유래한 듯하다.

단월리 분지울 서쪽 마을로, 단구월사(丹丘月榭)의 약어로 보아, 소리산 쪽 밝은 달이 비추는 신선이 사는 정자마을이란 뜻이 있는 곳으로 단월(丹月)이란 지명이 유래.

당의(唐儀, 당알) 명성리에서 으뜸 마을.

명성골 소리산 위쪽 골짜기로 별빛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하여 붙은 지명.

뺑치고개 가파른 지형이어서 뺑소니치듯 내리막길이 된다는 고개.

분지(盆地, 분지울) 학교말 남쪽 지명으로 힘차게 샘이 솟는다는 뜻.

통골 분지울 남동쪽 마을로 당알(당의)과 뺨치고개로 통하는 마을. 이곳에 단월터널이 2001년에 새로 개통되었다.

보룡리(寶龍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터, 도룡골, 진목, 재인동을 합쳐 보산과 도룡 두 마을의 글자를 합성시킨 것이 보룡이란 지명이 되었다. 이곳에 면사무소가 있으며 지서농협, 초·중학교, 우체국 등의 기관도 있다.

도룡골 보룡리에서 용씨가 많이 살았던 곳으로 산에 가려진 마을.

도티울 한터 서쪽의 도토리 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마을 입구에 단월중학교가 있다.

보산정(寶山亭) 도룡골 북쪽에 있는 무안 박씨 정자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인동(在人洞, 才人洞) 도룡골 남쪽 국도 옆 마을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산다는 속설이 있는 곳. 단월지서와 우체국이 있다.

한터 보산정 서북쪽 마을로 무안 박씨 선조가 은둔하던 으뜸 마을.

봉상리(鳳上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대리, 수미리, 북평리, 상광리, 하곡리, 도룡리의 각 일부를 합쳐 봉상리로 부르면서 단월면에 속한 곳이다. 용문면 광탄리 봉황정(鳳凰亭) 위쪽에 있다 하여 이런 지명이 붙었다.

노적바위 봉상리에 있는 노적같이 생긴 큰 바위.

붓뜰[泐坪] 수밧들 북동쪽의 보(洑)가 있는 지역.

수밧들(收米-) 봉상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쌀 수확이 많다 하여 붙은 이름.

아홉사리 안터골 서쪽의 골짜기로 아홉 고개가 연거푸 있는 깊은 계곡.

터골 붓들 서쪽 마을로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으로 이야기가 전한다.

부안리(富安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록, 새말, 양안, 대왕터, 돌미기를 합쳤고 부록·양안의 두 지명에서 합성시킨 지명이다.



단월면 부안리 단월 터널

대왕터 부록의 남서쪽 마을로 크게 성공한다는 설이 있다.

묘앞골 요골의 북쪽 마을로 뒤에 묘가 여럿 있다.

양안(양골) 대왕터 서쪽의 마을로 조선시대 세조 함평 이씨 증시조인 이형진이 낙향 은둔하며 편히 살기를 바랐다는 데서 붙여진 지명.

여수박골 여수바위가 있는 골짜기.

웃물골 샘물이 있는데 웃이 오른 데 마시고 목욕하면 완치된다는 속설이 있다.

잣나무골 가는 골 서북쪽의 잣나무가 있는 골짜기.

단월 터널 발배골에서 명성리 통골로 연결되는 새로 생긴 터널.

산음리(山陰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청리, 고가리, 산대리, 고북리를 병합하여 요문산 북동쪽의 응달이 되므로 산음리라 하였고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준한 가운데 협곡이어서 화전민의 생활모습을 찾을 수 있고, 교통이 발전한 근래에는 피서지로도 소문이나 있다.

고가소(高可巢) 산대의 북쪽마을로 고지대이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함. 이곳 광산터에 광산 공원이 있다.



단월면 삼거리 보익광산

고북(高北) 산대의 남서쪽 마을로 산이 마을을 그늘지게 하는 곳. 이곳에 산음휴양림이 있다. 무푸레골 산대 동북쪽 마을로 고목(古木) 풀 속에 특히 물푸레나무가 많았고, 물이 맑다는 데서 유래.

산대 산음리에서 으뜸인 마을. 이곳 산음분교에 문화학교를 마련하여 수공예(가제장승)를 연마한다.

삼거리(三加里, 가루니, 세거리, 삼거리)

원래는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세 갈래의 길이 있어 붙은 지명이다. 흐르는 냇물 줄기도 청운, 고송, 단월의 향·소·부안 세 곳이고, 지형 또한 선바위, 삼거리, 미륵댕이 세 곳을 합친 지역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삼거리로 명명되어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가마안 가마솥처럼 움푹한 골짜기.

꽃바위 바위 주위에 진달래가 많은 곳.

방천거리(防川-) 삼거리 앞들의 방천이 있는 곳.

보익광산 옷삼거리 남쪽에 있는 광산으로 일제강점기에 개광되었으나 현재는 폐광됨.

옷나무배기 옷나무가 있었던 들.

석산리(石山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의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현리, 문례리, 삼산리를 합쳐 석현·삼산의 두 곳 지명을 본떠 합성시킨 지명이 석산리이다. 이후로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석산리는 명성리나 산음리와 더불어 면(面)의 경계이자 군이나 도(道) 경계의 경기 최북극단 지역으로, 사방이 수풀과 험곡 계류로 원시림에 싸인 절경이다.

돌고래 소리산 동쪽의 돌이 많은 마을. 이곳에는 진흙과 맥반석 사이에서 지장수가 나온다. 문례(問禮, 물례) 새마을 동북쪽 마을로 예전에 물례방아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으며 변이 어로 만들어진 이름.

삼산(서미) 비봉산 봉우리가 셋 있다는 뜻이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유문동으로 넘는 고개가 있다. 서미는 '서뢰' (세 개의 산봉우리)라는 고어에서 속음으로 된 것.

이니대(이늪이) 새마을 동쪽 마을로 이곳 소(沼)에 이무기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된 속음화 지명.

향소리(杏蘇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80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정이, 동마골, 살구나무골, 비술을 합쳐 살구나무골과 소정이 두 곳을 본떠서 향소리라 부르고 단월면에 편입시켰다.

노루터 비술 서북쪽 마을로 산에 노루가 많은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일명 '장대리(獐堡里)'라고도 한다.

백백교촌(白白敎村) 향소리 산 1012번지의 빈터로, 1923년 백백교 교주인 전용해가 농장을 거점으로 세우고 전국의 갑부를 초대하여 수백 명의 여인을 농락, 90여 명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곳이다. 1930년에 발각된 일명 '백백교 사건'의 현장.

살구나무골 향소리에서 으뜸인 살구나무가 많았던 곳.

소정(小亭, 소재이, 소정이) 살구나무골 남쪽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

웃나무밭골 비술 서북쪽 마을로 웃나무가 있다. 이 마을 위아래에 양병사묘와 신도비가 있다.

6. 서종면

서종면(西宗面)은 군내 북서쪽 끝에 위치하는 면으로 면소재지는 문호리(汶湖里)다. 1747년 (영조 23) 이래 양근군 서종면으로 부르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하여 이 면 중의 삼회리를 가평군 외서면에, 노문리 일부 지역인 영천·이치 마을을 설악면으로 이속시켜 현재는 8개 리 관할이다. 서종면은 군의 서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며, 1836년 경기감사 유치선이 이곳에 낙향, 서종면 글자 속의 '종(終)'이 끝나친다는 뜻이어서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마루 종(宗)'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북한강을 따라서 펼쳐진 지방도로가 경춘국도와 서울·강릉간의 국도와 연결되고, 문호나루·수입나루·내미연나루가 열려 수운도 편리하다. 문화재는 문호리 선사유적, 이항로 생가, 노산사가 있다.

노문리(蘆門里, 갈문, 노문)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영천리, 이치리 일부를 합하여 노문리라 하였다. 이곳에는 구한말 성리학자인 화서 이항로 선생의 생가와 노산사가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워 「노산팔경(蘆山八景)」과 「벽계구곡(藥溪九曲)」이 있다.

갈문(노문) 해주 정씨 정한교가 노경(老境)에 은거하며 마을 주변이 갈대로 우거졌다 하여 붙인 지명.

벽계(藥溪) 노문 남서쪽의 마을. 화서 이항로의 출생지로 화서의 부친 이회장이 개척한 곳. 싹돌이 벽계 서남쪽의 마을로 싹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한 곳.

속섯, 속세, 속사(續斜) 벽계 동쪽의 마을로 안동 김씨 삼연 김창흡선생이 은거하였던 곳.

영천(靈泉) 다락재 동북쪽의 샘물이 있었던 곳.

진대(진땀) 속섯 남쪽의 마을로 풍양 조씨 조동극 선생이 개척한 곳.

도장리(道壯里, 도장골, 도장동, 국로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의거하여 잠실, 국로소, 매곡, 헌터벌을 합쳐 도장리라 명명하였다.

국로소 아랫말, 도장동(道壯洞), 도장리. 학식과 덕망이 높은 백씨 노인이 당호(堂號)를 '국로당(國老堂)'이라 하여 연유한 곳. 도장의 지명도 한자로 '陶壯(도장)'이라 하기도 하며 벽진 이씨, 남양 홍씨 등 터 잡은 이가 각기 다르게 전해온다. 일명 '만석골'로도 불린다.

매곡(梅谷, 맏골) 국로소 동북쪽의 마을로 마을 앞산이 매환낙지형인데서 유래.

잠실(蠶室) 국로소 서쪽의 마을로 일명 '잠실'로도 변이음 되는 곳이며, 지형이 누에 모양인데서 연유한 곳.

헌터벌(웃말, 한터, 한씨터) 맏골 동남쪽의 마을로 한씨 형제가 개척했다는 유래가 전함.

명달리(明達里, 명덕, 명달, 명달)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지형이 명덕같이 생긴 데서 연유되었다고도 하며, 일설에 의하면 마을이 높은 산간지역으로 사방에 두루 통하며 아침해가 제일 먼저 뜬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불확실하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소유곡, 낭하타골, 삼각골, 상산제를 합쳐 명달리로 하여 오늘에 이른다.

명달(명덕, 명달, 명달) 명달리로 산간에 문헌 듯한 곳.

삼각골(삼각곡, 삼각골) 나가터골 남쪽의 마을로 화전민이 살았던 곳.

소유곡(巢由谷) 명달 동쪽의 마을로 중국의 전설상 인물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지나가다가 쉬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낭설이다.

문호리(汶湖里, 무너미, 무네이, 문호)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북한강물이 장마철에 넘어온다 하여 변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호, 수호, 영암, 갈멜, 질골, 꽃대울을 합쳐 문호리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른다. 면사무소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초·중등학교·우체국·농협지서가 있다.

가루개(갈호) 밤나무단지 남쪽 갯마을로 갈대·참이 많았다고도 하며, 대홍수가 지나가면서 마른 호수로 붙인 이름.

갈멜 무너미 북쪽 마을로 앞산의 지형이 목이 마른 말[馬]의 형상에서 연유하였다는 일설도 있다.

꽃대울 길곡 북쪽의 마을로 주변에 진달래꽃이 많았다고 한다.

길곡(질곡)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은 마을.

마당재 문호리의 나무꾼이 쉬는 터.

맞은바위 밤나무단지 맞은편의 바위.

맞은배 맞은바위가 있는 마을로 동구(洞口)의 이 바위가 이 지역 주민을 맞이한다고 하여 붙은 지명 같다.

밤나무둔지 무너미 남쪽의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다.

수대울 가루개 남동쪽 마을. 일명 '수대곡(水大谷)'이라 한다. 물이 언제나 많았다.

장터거리 안말 남쪽의 장이 서는 곳.

서후리(西厚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차남리, 후곡리, 동점리 일부를 합쳐서 그 중의 서차남과 후곡의 첫 글자를 합성시킨 지명으로 오늘에 이른다.

고현(高峴, 된고개, 서차남고개) 서차남에서 양서면 청계리 반월형으로 넘는 큰 고개임. 속칭 '제치레미(제칠암)'라 하기도 한다. 이 마을은 통점의 남쪽 마을.

두터골 두꺼비골, 후곡(厚谷). 통점 동쪽의 마을로 지명에 관한 설이 두 가지 있음. 예전에 이 씨, 김씨 두 집의 인심이 후하여 '후곡'이라 했다 한다. 또 두꺼비골에서 변이된 지명이란 이야기도 있다.

통점[銅店] 서후리에서 으뜸 마을로, 동광(銅鑛)이 있으므로 붙은 지명.

수릉리(水陵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회리, 능곡리, 낙촌리, 동점리 일부를 합쳤으며, 수회와 능곡의 두 지명 첫 글자를 합성한 수릉리로 명명한 후 오늘에 이른다.

가래골 노루고개 서북쪽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다.

낭말[樂村, 落村] 가래골 서북쪽 마을로 낭떠러지가 있다.

노루고개 능골 서북쪽 마을로 노루 모가지처럼 생겼다. 예전 경주 이씨 묘자리를 노루가 정해 준 곳이라고도 전한다.

능골[陵谷] 수릉에서 으뜸 마을로, 남원 양씨인 양헌수 대장의 선조 묘가 있어 붙은 이름.

호랑바위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

수입리(水入里, 무드리, 수입)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물이 마을 앞으로 돌아흐르는 데서 연유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의거하여 안무드리, 무드리, 야미실, 비



서종면 수입리 무드리나루터 표석

선말, 석바탕, 능골을 합쳐 수입리로 한 이후 오늘에 이른다.
 능골 구시울 동북쪽 마을로 마을 뒷산에 왕가 출산의 태를 묻었다 하여 붙은 이름. 그 산 이름
 이 일명 '태봉' 이라고 한다.
 무드리나루터 무드리 서쪽 북한강의 나루터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로 건너간다.
 바치울[眞谷] 무드리 남쪽 강변의 높은 언덕마을로 산에 받쳐진 지형에서 유래. 나라의 연료
 채취장
 비선말 안무드리 동북쪽 마을로 이청강의 신도비가 서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
 석바탕(석평촌, 돌바탈) 비선말 동쪽의 돌이 많은 마을.

정배리(鼎排里, 솔바위, 쇠배, 솔배, 정배)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솔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1908년 양평
 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통절골, 반곡, 명덕골, 진대를 합쳐 정
 배리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 정배 초등학교가 있다. 고려 박씨 정배(鼎排)라는 승정원 좌승
 지가 벼슬을 물리친 채 이곳에 은거하였으므로 그이의 이름자 가운데 '정(鼎) 자를 따서 붙
 인 지명이라고 전한다.

명덕골 사릿골 동쪽 마을로 옛날 어떤 학자가 이곳에 살며 『대학』에 나오는 “대학지도 재명
 명덕(大學之道 在明明德)” 중에서 명덕(明德)을 인용했다고도 한다.

통점골(통정골, 통정골, 통점, 동점) 사릿골 남쪽의 마을로 동점(銅店), 즉 놋쇠로 그릇을 만들어 파는 곳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

7. 양동면

양동면(楊東面)은 군내 남동쪽 끝에 위치한 면으로 면사무소는 쌍학리에 있다. 조선시대에 지평현의 동쪽에 위치했다 하여 지평현 상동(上東)이라 부르고 소재지를 부연리(釜淵里)에 두었다가 석곡리(石谷里)로 옮겼다. 1908년 양근군과 지평현이 합병되면서 군에서 볼 때 동편 끝에 위치했다고 해서 양동면이라 칭하고, 1940년에 쌍학리(雙鶴里)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곳에 중앙선 철도역인 양동역이 있다. 북쪽은 청운면, 서쪽은 단월면·지제면, 동쪽으로는 서원면·원성군 지정면, 남쪽은 여주군 강천면에 접해 있다.

계정리(桂亭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가내리, 산수리, 구창리, 신창리, 신촌리, 송정리, 계량리, 거슬리를 합쳐 이 지명 가운데 계량과 송정리 두 마을의 이름을 따서 계정리로 불렀다. 이때 양동면에 편입되었다. 양돈, 표고, 느타리 재배를 많이 하는 마을이고 분교가 있다.

가래골(加乃-, 가랫골) 구창말 남쪽 마을 골짜기 약수터에 가래나무가 많은 데서 연유한다.

구창말(구창리) 창말의 옛마을로 사창(社倉)이 있었다 한다.

대월 동이점 동남쪽 마을로 골짜기가 깊다. 광산 탄약고가 있었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자취가 있다.

동이점 가래골 서남쪽 마을로 용기점이 있었음. 일명 '점말'로도 불린다.

둔말 창말 남쪽 마을로 예전에 균역청 선무군관이 주둔했다 한다.

목재 계량 동산의 마을로 목재를 벌채하던 곳이며, 이곳에 목재광산이 있다.

밀양골 새터 북쪽 마을로 옛 지명은 '미양골'인데, 염소 사육장소였으므로 밀양골로 변이되었다 한다.

산수말 구창말 동쪽 마을로 영의정을 지낸 덕수 이씨 이여(李余) 선생의 묘소가 있으므로 붙은 이름.

스무나리고개 창말에서 강원도 횡성군 서운면 스무나리로 넘는 고개. 스무날을 기다렸다가 사람을 모아서 같이 고개를 넘어 도적의 피해를 막았다 하여 유래.

작두터골(거슬리) 작두 받침을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송정 북쪽에 있다. 마을 뒷산에 '머슬치고개'가 있다.

창말(창리) 계정리에서 으뜸 마을로 예전에 사창(社倉)이 있었다.

지랑이(계랑) 새말 북쪽 마을로 진흙이 나오는 고을.

고송리(高松里, 고솔, 고솔, 고송)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수백 년 된 높은 소나무가 있으므로 지어진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와 광암리, 상북면 하고송리를 합쳐 고송리라 하면서 양동면에 편입시켰다. 초등학교 분교가 있다.

너분바위 고솔 북쪽 넓은 바위가 있는 고을로 일명 '너래바우'로도 불린다.

삼선당 윗고솔 서쪽의 마을로 뒤쪽 산에 치성 드리는 당(堂)집이 있어 붙은 이름.

썩골 고솔 북동쪽의 마을로 썩이 많이 나서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하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고을이라 붙여진 것이라고도 한다. 광산이 있다.

장만터(長滿-) 아랫고솔 동쪽의 마을로, 언제나 벌채한 재목(材木)이 널려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

금왕리(金旺里, 금왕골, 금왕동)

원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금왕산 아랫마을이므로 불리는 이름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리, 율목리, 석우리가 합쳐져 마을이 형성되었다.

금왕사 금왕골 동북쪽의 절.

돌모루 점말 북쪽마을로 돌이 많은 모퉁이를 지나 있는 곳.

밤나무골 금왕골 북쪽마을로 밤나무가 많았음. 저수지가 있으며 초등학교가 있었다.

비양골(비안골) 금왕골 남쪽 양지바른 마을로 '양곡(陽谷)'이라고도 한다.

점말(店-) 밤나무골 북쪽 마을로 웅기점이 있었다 한다. 주막도 있었다.

단석리(丹石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 거단리, 송석리, 상소리 일부를 합쳐 거단·송석 두 고을의 지명에서 글자를 따서 단석리라 하고 양동면에 편입시켰다.

거단리(巨丹里, 거단이, 것다니) 단석리에서 으뜸 마을로, 큰 골짜기가 됨.

다락근이 솔석정이 동쪽 마을로 지대가 높아 매달려 있는 듯한 곳. 여기에 단석 저수지가 있다.

병데미 단석리에 있는 바위데미로 부엉이가 서식했던 곳.

솔석정이[松石亭] 다락근이 서북쪽 마을로 마을 앞 암반 위에 소나무 그늘 정자로 만든 놀이터가 있다.

요골(욘골) 거단이 북동쪽 골짜기 안의 마을로 삼태봉 밑의 오목한 마을.

장터[場坵] 솔석정이 북쪽 마을로 가마뚝(부연) 시장터가 있어 연유한 곳으로 면사무소가 있었다. 지금 이곳에는 체육공원이 신설되고 을미의병 발상지로서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종자리(종지알) 새말 동쪽의 마을.

황골 향골, 항곡(恒谷), 황곡, 대곡(大谷). 다락근이 동남쪽 큰 골짜기의 마을로 골짜기가 깊은 데서 연유.

매월리(每月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요곡리, 송평리, 월은리, 설매리, 장재리, 황거리, 상석리, 일부를 합쳐 설매·월은 두 마을 이름에서 각 한 자씩 본따 매월리로 지었으며, 양동면에 편입시켰다.

광암(廣岩, 너른바위) 매곡역 남쪽의 넓은 바위가 있는 마을.

달웅개(달은개) 매월리에서 으뜸 마을로 울창한 수풀에 달빛조차 가려진 고을이란 뜻.

설매실(雪梅-) 달웅개 동쪽 마을로 승사랑 벼슬의 원주 이씨 이희홍이 은거하며 붙인 지명이라 한다.

장재터(長才-) 설매실 북서쪽 마을로 황거광산에서 큰 재산을 모은 이가 산 곳이라는 설도 있으며, 예전 장자가 머물던 곳이란 설도 있다.

황거(黃巨) 일명 '황거러니'라 일컫는 이곳은 서방골 북서쪽 마을로 일제 때 황거광산에서 금을 채광한 이후 생긴 지명.



양동면 삼산리 분터골

삼산리(三山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원삼산 뒤의 산이 세 봉우리가 연달아 있어 지형에서 연유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곡리, 하소리, 이천리, 상소리 일부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의 일부를 합쳐 삼산리라 하였다. 이후 양동면에 편입되었다.

농막둔지 삼산 남쪽 마을로 농막(農幕)이 있던 자리임.

도소리[都率] 농막둔지 남쪽 마을로 일제 때 의병 집결지였다고 한다.

배내 이천(梨川), 이내. 분터골 동남쪽 마을로 배나무가 있었다 한다.

분터골[上巢] 도소리 남쪽의 마을로 분토가 출토되며 의병활동이 있었던 삼산유곡으로 여름철 약수(藥水)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을.

불가턱골(불개턱골) 예전 절이 있던 곳으로 세 집이 거쳐하고 있다.

속골 금곡리, 쇠골. 삼산 동쪽 골짜기 마을로 마을 입구가 비좁다.

물탕골 두리봉 맞은편에 있는 마을. 한학자 최선생의 제자로 문막 사는 윤길중이란 명인이 있었다 한다.

설치버덩 이곳 묘자리에 호혈이 있는데 후손들이 묘지에 사초를 하고 가면 변사를 당한다고 한다. 근래에도 2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 지금은 묵고 있다. 성씨가 엄씨라고 전한다.

석곡리(石谷里, 돌실, 석실, 섬실, 석곡, 섬실골, 석실곡)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돌 많은 고장의 어원이 다양한 변이음으로 불리고 있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하곡리, 조현리, 목곡리, 상석리를 합쳐 이 가운데 상석과 하곡 두 마을 이름 글자를 딴 지명이 석곡리다. 이곳에 양동초등학교가 있다.

고래말 섬실 동쪽 마을로 옛이름은 '고내말(古內—)'이었다 하나 오히려 고래논이 많아 붙은 이름이라는 설이 타당한 듯하다.

목곡(牧谷, 목골) 섬실 동북쪽 마을로 덕수 이씨 이기진이 은거하였으므로 그의 아호를 본뜬 지명. 이 마을에 의병장인 안승우, 이춘영 의사의 묘소가 있다.

사이실(沙以室) 새우개 북동쪽 골짜기의 마을로 섬실과 새우고개 사이 마을을 뜻하며, 일설에 따르면 의병장 안승우가 살았으므로 그의 아호인 '사이(沙而)'에서 '실'자를 첨가시킨 지명이라고도 한다.

새우고개 마을 뒤 고개로 온갖 새가 많아 붙은 이름.

섬실(돌실, 석실, 석곡, 섬실골, 석실곡, 돌모루) 여러 지명을 지닌 곳으로, 건지산이 있고 예전엔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용죽골 새우개 북동쪽 마을로 용주사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쌍학리(雙鶴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쌍리, 화곡리, 장촌리, 내곡리, 학촌리, 목곡리 일부를 합친 후 쌍리와 학촌리 두 고을 첫 글자를 합쳐 쌍학리라 하고 양동면에 편입시켰다. 이 마을에는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농협, 신협, 지서, 우체국이 있다.

가마소(釜沼) 활거리 동쪽 마을로 가마솥 같은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꽃재 창말 서쪽 마을로 서당(書堂) 둘레에 꽃이 많다.

마골 안골 서북쪽 산마을로 말이 많아서 유래. 이곳은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피한 곳이라고 정민공(안정옥) 묘갈에 기록되었으며 효열각이 있다.

망골 마골 위에 있는 지명으로 망을 보던 곳이라 전한다.

방축골 활거리 서쪽의 골짜기로 방축이 있다.

삼성당 창말 동북쪽 마을로 박·황·민의 세 성씨가 살았던 곳.
 직장들(곳들) 박직장(朴直長)의 은거지였으므로 이름이 붙은 들.
 창말(창촌) 학둔지 남서쪽의 마을로 사창이 있었다 함. 창고 마을의 준말.
 택풍당(택당) 창말 서북쪽의 집으로 인조대의 문인이었던 택당 이식이 살았던 거처의 유물관.
 학둔지[鶴村] 쌍학리에서 으뜸 마을로 학처럼 생긴 지형에서 연유된 지명.
 활거리 고새기 남쪽 마을로 길의 생긴 모양이 활 같다 하여 붙은 지명.

8. 양서면

양서면(楊西面)은 군내의 남서단에 위치한 면으로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서시면(도곡, 대심, 국수, 북포, 청계, 중동 등의 6개 리를 관할)과 서중면(양수, 용담, 부용, 목왕, 신원리 등 5개 리 관할)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시면(西始面)과 서중면(西中面)을 합병하여 지금의 양서면이라 부르고 있다. 군의 서쪽이어서 이런 명칭이 생겼다. 북쪽은 서중면, 동쪽은 옥천면, 서쪽은 북한강을 건너 남양주시 와부읍에 접하고, 남쪽은 남한강을 건너 대안(對岸)의 강하면과 광주시 남종면과 접해 있다. 문화재로 대심리 선사 유적, 신원리 부용산 성지, 양수리 지석묘군 등이 있다.

국수리(菊秀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리, 답다리, 비석거리를 합쳐 국수산 밑이 되므로 국수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비석거리(비선거리) 국수역 남쪽의 마을로, 이 고을의 집강(執綱)이었던 박후대의 애민선정비가 서 있던 자리에서 유래.

안말 새말 안쪽의 마을로 중앙선 확장공사로 담이 만들어졌다. 정자골 동쪽의 마을, 정자골 정자골에서 도곡리로 넘는 고개. 이 앞에 느티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일명 '답다(畓多)'라고도 불린다.

대심리(大心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양서면 도곡리 월계나루

따라 대탄리와 상심리를 합치며 두 지명을 합성하여 대심리로 칭한 후 양서면에 편입시켰다. 상심(上心) 한여울 동쪽 남한강변의 벼루이며 농장과 별장이 있다. 이천 서씨의 선조가 지었던 정자 상심정(賞心亭)에서 유래.

도곡리(陶谷里, 도곡, 질울)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예전에 질그릇을 구웠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반장리, 대탄리 일부를 합쳐 도곡리라 하면서 양서면에 소속되었다.

반장(半長, 반장이) 질울 남쪽 마을로 예전엔 주막이 있어 성시를 이루었다 하여 반은 장날 같다는 데서 연유된 곳. 여기에 양서초등학교가 있다.

분투골 분토가 나는 골짜기.

월계나루 양서면 반쟁리에서 남종면 천탄으로 건너가는 나루.

목왕리(木旺里, 무왕골, 목왕동, 망골)

원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산이 깊고 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그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리, 사촌리 일부와 서시면 신원리 일부를 합쳐 목왕리라 부르면서 양서면으로 편입된 곳이다.



양서면 북포리 굽여울

구정벼랑(구정베루, 구정벼루) 절말 서쪽의 벼랑으로 일명 '구정곡(九政谷)' 이라고도 한다. 아홉 정승의 유택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정창손, 노정휴, 김사연, 신효창, 이민성, 이덕형, 이준경, 민희, 민음 등이며, 이들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북포리(福浦里, 북포, 북개)

원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굽여울, 바깥굽여울, 식곡리 일부와 고읍면 기곡리 일부를 합쳐 북포리로 명명하면서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가마소 가마솥 모양의 늪(연못).

굽여울(귀벼울) 북개 동남쪽 여울로 남한강이 흐르면서 구부러져 여울이 되는 지형에서 붙인 지명인데, 말발굽같이 생겼다 하여 '제탄' 이라고도 한다.

능굴(능굴)① 능굴 뒤의 골짜기로 여기엔 고구려의 능이 있다고 한다.

능굴② 굽여울 마을 서북쪽의 고을.

능굴 마을 뒷산에 창녕 함씨 선산이 있다 하여 붙인 지명.

송구터 예전 송씨가 살았던 터여서 생긴 지명.

부용리(芙蓉里)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정, 더운우물계, 월계골, 상나무배기, 참나무정이, 교동을 합쳐 부용산의 이름을 따서 부용리라 하였다.

가정(柯亭) 부용리에서 으뜸 마을로 참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일명 '참나무쟁이'로도 불린다.

괴골(교골) 이 마을을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있다고 하여 지어진 마을.

더운우물 가정 옆의 우물로 더운 물이 나온다.

상나무배기 가정 동북쪽 마을로 향나무가 있었다.

참나무재이(진목) 가정 동쪽 마을로 참나무 정자가 있었다.

신원리(新院里, 신원, 묘곡, 호리원, 안골, 월계)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야곡리, 분점리를 합쳐 신원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이곳 중앙선에 터널이 4곳 있다.

동이점골(분점) 묘골 동쪽의 마을로 웅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신원역이 있다.

묘골 월계 동쪽의 마을로 함양 여씨 선대 묘소가 있는 곳.

부인당(婦人堂) 샘골 서북쪽 부용산에 있는 당집.

샘골[泉峴] 월계 북쪽의 마을로 샘물이 있다.

풀무골 묘골 북쪽 마을로 대장간이 있었다.

양수리(兩水里, 두물머리, 두물거리, 두머리, 두거리, 양수두, 양수)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므로 지어진 지명.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진리와 석장리, 벌리 일부를 합쳐 양수리라 하고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개미기도랑 양수리의 냇가로 개를 막아 만들어진 내.

괘미 원수골 북쪽 마을로 일명 '괘미(怪米)'라 하며, 적군에게 거짓으로 쌀을 쌓은 더미처럼 속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노적골(露積-) 노적봉 아랫마을로 임진왜란 당시에 적들을 위장술법으로 격퇴시킨 일화가 있다.

용소 북한강물을 남한강으로 유입하던 셋강으로, 옛날에 용이 있었다 하여 유래된 지명.
노적봉 건너미 동쪽 산으로 이 산 전체를 짚으로 가려 왜적에게 군량미로 위장한 데서 지명
이 유래.

돌담이(돌데미) 양수머리 북쪽 마을로 돌담이 있다.

두물머리 남북한강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 매년 당산제를 지낸다.

양수교 양수리에서 와부읍 진중리로 왕래하는 북한강 다리로 1937년에 준공되었으며, 서울
~강릉간 국도가 연이어진다.

용담리(龍潭里)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정리, 양수두리, 석장리, 별리의 각 일부와 서시면 월계리 각 일부를 합쳐 용담리라 하
면서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용담리란 지명은, 이 마을에 있는 용소(龍沼)라는 큰 늪에 용이 있
다 하여 붙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기두원 파람소니 남동쪽 마을로 원집(院-)이 있었다고 한다.

파람소니[八岩] 용담리의 으뜸 마을로 '팔암소(八岩沼)'의 연철현상으로 변이된 지명인 듯한
데, 일설엔 마을 앞 남한강의 파도를 바라볼 수 있어 '파람(波覽)'의 어원으로 해석하는 기록도
있다.

용담대교 6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만든 대교로서 신양수대교와 연결되어 있다.

징동리(澄東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폐합에
의거하여 된고개, 바우서리, 동편, 식곡, 징개울, 서시울을 합쳐 징개울과 동편 두 곳 이름에서
본뜬 징동리로 하여 양서면에 편입시켰다.

세늘 세 집이 한울타리로 한 곳에 사는 마을.

성안 세늘에서 식곡 골짜기로 오르면 산이 성(城)처럼 싸여 있다 하여 일컫는 지명.

징계울(징개울, 징개울) 징동리에서 으뜸 마을로, 마천산 계곡에서 마을 앞까지 긴 냇물이 흐
른다는 의미의 '긴 개울', 즉 '긴'이 '진' 또는 '징'의 방언(方言) 현상으로 나타난 지명인
데, 맑음(맑을 징)이 강조된 지명으로 복개울 위쪽.

청계리(淸溪里)

본래 양근군 서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반월형, 중말, 벌말, 탑골을 합쳐 청계산 아랫마을이므로 청계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시켰다.

반월형(半月形) 청계리에서 으뜸 마을로 마치 반달 같은 지형에서 연유한 지명.

탑골[塔谷] 반월형 서쪽 마을로 탑이 있었고, 느티나무 여섯 그루가 정자터를 형성하여 지개정(之介亭)이라 불린다.

9. 옥천면

옥천면(玉泉面)은 군내 중부에 위치하는 면으로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관아가 있던 곳으로서 고읍내면으로 호칭되어 오다가 1914년 3월 1일을 기해 고읍면으로 개칭되었고, 1937년 8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고쳐져 오늘에 이른다. 곳곳 어디를 가나 산과 물이 어우러진 지역이므로 붙은 이름이다. 동쪽에 용문면, 서쪽은 양서면·서종면, 남쪽이 강하면·강상면·양평읍, 북쪽은 단월면·가평군 설악면과 경계를 이룬다. 문화재는 양근향교, 함왕성지, 사나사, 사나사 원증국사석종, 사나사 원증국사석종비, 사나사 3층석탑 등이 있다.

신복리(新福里)

본래 양근군 고읍면(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촌리, 서촌리, 북동리, 신촌리, 동막리, 양현리 일부를 합쳐 이 가운데 신촌과 북동 두 고을의 이름을 본떠 신복리라 하였다.

고목골 동막 서북쪽 마을로 괴목이 있었다고 한다.

농다치(籠多峙) 새마을에서 양현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뒷양근으로 시집가는 신부가 험한 고갯길이라서 농다치리한 데서 유래.

뒷들 북우리 남쪽 마을로 건지산 뒤가 되며, 양근군의 관아가 옥천에 있을 때 뒤의 들이 되어 붙은 이름.

말골 북우리 동쪽 마을로 연안 이씨 이순영이 은거하며 자기의 아호인 두곡(斗谷)에서 연유한 지명.

복우리 복동, 복오리. 신복리에서 중간 마을로 관아에서 북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마을.
엄두레골[嚴盜來谷] 새말 동쪽의 험준한 산간 벽촌 마을로 무서운 도둑이 나타난다는 뜻이 있다.

원통이 서촌 서쪽의 마을로 원통사가 있었으며, 광산 김씨 선조의 묘소가 있어 하인이 거짓으로 이장을 권유해 무덤을 파자 학 두 마리가 날아가니 땀에 속아 명당자리를 넘긴 것이 원통하다고 하여 생긴 지명.

아신리(我新里)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상곡리, 하곡리, 신대리, 빙곡리, 당곡리, 아오리, 기곡리를 합쳐 이 고을 가운데 아오리와 신대리의 두 지명을 따서 아신리라 하였다. 옛날 양근군 관아가 있을 때는 교통(수로)의 중심지로서 사탄장이 섰고, 구창대가 있어 물자교류가 활발하던 곳이다.

빙고골 아오실 남동쪽의 마을로 빙고(氷庫)가 있었다. 일명 '빙곡(氷谷)' 이라고 한다. 현재 양평농업기술학교 지역.

아오실[俄呑谷] 곧일 남쪽 마을로 일명 '아우곡(와우실)' 등으로도 일컫는다. 청송 심씨가 은거하던 곳.

큰와검다리 장고개 동쪽의 큰 다리로 일명 '고읍교(古邑橋)' 라고 한다.

터골 장고개 서쪽의 마을로 이괄의 조상이 터를 잡았던 곳.

구창대 다루래기 위쪽에 옛날 9개의 창고가 있다 하여 붙인 이름.

다루래기[月樓] 강하면 전일로 왕래하는 나루터. 예전에 수로를 통하여 물자를 운수하던 곳으로 달다락이란 누각에서 유래.

옥천리(玉泉里)

고읍내, 옥우물, 옥천수, 옥천.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으로 양근 관아가 있다가 1747년에 갈산(양평읍 양근리)으로 옮겼으므로 고읍내라 하였다. 옥처럼 맑은 우물이 여러 군데 있어 불려진 지명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대월리, 교촌리, 사탄리 일부가 합쳐졌다.

대월리(동부) 옥천의 동쪽 마을로 옛날 원중국사 보우가 태어난 곳.

섣다리 향교마을 남쪽의 마을로 예전에 섣다리가 있었다.

옥터 고읍내 서쪽 터로 양근 고을의 감옥터이며 현재는 대장간터.

작은 외검다리 고읍내 서남쪽 다리로 큰와검다리 북동쪽.

жат고개 고읍내 동북쪽 마을로 견지산 밑이며 정법사 절이 있었다. 일명 '정법이' 라고도 한다.

창말(창촌, 모래여울, 사탄리) 고읍내 남쪽 마을로 모래여울이 있고 사창이 있었다고 한다.

탑산 허문 앞 동쪽의 들로, 탑(塔)이 있었으나 옥우물 옆으로 옮겼다.

향교말 고읍내 북서쪽 마을로 양근향교가 있다.

용천리(龍川里)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현리, 편전리, 사천리, 갈현리를 합쳐 용문산 밑이 되므로 용문산과 사천의 두 지명 글자를 따서 용천리라 하였다. 함왕성지와 사나사가 있고, 여기서 용문산 최고봉인 가섭봉과 백운봉에 오른다.

글쓴바위 사나사 서쪽의 바위로 “자하동천(紫霞洞天, 붉게 물든 무지개 마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절골 사나사가 위치한 곳으로 원중국사 석종비명이 있다.

승주골(승지골) 윗사내 동쪽 마을로 백운봉 밑이며, 함왕성지(咸王城址)가 있다.

함공혈(咸公穴) 절골 북동쪽 성아랫굴로 양근 함씨의 시조가 났다고 한다.

10. 용문면

용문면(龍門面)은 군내의 중부권에 위치한 면으로 면소재지는 다문리(多門里)다. 1688년 (숙종 14) 지평군 상서면(上西面)으로 되었다가 1914년 3월 1일 상서면과 하서면(下西面)을 합병하여 양평군 용문면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용문산과 용문사가 있으므로 면의 명칭을 바꾸었다. 북동쪽으로 단월면, 서쪽엔 옥천면과 양평읍, 남쪽이 개군면·지제면과 접해 있다. 문화재는 상원사, 보리사지, 미지산(용문산의 별칭),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및 비, 봉황정, 태승정, 운계서원 등이 있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사 경내의 은행나무는 정3품 당상직첩을 받은 나무이다.



용문면 광탄리 봉황정

광탄리(廣灘里, 너븐여울, 광탄)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전곡천(田谷川)의 물이 넓게 여울져 있으므로 고어(古語)로 너븐 여울이라 칭한 곳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하북면 상광리, 하광리의 각 일부를 합쳐 광탄리라 한 후 용문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엔 대제학을 지낸 양성지 선생의 후손들이 건립한 봉황정과 택승정이 있다.

봉배산 봉황정이 있는 산.

부엉바위 두더니고개에 부엉이가 서식했던 바위.

주막거리 하광 남쪽의 마을. 주막이 있었다.

금곡리(金谷里, 금질, 금지, 금곡)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으로 우리말로는 '쇠일'이라 칭하였다. 예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사금을 일던 곳에서 연유되었다 한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북면 하광리 일부를 합쳐 금곡리로 한자화한 후 용문면에 편입되었다.

갈띠[葛芝] 칠정이 남쪽 마을로 갈지산 아래에 있다. 앞 전곡천에서 사금을 채취한다.

여우고개 칠정에서 덕촌리 운개로 넘는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는 고개.

칠정말(七井-) 중간말 서쪽의 마을로 일곱 우물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

칠정리(칠정) 금질 서쪽의 마을로 토기를 만들던 곳에서 연유.
하서들 금곡리의 들로, 예전 하서면(下西面) 행정구역일 때 붙여진 지명.

다문리(多文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 하진리, 상진리와 하서면 마천리 일부를 합쳐 다문리라 하여 용문면에 편입되었다. 면사무소, 지서, 우체국, 다문초등학교, 용문면 시장 등이 있는 면내 중심지다. 이 지역의 명칭은 지덕원이란 객사가 있어 글을 읽는 선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구 주막거리 주막거리 옛 장터에 주막이 있었다.

느티나무거리 지더기 서쪽 마을로, 느티나무가 있다.

두집땀 어수물 동쪽의 두 집이 살았던 마을.

물탕골 약수가 나오는 골짜기.

뱀골 두집땀 남쪽의 골짜기로 뱀이 많았다고 한다.

벼락바위 증땀말 서쪽 바위로 큰 바위가 벼락을 맞아 여럿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비석거리 비석이 있는 곳. 지금도 옛 장터에 가면 비석이 3개 남아 있다.

상진(안지더기) 지더기 안쪽 마을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진을 쳤다고 전한다.

어수물(御水-) 벌땀 서남쪽 마을로 물맛이 좋아 세종과 세조가 이 길을 행차하던 중에 이 물을 마셔서 생긴 이름이라고 구전.

여덟갈립 도랑이 여덟 갈래로 갈라지는 들의 샘물.

점말 안지더기 서쪽 마을로 웅기점이 있었다.

주막거리 벌땀 서쪽 마을로 주막이 있었다.

지더기[智德] 벌말 북쪽 마을로 세조가 그의 어머니인 소헌왕후를 위하여 용문사에 보전을 짓고 거동할 때 이곳에 있는 객사 지덕원에서 유숙한 데서 유래.

황새바위 벼락재에 있는 바위로 황새가 떼를 지어 앉았다고 한다.

덕촌리(德村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의거하여 봉대리, 퇴촌리, 덕동리, 운계리 일부를 합쳐 이 중의 덕동리와 퇴촌리 두 고장 지명을 합쳐 덕촌리라 이르고 용문면에 편입시켰다.

방아매기 서원말 남쪽 마을로 물방아가 있었다.

불당재(佛堂-) 불당이 있었던 산, 아래 절골과 절터가 있다.

서원말(書院-) 덕촌리에서 으뜸 마을로 운계서원이 있어 연유되었다.

세심정(洗心亭) 토척미 남쪽 마을에 조용문 선생이 세운 정자.

속골 세심정 서쪽의 깊은 골짜기.

장승거리 서원말 남쪽 마을로 장승이 있었다.

진터(陳-) 진을 쳤던 곳이라 전한다.

마룡리(馬龍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용담리, 마천리, 금곡리 일부와 상서면 전곡리, 상진리의 각 일부를 합쳐 마천과 용담의 두 지명 중에서 글자를 따서 마룡리라 하고 용문면에 편입시켰다.

개와집거리 마내 서남쪽 마을로 예전 초가뿐이던 시대에 기와집이 있던 곳.

그릇고개[店村] 마내 동쪽 마을로 예전에 용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다무내들 마내 남쪽 들로서 '다문리' 를 다무내로 속칭.

마내(만왕) 용담 남쪽 마을로 옛 지명은 마흔천, 마흔내로 '만왕(晩往)' 이란 해평 윤씨 중의 조상 한 분이 구성부사로 있을 때 선정에 대한 은공을 갚고자 한 어떤 이가 신위지지(神位之地)를 잡아주며 뒤늦게 번창하리라 한 뜻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만왕산을 일컬으며 마흔천(馬欣川)에서 유래.

새보들 작은 용소가 있는 새로 만든 보에서 물을 대는 들.

솔점말 마내 남쪽의 마을에 솔 파는 집포가 있었다.

장승거리 다무내들 동쪽의 장승이 있던 들.

활터거리 마내 서남쪽의 활터가 있었던 거리.

망능리(望陵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상망리, 하망리, 두릉리를 합쳐 상망과 두릉의 두 지명 중에 한 글자씩 따서 망능리로 일컫고 용문면에 편입시켰다.

밭골 망릉리의 삼밭이 있던 골짜기.

삼성리(三星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성리, 중성리, 월성리, 흑천리와 동종면의 원당리 일부와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 일부를 각기 합쳐 삼성, 중성, 월성의 세 성지를 따서 삼성리라 하여 용문면으로 편입시켰다.

거무내[黑川] 옷비레 북쪽의 거무내 냇가 마을로, 이 냇물 바닥의 돌이 검은색이어서 물빛이 검게 보인다.

흑천어적(黑川魚笛) 용문팔경 중 하나의 경관.

건너비레 비레 북쪽 개울 건너마을로 일명 '월성(越星)' 이라고 한다.

말구리 비레 북쪽의 가파른 길로, 말이 굴러 죽었다는 곳.

백고개 원골에서 양평읍 대흥리 황골로 넘는 고개로, 일명 잣고개라 하며 잣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

추읍산(趨揖山) 일명 칠보산으로서 칠보청람(七寶晴嵐) 용문팔경 중의 하나.

벼락바위 벼락을 맞은 적이 있는 바위.

섬실[石室] 옷비레 동남쪽 골짜기 마을로 일제시대 광산이 생겨 연유된 지명.

우묵골 우묵하게 생긴 골짜기.

신점리(新店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웅점리, 신촌리, 조좌리 일부를 합쳐 신촌리와 웅점리 두 지명에서 본떠 신점리로 하고, 용문면에 편입시켰다.

독점[醵店] 양수 동남쪽의 웅기점이 있었던 마을.

새말[新村] 신점리에서 으뜸 마을로 용문사 앞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

조개골 아랫말 북쪽 마을로 조씨가 사는 마을이어서 일명 '조계곡(曹溪谷)' 이라고도 한다.

연수리(延壽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연안리와 장수리를 합쳐 이 지역 명칭을 따서 연수리로 일컫게 되었고, 이때 용문면에 속하게 되었다.

귀골 연안 서북쪽 마을로 다시 되돌아가는 지형에서 유래함.



용문면 연수리 백운봉

상원(上院) 상원암이 있는 마을.

서낭당 새터말 북쪽의 서낭당이 있던 마을.

솔골 배남 남쪽의 소나무가 많던 곳.

윤필암지 상원암 북서쪽 암자로 고려 중엽에 비구니였던 묘덕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윤필귀
운(潤筆歸雲) 용문팔경 중 하나로 지금은 터만 남았다.

장수골 연수리의 으뜸 마을로 오래 사는 이가 많다고 전해 온다.

장승배기 장승이 서 있던 들.

탑선이들 탑이 서 있던 마을.

태을암(태람골) 암자가 있던 곳.

흑고개 연안에서 오촌리 샘말로 넘는 붉은 흙이 나오는 고개.

백운봉 이곳에 형제 우물이 있다. 백운낙조(白雲落照) 용문팔경 중 하나이고 언제나 흰 구름
이 감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오촌리(梧村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간촌리, 답곡리, 오리, 신촌리 일부를 합쳐 이 지역들 중에 오리와 신촌리 두 곳 지명을 딴 이름이 오촌리로, 용문면 편입시켰다.



용문면 중원리 중원폭포

간촌(間村) 오촌리에서 으뜸 마을로 일명 '셋말' 이라고도 한다. 오리골과 괴사리 사이에 있다.

논골 셋말의 서남쪽 골짜기의 마을로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오리골 셋말 남동쪽 마을로 오리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조현, 덕촌, 신점리가 이 마을에서 각각 5리가 된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는 말도 있다.

조현리(曹峴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적현리, 장평리, 막곡리, 조좌리와 운계리, 오리의 각 일부를 합쳐 조좌리와 적현리의 두 지명 글자에서 따서 조현리로 하고 이에 용문면 소속이 된 마을이다.

붉은고개①(부름개) 조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붉은고개 밑. 이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붉은고개② 조지랑골에서 중원리 소따배기로 넘는 고개.

조동(曹洞, 조지랑골) 막동 북쪽 마을로 조선시대 때 좌랑 벼슬을 지낸 이가 은거한 데서 유래된 지명.

중원리(中元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현리, 하현리와 하망리, 두릉리의 각 일부를 합쳐 중원산 아래가 되므로 중원리라 부르면서 용문면으로 편입된 고장이다.

강이대(江伊垓, 갱이터) 중땀 동남쪽 마을로 개울 건너에 집터가 있었다 한다.

부처개 돌부처가 있는 골짜기.

여수고개 솔밭에서 망룡리 안말로 넘는 고개로 여우가 많이 나타났던 곳.

오얏벌 아랫가마울 남쪽의 오얏나무가 많은 마을.

중원폭포 옷가마울 북쪽의 폭포. 장군바위엔 손자국이 새겨져 있으며, 용문팔경 중 하나이다.

한새나무골 철분이 든 약수(藥水)가 나는 골짜기.

화전리(花田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꽃길, 궁말, 여촌리, 전곡리, 마장말, 동촌을 합쳐 꽃길과 전곡 두 곳의 지명을 본떠서 화전리로 부르게 되었고, 이에 용문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다.

궁말[宮村] 화전리에서 으뜸 마을로 뒷산에 효종의 셋째 따님인 숙안공주의 무덤이 있다.

남양골[餘村] 궁말 북쪽 마을로 일명 '나망골' 이라고도 한다. 남양 홍씨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동촌말(東村-) 궁말 동쪽 마을로 근년에 은여우 사육목장이 생겨 '여우고개' 로도 불린다.

마장말 말등바위가 있는 마을.

전곡 마장말 북쪽의 마을. 여기에 나무가 있으며 장이 썼고, 전곡역을 왕래하던 곳. 이곳의 개울을 전곡천이라 함.

전나무배기 남양골 남쪽 전나무가 있는 산.

11. 지제면

지제면(砥堤面)은 군내의 동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면사무소는 지평리에 있다. 원래 고구려의 지현현(砥峴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지평현으로 개칭하여 삭주군 영현이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또다시 광주에 속했다. 1378년(우왕 4) 유모 장씨의 고향이라 하여 감무(監務)까지 둔 적도 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철장을 변경에 설치하고 감무를 두어 운영을 겸

임케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현감을 두었고 1685년(숙종 11)에 양근군에 속하다, 다시 지평현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08년 양근군과 합병되면서 남면, 하동면, 군내면 일부를 합해 지체면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동쪽은 양동면, 서쪽은 개군면, 북쪽은 용문면과 인접하고 남쪽은 여주면 북내면·대신면과 경계를 이룬다. 문화재로 수곡서원, 지평향교, 권경우 묘 등이 있다.

곡수리(曲水里, 당아실, 당아, 곡수)

본래 지평군 남면지역으로 개울물이 마을 전체를 휘돌아 흐르므로 곡수, 당아실로 전해졌다. 한자어로는 '곡수(曲水)라 하였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발리, 당의리, 대사리 일부와 여주군 대신면 곡수동, 산촌의 각 일부가 합쳐져 곡수리가 되었다.

당아실 곡수리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이 마을 위에는 망곡당(望哭堂)이 있어 관리인이 주재하였으므로 '당아(堂衙)'라 한 데서 연유한 듯하다. 이곳 당집이 위아래로 있는데 그곳에서 당제를 지낸다.

삼가촌 '세집터'로도 불리며 새터골 동쪽의 세 집이 살았다고 한다.

대평리(大坪里)

본래 지평군 남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평장리, 배잔리, 대사리의 일부를 합치면서, 특히 대사리와 평장리 두 지역의 지명을 합친 글자에서 대평리로 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고총재(古塚-) 닷절 북쪽의 옛 무덤이 많은 산.

닷절 평론 서쪽 마을로 큰 절이 있었다.

배잔(盃盞) 대평리에서 으뜸 마을로 중앙에 있는 산이 술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

세번덩 세모 모양의 버덩.

썰매길 산이 가팔라 땀나무나 목재를 썰매로 끌어내리던 산골짜기.

앞남 배잔 앞산의 낭떠러지.

삼태봉 이곳 저수지 위쪽으로 태봉이 세 군데 있었으나, 지금은 두 곳에 남아 있다.

망미리(望美里)

본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론리, 석불리, 신대리를 합쳐 망미산 밑의 마을로 망미리라 하면서 지제면에 편입시켰다.

섬부리 망미리에서 으뜸 마을로, 돌부처가 서 있다.

무왕리(茂王里)

본래 지평군 하동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상초리, 하초리, 초왕리, 무촌리를 합쳐 이 중에 무촌·초왕의 두 고을 이름을 본떠 무왕리라 하여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거치리[茂村] 초왕골 남서쪽 마을로, 해발 542m 높이로 잡초와 수목이 많아 일컬어진 지명. 모래섬 무왕리에 있는 마을로 모래섬으로 되어 있다.

삼밭골 삼밭이 있었다는 골짜기로 일설에는 박식한 세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었다고 하는데 억측인 듯하다.

숫돌봉(수리봉) 숫돌이 채석되는 산.

초내 초왕골 북쪽의 마을로 온갖 풀이 많다.

초왕골굴(구둔터널, 황새고개굴) 초왕골 동쪽의 중앙선 기차 터널. 한국전쟁 당시 지평리 전투 중 쌍굴작전이 전개된 곳.

송현리(松峴里)

본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송정리, 전곡리, 산현리, 여촌리의 각 일부를 합쳐 송정과 산현의 두 고을 명칭을 따서 송현리로 하고 지제면에 편입시켰다.

미나리골 미나리가 많았던 들.

바가미(박암, 박의암) 역말 북쪽의 마을로 소나무 정자와 넓은 바위가 있었다.

쌍구바우 역말 서북쪽 갈자산 바위로 거북이 엮힌 형상.

전곡역터 역말에 있었던 평구도찰방(平丘道察訪)에 딸려 있던 터로 1896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수곡리(水谷里, 물골, 묵골, 수곡)

원래 지평군 남면 지역으로 물이 많아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어은리, 칠성리, 신대리, 통로리, 사창리, 오포리, 오종리와 여주군 대신면 전후곡리 일부를 합쳐 수곡리라 하면서 지제면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사창 묵골 남서쪽 마을로, 예전 사창(社倉)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

어은(漁隱) 칠성골의 동쪽 마을로 마을 앞 연못에 물고기가 숨어산다는 의미가 담긴 지역이라 한다. 지금은 저수지가 있다. 수곡서원이 있다.

오종개(梧宗蓋, 五宗家, 오징개) 사창의 동남쪽 마을로 경주 최씨가 살던 곳이며, 은행나무가 있다.

칠성골(七星-, 七亭-) 통로 북쪽의 마을로 예전엔 우물이 7개 있었다고도 하며, 일설에 따르면 7가구 각기 다른 성씨가 사는 마을이란 이야기도 구전한다.

통로(通爐) 묵골의 북쪽 마을로 밤벌에서 안말로 지나는 곳이며, 예전엔 옹기집이 있었다고 한다.

옥현리(玉峴里)

원래 지평군 남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삼상리, 주회리, 옥구리, 송현리, 광양리, 조곡리를 합쳐 이 가운데 옥구리와 송현리의 두 지역을 합친 이름에서 합성시킨 지명으로, 옥현리로 정한 후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고려 때 철장이 있었던 곳이다.

가루매[葛陰] 고양이 남서쪽 마을로 지형이 갈림길목이어서 생긴 지명. 칠보산 아래.

갈골[葛谷] 삼상개 남쪽 마을로 지명 유래가 일정치 않다. 갈무리 또는 메마른 곳 등으로 풀이하나 한자 어원은 마을 주변의 산에 칙닝쿨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고양이 옥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높은 산에 해가 떠올라 비친다는 지명 유래가 있으며, 변이음으로 '괘이' 또는 '고양이'가 된 듯하다.

부일(浮日) 사일 서북쪽 마을로 해가 일찍 뜬다 하여 일컬어진 지명.

사일(사실) 고양이 서쪽 마을로 해가 일찍 진다 하여 붙여진 지명.

삼상개(三湘-) 옥구촌 남서쪽 마을로 세 갈래 물또랑이 함유한다는 뜻.

오리골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

옥구촌(玉鉤村, 玉丘村) 가루매 남쪽 마을로 옥돌 같은 석회석 광산이 있는 곳.

장승배기 장승이 있었던 들.

주령골[柱令谷] 옥구촌 서쪽 마을로 골짜기를 따라가며 주령주령 마을을 이루었다는 뜻.

하우개고개 광양에서 지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곳에 지평관아가 있을 때 세운 하마비가 있다.

월산리(月山里)

원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거산리, 평장리, 상취암리, 하취암리, 월파리, 산현리, 궁상리 일부를 합쳐 월파리와 거산리 두 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월산리로 만든 후 지제면 소속 마을로 편입시킨 지역이다.

구례골(계산이) 월파 서북쪽 마을로 앞산 지형이 계(壑)와 같다고 해서 생긴 지명.

금의(錦衣, 거미) 평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학자였던 이근원 선생이 금의환향하여 은거했으므로 붙여진 지명. 일설에 의하면 금위영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월파(月坡) 월산리서 으뜸 마을로 달 밝은 밤에 하천 물결이 아름답게 파도친다는 뜻이 구전된다.

취암(翠岩) 월파 동남쪽 마을로 산에 있는 바위가 푸른 색깔을 띠고 있으며, 옛 지명은 '너시락'이라고도 한다.

평장(平章) 취암 남쪽 마을로 전주 이씨의 선조인 선교랑공이 은거하던 아늑하고 평화로운 의미의 지명이며, 일설로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가 살았다는 곳.

일신리(日新里)

본래 지평군 하동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금동리, 지산리, 구둔리, 신촌리, 노일리를 합쳐, 이 지역 중에서 노일리와 신촌리의 지명을 따서 일신리라 하고 지제면에 편입시켰다.

구둔(九屯) 일신리에서 으뜸의 마을로 예전에 이 고개에는 군대가 주둔하며 전투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중앙선 구둔역이 있으며 초등학교가 있다.

먹방이 노일 북쪽의 마을로 예전에 먹을 만들던 깊은 산골짜기.

못저리 거문골 동쪽의 마을로 연못이 있었다. 여기에서 장승제를 지낸다.

지평리(砥平里, 지평읍내, 읍내, 지평)

원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지평 읍내가 되므로 지평



지제면 지평리 지평저수지

읍내로 칭하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조치에 의거하여 간현리, 마산리, 월상리, 장대리, 월하리, 교촌리, 궁하리를 합쳐 지평리라 하면서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배암산 홍수 때 배를 맨 바위가 있다고 한다.

버습구지(여촌) 지평 서쪽의 마을로 보습처럼 생긴 곳.

월하(月下) 읍내 남쪽 건너 마을.

장군바위 장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장터 월하 서쪽의 시장이 있는 곳. 면사무소, 농협, 지서, 우체국 등이 있다.

지평저수지 지평 동쪽의 저수지.

관교 옛날 지평관아와 향교가 있던 곳.

향교말[校村, 官校] 지평 북쪽의 마을로 지평현의 향교가 있다.

12. 청운면

청운면(靑雲面)은 군내의 동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1688년(숙종 14) 지평군 상북면(上北面)이었다가 장둔면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조선 말기에 역졸들이 많이 숨어 장기간 살았으

므로 '장둔면'이라 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 병합에 따라 상북면 일부와 하북면 일부가 합쳐지고 청운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청운면은 철산유수 벼슬을 지냈던 신재정이 면 전체를 돌아본 후 「청운팔경(靑雲八景)」이란 시를 지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전한다. 북쪽은 강원도 홍천군 남면과 인접하고 있고, 동쪽은 횡성군 서원면, 남쪽은 양동면, 서쪽이 단월면과 연결하고 있다. 문화재로 청선공주묘, 전주이씨효자정려가 있다.

가현리(加峴里, 벗고개, 가현, 내현)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조치에 따라 말가리, 평촌리, 벗고개의 각 일부를 합쳐 이 지명 중에서 말가리와 벗고개의 고개 현(峴)자를 본떠 가현리로 칭하면서 청운면에 편입되었다.

끝벗고개[末加] 벗고개 아래쪽 마을로 옛날에 어령청(禦令廳) 소속의 마가실(馬加室)이 있어 연유된 곳. 여기에 초등학교 가현분교가 있었다.

벗고개 가현리에서 양동면 금왕리로 넘는 큰 고개로 벗나무가 많이 있다.

삼마골 제빈산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엔 화전민이 살았고, 일명 '산막골(山幕—)'로도 불린다.

갈운리(葛雲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갈리, 하갈리, 몰운리, 아시리 일부를 합쳐 이 중 하갈리와 몰운리 두 지역 명칭을 따서 갈운리로 만들었고, 청운면에 편입시켰다.

가루개 갈운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칩이 우거졌다고 한다. 갈운초등학교가 있다.

느릅정들 느릅나무 정자가 있었던 들.

도덕고개(도둑고개, 도덕현) 증안에서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으로 넘어가는 높고 험한 고개. 옛날 이곳에 도둑이 자주 출몰했다고 한다.

몰운(沒雲) 아시 남쪽 마을로 양쪽 산이 높아 구름에 자주 가려진다는 뜻.

아시(兒柴) 아랫가루개 서쪽 마을로, 이곳에 의병장 김백선 공의 묘소가 있다.

증안골(曾安-) 증골 안쪽의 마을로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다는 뜻의 지명유래가 있다. 일명 '증안이골'로도 불린다.

질마재 질마처럼 생긴 산.

다대리(多大里, 새암말, 신양촌, 다대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황정리, 유곡리의 각 일부를 합쳐 다대리라 하고 청운면에 편입시켰다. 동굴레차를 가공하고 인삼을 재배한다.

구능(舊陵) 다대교 동남쪽에 있는 고분.

옷물탕 옷 오른 데 신효하다는 샘물터.

도원리(桃源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재리, 풍류산, 풍수원을 합쳐 무릉도원과 같이 풍광이 수려하여 도원으로 칭하게 된 곳이다. 지금도 마을의 바위에 '무릉도원(武陵桃源)'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강릉골 풍수원골 남쪽 마을로 강릉으로 가는 길목임.

떡갈무기고개(덕갈고개) 승지골에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떡갈무기로 넘는 고개.

마암사(馬岩寺) 승지골 동쪽의 절로 1955년 안대길이 창건하였다.

승지골[聖才洞] 도원리에서 으뜸 마을로 예전에 영남선생 문하에서 많은 문재(文材)가 배출되어 지어진 지명이라 한다.

비룡리(飛龍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노음리, 교동리, 도청리, 율리, 평촌리 일부를 합쳐 비룡산 아래 지역으로 비룡리라 불리지면서 청운면 소속의 마을이 되었다.

다리골(橋洞) 평촌 서쪽의 마을로 다리가 있어 생긴 지명.

도독놈의 터골 도독이 살았다는 골짜기.

도청 다리골 남서쪽의 마을로 장둔면 당시 각 청의 창고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되뿌령소 평촌 북동쪽의 늪.

밤골 도청 남동쪽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다.

부채산 돌부처가 있는 산.

어룡골[禦龍] 비룡산 아래 개울가로 어령청 남관이 머물던 곳이라 한다.

운수골 수로로 물자를 나르던 나루터라고도 전함.

점말(店-) 평촌 남쪽의 용기점이 있었던 마을.
황새울 비래리에서 황새가 많이 서식했던 골짜기.
장터 옛날 이곳에서 백동까지 장이 섰던 곳이라 전한다.

삼성리(三聖里)

원래 지평군 상북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유곡리, 신당리, 고론리 일부를 합쳐, 세 성인(聖人)을 모신 신당(神堂)이 있으므로 삼성리라 불렀고, 청운면에 편입되었다. 삼성리의 유래가 서·박·남 세 성씨만이 살았던 곳이란 설도 있으나 신빙성은 희박하다. 치커리 차를 가공하고 치커리와 인삼을 재배한다.

건너버덩 유곡 건너편의 들.

곳집거리 곳집(庫-)이 있는 골짜기.

구승골 유곡 동남쪽 마을로 뒷산엔 금광이 있었고 일명 '구성골(九姓-)'이라 불리기도 한다.

느릅실[楡谷] 삼성리의 으뜸 마을로 참나무쟁이인 느릅나무가 많아 연유된 지명.

정자골 신당 서쪽의 마을로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정자가 있다.

참나무재이 유곡 남쪽의 마을로 참나무가 많았다.

신론리(新論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대리와 고론리, 신당리의 각 일부를 합쳐 이 중 신대리와 고론리 두 고을의 지명에서 글자를 따서 신론리라 하면서 청운면에 편입시킨 곳이다. 골짜기가 깊은 고장이다.

고론(古論) 신론리의 으뜸 마을로 마을을 형성할 초창기에 서로 의논한 데서 연유된 지명이라 한다.

밤나무고개 아랫고론 북동쪽 마을로 밤나무가 있었다.

삼선당 웃고론 서북쪽의 마을 위 산봉에 있던 것을 아랫고론 다리계로 옮겨서 매년 산신제를 지낸다.

용소(龍沼) 고론 서쪽에 있는 소로 여기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기우제, 풍우제를 지낸다.

터굴 골짜기로 집터가 있음.

여물리(餘勿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물이 많고 곡식이 잘되는 곳이어서, 여기에서 지명 유래가 전해 온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북면 말가리 일부를 합쳐 예전부터 전해오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청운면에 편입되었다. 옛날엔 장둔면, 북면, 홍천군의 서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이곳에 곡식이 쌓여 있다는 데서 지명이 연유되었다고도 한다.

논골 절골 동쪽의 골짜기에 논 있는 곳.

백동고개 여물에서 단월면 덕수리 백동으로 넘는 고개.

작은둔배이 작은 둑병이 있는 들.

통골고개 여물에서 단월면 명성리 통골로 넘는 고개.

용두리(龍頭里, 용두, 용머리)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 지형이 용머리처럼 생겨 일컬어진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황정리, 말가리, 아시리의 각 일부를 합쳐 종래의 용두리란 지명을 쓰며 청운면에 소속되었다.

세기바위 석이버섯이 나는 바위.

안산(案山) 용머리의 앞산.

원머루 용머리 남서쪽 마을로 갈분천과 다대리 물이 합쳐지는 지역.

은구비(隱九非, 움구비) 황정들 동남쪽 마을로, 갈운천 냇물이 구비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

장터 용머리 동쪽의 시장이 서는 곳.

황정들(黃庭-) 용머리 동쪽의 마을로 가을 곡식이 잘 익는 곳이라 한다.

제5장 양평의 문화재와 유적

제1절 국가지정 문화재

제2절 경기도지정 문화재

제3절 군지정 문화재



여 백

제1절 국가지정 문화재

양평군 지역에는 2003년 현재 총 61개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1개, 천연기념물 1개가 있다. 경기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7개, 무형문화재 1개, 기념물 7개, 민속자료 2개, 문화재자료 7개 등 총 24개이다. 향토유적은 총 35개가 지정되어 있다.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및 비

□ 지정번호 : 보물 제531호

□ 소재지 : 용문면 신점리 산99-6

용문사 경내에서 약 300m쯤 떨어진 곳에 정지국사 부도가 있고, 거기에서 다시 약 80m가량 되는 곳에 비가 있다.

정지국사 부도는 상륜부 이외에는 기단과 탑신, 옥개가 완전하게 남아 있는데, 현재 높이는 215cm이다. 지대석은 방형이다. 기단부는 하대·중대·상대로 구성되었는데, 평면으로 보면 각 부분은 형태가 달라 하대석은 사각형, 중대는 원형, 상대석은 팔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왼쪽)와 탑비(오른쪽)

각형이다. 옥개석과 탑신석으로 이루어진 탑신부는 팔각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팔각원당형의 부도양식을 따르고 있다. 양식으로 볼 때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부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으나, 그 형식을 따르고 있다. 화려하고 세련된 작품은 아니나 단아한 기품을 지닌 조선 초기 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도는 미지산(彌智山, 현 용문산)에 조안 등이 세운 것이며, 비는 1398년(태조 7) 당시

학자이며 명신이었던 권근의 글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정지국사 부도비는 받침돌과 비신만 있는데, 높이 110cm, 너비 60cm, 두께 20cm이다. 특히 비신의 상부 좌우 모서리 부분을 깎아낸 이른바 규형으로 조선시대에 유행한 비갈(碑碣)형이다.

정지국사(正知國師, 1324~1395)는 고려 말의 고승으로 호는 축원(竺源), 속명은 김지천(金智泉)이다. 1324년(충숙왕 11)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19세에 장수산 현암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1353년(공민왕 2) 30세에 무학대사와 함께 중국 연경에 들어가 법원사의 지공을 찾아보고 그에게 법을 이어 받은 나옹선사에게 사사하였으며, 그뒤 함께 각지로 다니며 수도하다가 1356년(공민왕 5)에 귀국하였다. 벼슬이 싫어 몸을 숨기고 수행에만 힘쓰다가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하였는데 화장 후 많은 사리가 나왔다. 후에 정지국사로 추증되었다.

용문사 은행나무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30호
- 소재지 : 용문면 신점리 산99-1



용문사 은행나무

이 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된 것으로 용문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나무는 나이가 1,100여 년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60여m에 줄기의 가슴 높이가 둘레가 12.3m를 넘어 동양에서는 가장 큰 은행나무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의 스승인 대경대사를 찾아와서 심은 것이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도 하고,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 이처럼 성장한 것이라고도 한다. 많은 전란으로 사찰은 여러 번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의병의 본거지라 하여 사찰을 불태

위버렸다. 그러나 이 은행나무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 천왕목(天王木)이라고도 불렸다. 조선 세종 때는 정3품보다 높은 벼슬인 당상직첩(當上職牒)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 나무에는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자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쳤기 때문에 중지하였다 한다. 또한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때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데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 하나가 부러졌고, 8·15해방과 한국전쟁 때에도 이 나무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제2절 경기도지정 문화재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2호

□ 소재지 : 옥천면 용천리 304

이 석종탑은 산신각 바로 서남쪽 옆에 자리하고 있다. 자연석으로 축대를 만들고 그 중앙부에 석종을 안치하고 있다. 석종의 구성을 보면 지대석 위에 네모꼴의 대석을 놓고 그 위에 탑신을 봉안하고 있다. 지대석은 땅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사나사의 이 원증국사 석종은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시대에 걸쳐 널리 유행한 부도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석종형 사리탑은 대석의 조성양식이나 무늬를 새긴 조각기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 말기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사리탑의 겉에는 아무런 명문이 없으나 원증국사 석종탑으로 전해오고 있다.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

총높이 275.5cm, 대석의 한 변의 길이 107cm, 높이 21.5cm, 탑신받침의 원좌의 지름 78cm, 탑신 높이 122cm, 보주의 높이 33cm이다.

원증국사는 고려 말기의 고승 보우로 호는 태고, 시호는 원증, 탑호는 보월승공이다. 원증국사는 13세에 회암사 광지선사에 의해 중이 되었다. 1325년(충숙왕 12)에 선과에 급제하였으나 명리를 버리고 감로사에서 고행하였으며, 삼각산 중흥사 동봉에 절을 짓고 태고사라 이름하였다. 1346년(충목왕 2)에 원나라에 가서 청공의 법을 이어받아 임제종의 19대 법손이 되었다. 1348년(충목왕 4)에 귀국하여 소설암에서 수도하고 왕사·국사가 되었으며 소설암에서 입적하였다.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3호

□ 소재지 : 옥천면 용천리 304



사나사 원증국사 석종비

이 비석은 현재 경내 함씨각과 산신각 사이의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비신 높이 103cm, 너비 67.5cm, 두께 3.8cm이다. 비좌를 따로 만들어 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위쪽을 평평하게 다듬어 그 위에 비신을 세웠다. 땅속에 깊이 묻혀 있고 일부만 땅에서 솟은 바위는 대석과 비좌의 몫을 맡고 있다.

또한 비신의 돌은 검은빛의 점판암이며, 전면에는 상단부분에 “圓證國師石鍾銘”이란 7자가 전서체로 큼직하게 가로로 음각되어 있다. 위쪽에 균열이 있고 여러 곳에 깨져 나간 부분이 있어 현재로는 비문 전체를 읽기가 어려우나 비문은 정도전이 지었고 글씨는 재림사(梓林寺) 주지인 선사 환문(諡聞)이 썼으며

1386년(우왕 12) 문인 달심(達心)이 세웠다는 사항들을 대개 알 수 있다.

이항로 선생 생가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 소재지 : 서종면 노문리 535-6

성리학자 이항로(李恒老, 1792~1868)가 살던 집으로, 조선 말기 선비의 살림집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항로의 자는 이술(而述), 호는 화서(華西)이며, 1808년(순조 8) 한성시에 합격하였고 후에 학문과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는 주전론을 적극 주장하였고 공조참판 우부승지를 지냈으며 내무대신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문집으로 『화서집(華西集)』이 있다. 이 집은 선생의 부친 때 지은 집으로 선생이 탄생하여 일생을 보낸 곳이며 양헌수, 김평묵, 유중교, 최익현, 유인석, 홍재학 등 많은 선비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던 곳이다.



이항로 선생 생가

이호민 영정 외 일괄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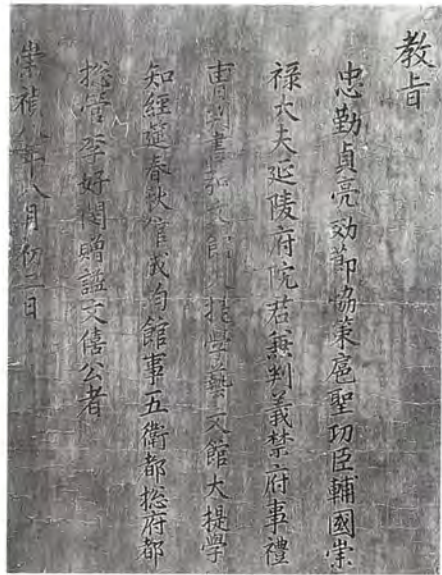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4호

□ 소재지 : 옥천면 신북리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연(孝彦), 호는 오봉(五峯), 본관은 연안(延安),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다. 1579년(선조 12) 진사, 1584년(선조 1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동지중추부사·대제학·예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선생의 영정은 임진왜란 때 왕을 호위한 공으로 1604년 호성공신 2등으로 책록되던 당시에 그려진 초상화이다.



이호민 영정



이호민 교지(위쪽)와 교지함(아래쪽)

시호교지는 문화공 시호교지와 1604년(선조 37)의 윤 부인과 허 부인에 관한 내용으로 두 부인의 교지는 공의 호성공신 책록과 부원군 진봉시 함께 받은 것이다. 영정함과 교지함은 배나무에 삼베를 입히고 옷칠을 한 것으로, 17세기 초 목공예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영정 외 일괄 유물은 그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 소재지 : 개군면 상자포리 36-1

개군면 상자포리 새터마을에서 약 1.5km 파사산의 북쪽 산록을 따라 올라가면 산봉우리가

까이 거대한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병
 풍바위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5.5m에 이르
 는 불상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아래 부분이
 많이 마모되고 손상되어 있다. 여래상으로 머
 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가 있고 입술은 얇은 미
 소가 어려서 둥근 얼굴에는 자비가 흐른다. 조
 각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불상 양식을 잘
 답습한 고려 중기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불상이 새겨진 바로 남쪽
 아래 산중턱 약 50평의 대지에 자연초석이 문
 혀 있고 기와조각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에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용문사 금동 관음보살좌상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 소재지 : 용문면 신점리 625

용문사의 관음전에 모셔진 관음보살로, 청동으로 만든 뒤 금칠을 하였다. 관음보살은 현실
 세계에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머리에는 나무로 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리본처럼 묶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있다. 원만한 얼굴에는 눈·코·입이
 작게 표현되어 있으며, 상체는 뒤로 약간 젖혀져 있다. 온몸에는 화려한 구슬 장식이 드리워
 져 있어, 당당하면서도 화려한 귀족적 분위기가 느껴진다. 전형적인 고려 후기 보살상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조선 초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평리 삼층석탑

□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 소재지 : 지제면 지평리 지제초등학교 내

출토 위치는 불확실하나 지평리에 있던 사찰 내의 불탑으로서, 1층 옥신 4면에 서로 다른
 문양의 좌불상을 1구씩 양각하였으며, 2층 옥신은 결실되어 다른 돌이 얹혀져 있다. 3층 옥



지평리 심충석탑

신의 보주가 없어졌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탑신석에 사면불을 부조로 새긴 점, 옥개석의 양식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양평 상여·회다지 소리

- 지정번호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
- 소재지 : 양동면 삼산리 630-3
- 기능보유자 : 최원산

양동면 석곡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른다. 상여꾼이 부르는 상여소리와, 장지에 당도하여 하관하고 흙과 회를 붓고 세 번 회다지를 하는 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상여·회다지 소리 보존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60여 명의 회원이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노산사지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43호
- 소재지 : 서종면 노문리 산69-7



개간된 노산사

서종면 노문리 벽계마을에 있는 100여 평의 노산사지(蘆山祠址)는 화서 이항로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그의 높은 학덕을 기리는 곳으로, 벽계마을의 이항로 생가에서 동쪽으로 약 50m 정도 떨어진 야산 언덕 위에 정남향으로 있다. 이 사우는 1954년 유림들이 건립하고 주자, 우암, 화서 세 선생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능선을 따라 올라서면 네모난 담장의 중앙에는, 좌우에 기둥 2개씩을 세우고 지붕을 이은 일각대문을 세워놓고, 그 안에 남향하여 사당을 세웠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1칸 반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과 비슷한 맞배지붕이다.

유관 선생 묘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62호

□ 소재지 : 강하면 동오리 산157

여말 선조의 문인인 유관(柳寬, 1346~1433) 선생의 묘이다. 유관 선생의 자는 경부(敬夫)이며, 호는 하정(夏亭)이다.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선이 건국되자 개국원종공신이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태종 때에는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하며 『태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1424년(세종 6)에는 우의정에 올라 『고려사』를 교정하였으며, 청백리 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하정집』이 있다.



유관 선생 묘

묘역의 규모는 약 250평 정도로 부인의 묘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봉분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둘레는 호석을 둘렀는데 재료는 화강암이다. 봉분 앞에는 각각 묘비와 상석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장대석으로 단을 횡으로 쌓아 구분하였다. 단 아래에는 중앙에 장명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선생의 묘소는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분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신도비는 묘소 아래에 있고, 비문은 신석우가 짓고 김홍집이 글씨를 썼으며, 비의 규모는 높이 233.5cm, 폭 67.5cm, 두께 24.5cm이다.



한음 이덕형 선생 묘



한음 이덕형 선생 신도비

한음 이덕형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89호

□ 소재지 : 양서면 목왕리 산82

조선 선조 때 문신인 이덕형(李德馨, 1561~1613) 선생은 1580년(선조 13)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1592년(선조 25)에 예조참판이 되어 대제학을 겸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대동강에 이르러 화의를 요청하자, 선생은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 대의로써 그들을 공박하였다. 그뒤 정주까지 왕을 호위하였고, 명나라에 파견되어 지원군 요청에 성공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난 해에 우의정·좌의정이 되어 전후의 사태를 수습하였으며, 1602년 영의정에 올랐다. 1613년(광해군 5)에 영창대군의 처형과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사직하고, 그뒤 양근에 내려가 국사를 걱정하다 병으로 죽었다.

부인 한산 이씨와의 합장묘이며,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봉분 아랫부분에 돌레석을 들렀다. 묘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있고, 묘비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동자상과 문인석이 1쌍씩 있다. 묘역 아래 300m 지점에 신도비가 있는데, 1653년(효종 4)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조경이 지은 것이다.

이순몽 장군 묘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92호
- 소재지 : 개군면 공세리 산28-3

이순몽(李順蒙, 1386~1449) 장군은 1417년(태종 17) 무과에 급제한 후 1419년(세종 1) 우군절제사로 대마도 정벌에 나가 대승을 거두었고, 1425년 중국 선종이 즉위하자 이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1433년 중군절제사가 되어 과거장의 야인을 토벌하여 그 공로로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434년 경상도 절제사, 1447년 영중추원사를 지냈다.



이순몽 장군 묘

장군의 묘는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칠읍산 능선 아래에 있다. 묘는 2개의 봉분으로 부인과의 합장묘이며,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여 무덤을 보호하는 둘레석을 2단으로 둘렀다. 이러한 묘의 형태는 고려의 양식을 이어받은 전형적인 조선 초기 양식이다. 장군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이 있고, 오른쪽 부인 묘 앞에는 묘비 없이 상석만이 있다. 묘 앞에는 문인석이 좌우로 2쌍 배열되어 있다. 묘비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뒷면에 있는 기록을 통해 1509년(중종 4)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준경 선생 묘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96호
- 소재지 : 양서면 부용리 산35-1

조선 초기의 문신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 1499~1572) 선생의 묘소이다. 그는 1531년(중종 26) 문과에 급제하였고 1533년 홍문관 부수찬이 되어 기묘사화 때 죄를 받은 선비들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권신 김안로 일파의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뒤에 다시 등용되어 여러



이준경 선생 묘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1550년(명종 5) 영의정 이기의 모함을 받아 보은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석방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이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565년(명종 20)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 명종이 죽자 선조를 왕으로 세우고 국정을 보좌하였다. 이때 기묘사화로 죄를 받은 조광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을사사화로 억울하게 유배생활을 한 노수신 등 인재를

석방하여 다시 등용하는 공적을 세웠다.

이준경 선생의 묘는 부인과 함께 장사지낸 합장묘이며, 긴 돌을 이용하여 봉분 아랫부분을 둘렀다. 묘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있으며,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고, 좌우에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망주석·문인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근래에 세운 것인데, 원래의 비문은 노수신이 지어 1585년(선조 18)에 세운 것으로 마모가 심해 수원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

함왕성지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23호

□ 소재지 : 옥천면 용천리 산27

함왕성지(咸王城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줄기 남서쪽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성으로, '양근성' '함씨대왕성' '함공성'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쌓은 성곽의 길이는 약 8,805m라고 전해지나 현재는 700m 정도 남아 있으며, 성벽은 높이 1.6m 안팎이고 북·서쪽의 성곽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북동쪽에는 건물터로 보이는 곳이 있으며 그 주변에 주춧돌로 보이는 큰 돌과 기와조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성 아래에는 성공혈이라는 큰 바위굴이 있는데 여기서 원삼국시대 함왕 주악(周鏹)이 탄생하였으며,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부근을 정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의 4차 침입이 있을 때 몽고군이 쳐들어오자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신하였다는 옛 기록이 남아 있다. 북동쪽의 건물터에서 서쪽을 보면 한강 건너 백병산이, 가까이는 양평읍과 옥천면이 한눈에 들어와 지형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함왕성지 전경

강맹경 묘역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54호

□ 소재지 : 옥천면 신복리 산301

조선 전기의 문신 강맹경(姜孟卿, 1410~1461) 선생의 묘소이다. 그는 1426년(세종 8)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429년에 병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 제학, 의정부 우참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1459년(세조 5)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좌익공신 2등에 책정되고 진산부원군에 봉해졌다.



강맹경 묘역

묘역은 크게 봉분·묘비·상석이 있는 부분과 장명등·문인석이 있는 부분으로 구분되며,

오른쪽 무인석 뒤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산속주가 글을 짓고 강희안이 글씨를 써서 1462년(세조 8)에 세운 것이다.

김병호 고가

□ 지정번호 : 경기도 민속자료 제5호

□ 소재지 : 용문면 오촌리 181



김병호 고가

1893년(고종 30)에 지은 집으로, 고종의 내시로 지내던 이가 물러나면서 왕의 하사금을 받아 세웠다고 한다. 안채와 바깥채가 전체적으로 ㄱ자형이다. 바깥채는 지붕과 벽체 등을 개조하였으나, 안채는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는 왼쪽부터 건넌방·대청·안방이 있고 안방에서 앞으로 꺾여 부엌이 있다. 특이한 것은 건넌방의 옆으로 2칸을 덧달고 뒷마루

를 놓아 사랑방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제일 끝에 있는 온돌방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경기지방의 중류 농민계층의 가옥으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중인계층이 대두되고 신분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지방 부농계층들이 점차 사대부가의 가옥구조를 따르던 조선 후기 건축물 중 하나이다.

창대리 고가

□ 지정번호 : 경기도 민속자료 제7호

□ 소재지 : 양평읍 창대리 203-7

약 200년 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이 집은, ㄱ자형의 안채는 대청마루와 안방이 직각으로 꺾여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 안방·대청·건넌방까지 모두 앞쪽에 뒷마루가 있는데, 뒷마루

역시 직각으로 꺾이면서 각 방을 연결하고 있어 보기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건넌방 쪽 지붕의 옆면에는 기와조각을 중간중간에 쌓아 아름답게 꾸몄다. 사랑채는 안채 남쪽에 따로 지었는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조선 후기 경기도지방의 전형적인 중상층 농촌가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창대리 고가

운계서원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8호

□소재지 : 용문면 덕촌리 산4-2

조선 명종 때 학자인 조옥(趙昱, 1498~1557)의 뜻을 기리고자 세운 서원이다. 조옥은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참봉을 지냈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용문산에 들어가 후학을 가르쳐 '용문 선생'이라 불렸으며, 글과 그림에도 능하였다. 운계서원(雲溪書院)은 1654년(효종 5)에 제자들이 세웠으며,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다가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지었다고 한다.



운계서원

현재 서원에는 재실 1채와 사당만 남아 있다. 사당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안쪽에는 조옥 외에 다섯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양근향교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호

□ 소재지 : 옥천면 옥촌리 817-1



양근향교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양근향교(楊根鄕校)는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때 지었으나, 지금 있는 건물들은 뒷날 새로 고쳐 세우거나 보수하여 그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다. 전체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와 서재,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둔 전학후

묘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은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이다. 기숙사인 동재·서재는 각각 앞면 4칸·옆면 1칸 규모에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동무·서무 앞면 3칸·옆면 1칸 규모에 지붕을 역시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지평향교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0호

□ 소재지 : 지제면 지평리 343

지평향교(砥平鄕校)는 1773년(영조 49)에 지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기록은 없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제사 공간인 대성전, 그리고 출입문 구실을 하는 외삼문·내삼문 등이 있다. 대성전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며,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던 곳인 명륜당은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이다.



지평향교

용천리 삼층석탑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1호

□ 소재지 : 옥천면 용천리 303

사나사 대웅전 앞에 자리하고 있는 3층 석탑으로, 기단부와 탑신부, 머리장식을 갖추고 있다. 바닥 위에는 아래층 기단의 맨 윗돌로 보이는 부재가 놓여 있고, 위층 기단과 탑신의 몸들은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의 조각이 있다. 특히 탑신의 1층 몸들을 다른 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만들어놓아 독특한 모습이다. 지붕돌은 윗면에 느린 경사가 흐르고, 네 귀퉁이에서 경쾌하게 위로 들려 있으며, 밑면에는 3단씩의 받침을 두고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만 남아 있다.



용천리 삼층석탑

정창손 묘역 및 석물 일괄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5호

□소재지 : 양서면 부용리 산37-1



정창손 묘역

정창손(鄭昌孫, 1420~1487)은 1426년(세종 8) 문과에 급제하여, 세조 때부터 성종에 이르는 15년간 좌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여러 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중종 때에는 청백리에 선정되었고, 『고려사』 『세종실록』 등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묘비 2기, 문인석 2쌍, 신도비 1기, 석양 1기가 남아 있으나 1970년 도시계획으로 이장

하면서 원래의 모습이 심하게 변하였다. 묘비는 직사각형으로, 윗부분의 양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1506년(중종 원년)에 제작한 것이다. 부인의 묘비는 머릿돌이 조선 전기의 전형양식인 꽃부리 형태로 1456년(세조 2)~1487년(성종 17) 사이에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문인석 2쌍은 모두 조선 전기 양식으로, 관을 쓰고 관복을 입고 있으며, 손에는 홀을 쥐고 있다. 신도비는 받침돌 위에 윗면의 양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비몸을 세운 형태이다. 원래 이 신도비는 1489년(성종 19) 서거정이 글을 지어 세웠으나 후에 파손되어 한준겸이 글을 덧붙여 다시 비문을 써서 복원하였다. 주로 왕릉 주위에 세워두던 석양은 양의 모습을 한 돌조각으로, 조각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다.

익원공 김사형 묘역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7호

□소재지 : 양서면 목왕리 산49

익원공(翼元公) 김사형(金士衡, 1333~1407)의 묘역이다. 김사형은 문신으로,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1397년(태조 5)에는 대마도를 토벌하기도 하였다.

김사형의 묘는 부인 죽산 박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길고 납작한 화강암으로 3단의 둘레 돌을 둘렀다. 묘역에는 묘표, 상석, 향로석, 장명등 각 1기, 문인석 1쌍이 있고 묘역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 입구의 비각 안에 김사형의 신도비가 있다. 사모지붕을 한 장명등은 앞뒤에 창이 넓게 뚫려 있고 양옆은 막혀 있어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묘의 양옆에서 있는 문인석 역시 조선 전기 문인석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수염이 표현된 것이 주목된다.

상원사 철조 여래좌상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 소재지 : 용문면 연수리 산73

상원사 철조 여래좌상은 전체 45cm인 금동 불상으로 불신에 비하여 머리가 크다. 양손은 보수할 때 나무로 만들어 끼워놓았다. 특히 높이 솟은 육계는 조선 전기에 유행한 모습으로 육계 위에 커다란 둥근 계주를 얹어놓았는데 과장된 느낌을 주고 있다. 눈은 중국 명대 불상에서 볼 수 있듯이 눈두덩이가 깊이 들어가고,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 오뚝한 코, 미소를 머금은 입, 삼도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법의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반원형의 주름이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의 양식을 띠고 있다.

제3절 군지정 문화재

이유록 선생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호
- 소재지 : 용문면 조현리 192

이유록(李游祿, 1564~1620)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유지(游之), 호는 동고(東皐), 본관은 전주이다. 1585년(선조 18) 진사,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병조좌랑 등과 광주목사, 봉산군수, 상주목사 등을 역임하며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1617년(광해군 9) 폐모론에 반대, 사직하고 고향으로 은퇴하여 이원익, 정엽 등과 교류했다. 뒤에 여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취임하지 않았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 신도비의 비문은 김상헌이 글을 짓고, 윤문학이 글씨를, 허목이 전(篆)을 맡았다.

조공근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호
- 소재지 : 양평읍 도곡리 산37

조공근(趙公瑾, 1547~1629)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회보(懷甫), 호는 소옹(梳翁),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조공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직서참봉으로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피난하여 영변에 봉안했고, 광해군을 시종(侍從)했다. 그뒤 진원현감, 호조의 민부정랑, 형조 정랑, 옥천군수, 평창군수 등을 역임했으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모신 공으로 위성공신이 되고 한홍군에 봉해졌다. 그뒤 1618년(광해군 10) 인목대비를 폐위하자 병을 빙자하여 사직하고 양근에 은거했다.

묘는 정부인 풍천 임씨와 합장묘로서 높은 호석이 둘러졌고, 묘 앞에는 좌우에 묘비 2기, 중앙에 상석·향로석, 좌우에 망주석·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묘역은 잘 가꾸어져 있다. 왼쪽에 있는 묘비는 원래의 것으로서 높이 130cm, 폭 58cm, 두께 18cm의 크기이며, 묘소에 서 약 200m 지점 아래에 위치한 신도비는 1690년(숙종 16) 4월에 건립되었는데, 비문은 조경이 짓고, 이삼달이 전(篆)했다. 신도비의 재료는 대리석으로 총높이 209cm, 폭 87cm, 두께 26cm의 규모이다.

회현리 충신열녀문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호
- 소재지 : 양평읍 회현리 266

회현리 가소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문화 유씨 가문의 정문(旌門)이다.

충신 유희진은 문화 유씨 18대 손으로 조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함흥판관으로 재임하던 중 왜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당시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원병을 청하였는데, 왜적은 포로가 된 유희진에게 국왕의 거처를 말하라고 갖은 고문을 가하였다. 그러나 유



회현리 충신열녀문

희진은 끝내 굽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혀를 깨물고 자결함으로써 애국충절의 표상이 되었다. 이에 1627년(인조 5) 나라에서는 유희진의 순절을 기려 충신정각을 세우고 현판을 내려 표창하였다. 이 건물 내 상단에 걸린 현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문화 유씨 24대손 유성중의 부인 선산 김씨의 정절 또한 후대에 길이 모범이 될 만하다고 하여 1789년(정조 13) 열녀정려를 내려 표창하였다. 이 건물 하단에 걸린 현판이 바로 그 열녀문이다.

김여지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 소재지 : 강하면 왕창리 산27

김여지(金汝知, 1370~1425) 선생은 여말 선초의 문신으로서 호는 창주(滄州), 자는 자행(子行)이다.

1389년(창왕 1) 문과에 장원한 뒤 정언(正言)·사헌규정(司憲糾正) 등을 역임했고, 조선 태

종 때 장령, 예문관 직제학, 집의를 거쳐 충청도 도관찰사, 대사헌, 공조판서, 예조판서에 올라 호패법을 개정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정조사가 되어 명에 다녀왔고, 1425년(세종 7) 예조판서·좌참찬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묘는 부인 서계 이씨 및 초계 정씨와 합장했는데, 둘레가 높이 135cm의 3단 호석으로 다듬어진 장방형 묘리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묘의 정면에는 2기의 묘비, 상석, 향로석, 좌측에 새로 건립된 묘비, 그리고 문인석, 동자석 등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묘 앞에 있는 묘비 중 작은 것은 1425년(세종 7)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 분묘의 하단에서 중심부까지 둘러싼 3단 호석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초기 묘제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이호민 선생 묘 및 신도비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소재지 : 옥천면 신복리 산247-1

이호민(李好閔, 1553~1634)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수와(睡窩),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1579년(선조 12) 진사, 1584년(선조 1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응교·전한·집의를 거쳐 임진왜란 때는 이조좌랑으로 의주까지 인조를 모시고 간 뒤 명의 장군 이여송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데 활약했다. 부제학으로 명과의 외교 문서를 기초하는 일을 전담했고, 동지중추부사·대제학·예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 2등으로 연능군에 봉해지고, 뒤에 부원군에 진봉(進封)되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영창대군의 즉위를 반대하며 적서의 구별 없이 장남인 광해군을 등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며, 저서에는 『오봉집(五峯集)』이 있다.

묘는 정경부인 양천 허씨 및 파평 윤씨와 합장묘로서 묘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 그리고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대리석으로 된 묘비는 1634년(인조 12)에 건립되었으며, 204cm의 신도비는 1635년(인조 13)에 건립되었다.

심충겸 선생 묘 및 신도비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7호

□소재지 : 옥천면 아신리 산135-1

심충겸(沈忠謙, 1545~1594) 선생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공직(公直), 호는 사양당(四養堂),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서인의 영수 심의겸의 아우이자 명종 비 인순왕후의 동생이

다. 1564년(명종 19)과 1572년(선조 5)에 과거에서 장원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임진왜란 때는 왕을 호위하여 의주로 피난하였으며, 세자 광해군을 호위하여 일본군 방위에 힘썼다. 1593년(선조 26) 호조와 병조의 참관을 겸직하며, 군량미 조달에 크게 활약한 뒤 병조판서에 특진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며, 특히 글씨를 잘 썼고, 저서에 『사양당집(四養堂集)』이 있다.

묘는 정경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묘로서 묘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 그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장방형의 암석 위에 대리석 비신을 세웠는데, 높이 197cm, 폭 87cm, 두께 30cm이다. 비의 전체 부분이 심하게 마멸되고 이끼가 끼서 판독하기 어렵다. 묘역 부근에는 심충경 선생을 제향하는 충익사(忠翼祠)가 있다.

옥천리 당간지주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 소재지 : 옥천면 옥천리 479-4

현재 옥천리 논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본래는 2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하나뿐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일인 경찰서장이 지주 1기를 양평읍 양근리의 갈산으로 옮겨, 황국신민 맹서를 새겨 세웠다고 하는데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지주 1기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기에 이곳에 세워진 대원사라는 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간지주의 높이는 305cm, 폭 50cm, 두께 36cm이다.



옥천리 당간지주

허씨 머느리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9호
- 소재지 : 옥천면 옥천리 729

옥천초등학교 정문 왼쪽 약 100m 지점 도로변에 있는 연대 미상의 석비로, 옛날 허씨 가문의 머느리에 대한 효행비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비의 머리부분은 투구형으로 그 수법은 사실적이며 장방형의 비좌 위에는 연문이 장식되어 있다. 비의 재료는 화강암이며, 높이 150cm, 폭 50cm, 두께 19cm이며, 비문은 마멸이 심하여 전혀 읽을 수가 없다.



허씨 며느리비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 허씨 기문의 며느리가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곤궁한 살림을 하던 중 어느 날 양식이 떨어져 크게 고민했다. 그녀는 개가 먹고 토한 보리쌀을 구해 시아버지의 밥상을 겨우 차릴 수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뇌성과 함께 비가 쏟아지자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비가 그친 뒤 눈앞을 보니 금은보화가 쌓여 있었다. 이후 가세가 융성해지고 효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셔 마을 주민들이 효행비를 세웠는데, 바로 이 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의 형태나 조각 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대략 조선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신 선생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0호
- 소재지 : 서종면 수입리 산401-9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제신(李濟臣, 1536~1583) 선생의 신도비다. 선생의 자는 몽응(夢應), 호는 청강(靑江),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조육의 문인으로 1558년(명종 13)과 1564년(명종 19)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이제신 선생은 시문에 능했고, 글씨를 잘 써 서예가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청강집(靑江集)』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신도비의 몸체 부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건립한 지 400여 년이나 되어 마멸이 심해 관독이 불가능하다. 비의 총높이는 311cm, 폭 93cm, 두께 26cm이다.

보산정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1호
- 소재지 : 단월면 보룡리 산33-2

보산정(寶山亭)은 고려 말 공민왕(재위 1351~1374) 때 무안 박씨의 선조인 간의대부 송림

공이 당시 정계와 왕궁의 혼란을 피해 이곳에 낙향하여 세운 것이 그 기원이라 한다. 이 정자는 1375년(우왕 1)에 창건하고 그뒤 송림공의 6대손 이조참판 박원겸이 공부하는 곳으로, 이후에는 저명한 문사와 애국지사들이 시를 짓고 토론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중건을 거듭하였으며, 현 건물은 1955년과 1974년에 무안 박씨 종중에서 손본 것이다.



보산정

지붕은 팔각지붕에 골기와를 얹은 정면 2칸, 측면 2칸 정방형의 굴도리집으로, 겹처마에 단청을 했다. 정자 주변에는 몇 그루의 노송이 운치 있게 둘러싸여 있으며, 앞쪽에는 전설이 담긴 신비로운 연못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영조 때 이곳에는 무안 박씨 가문의 부자가 살았는데, 노비의 잘못으로 화를 입게 되자 종들을 남김없이 죽이려 했다. 그런데 노비 중 한 사람이 산중으로 도피하여 도사가 되어 죽은 종의 한을 풀고자 하였다. 이곳 연못에 시는 청룡·황룡을 없애려고 소금 100석을 뿌린 결과 청룡은 현재 보산정으로, 황룡은 봉황정으로 각기 가버려 집안이 쇠락하였다고 한다. 뒷날 무안 박씨가 다시 번창해지자 두 용이 다시 이곳 못으로 옮겨오도록 기원하기 위해 박수봉이 건조했다는 전설이 있다.

박원겸 선생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2호
- 소재지 : 단월면 보룡리 337-2

고려 말 공민왕 때 간의대부에 오른 무안 박씨 송림공의 6대손 박원겸(朴元謙, 1470~?) 선

생의 신도비다. 선생의 자는 희익(希益), 호는 향양(恒陽)이다. 일찍이 이 고장 보산정에서 공부했고, 생원시에 합격한 뒤 조선 1514년(중종 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조참판·사에 등을 역임하였다. 신도비는 팔각지붕형의 옥개와 장방형의 비좌를 갖추었고, 비신의 재료는 대리석이다. 비의 건립연대는 1857년(철종 8)이다. 비의 높이는 127cm, 폭 49cm, 두께 23cm이다. '향양각(恒陽閣)'이란 현액이 달린 비각 안에 있으며, 주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유장 양헌수 묘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3호

□소재지 : 단월면 덕수리 산59-3

양헌수(梁憲洙, 1816~1888)는 조선 말기의 무신으로 자는 경보(敬甫),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이항로의 문인으로 가세가 빈곤하여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대과를 기다리지 않고 1848년(헌종 14) 무과에 급제했다. 선전관·참사를 거쳐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는 정족산에 침입한 프랑스 해군을 대파한 뒤 한성부좌윤에 특진되었다. 이후 어영대장, 금위대장, 포도대장 등을 거쳐 1875년(고종 12) 형조판서, 1884년 공조판서를 역임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양헌수는 보수적인 척화론자이며 문무를 겸비한 장군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저서로는 『하거집(荷居集)』이 있다.

묘는 정부인 고성 이씨와 합장묘로서, 묘비 이외에 다른 석물은 없다. 이 묘비는 아들 양주겸(梁柱謙)이 1934년 5월 건립했는데, 묘비의 재료는 화강암이고 높이 131cm, 폭 51cm, 두께 20cm이다.

이춘명 효자정문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4호

□소재지 : 청운면 갈운리 33

조선 고종 때 이 고장 출신의 효자 이춘명(李春明, 1796~1858)은 효령대군의 17대손, 이후해의 3남으로 태어났다. 남달리 천성이 온화하고 효심이 지극한 것은 물론 형제간의 우애 또한 돈독하였다. 그는 부친이 병환 중에 있자 극진한 정성으로 간호하였고,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꿍과 잉어를 잡아 대접하기도 했다. 더욱이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여 숨을 거두려 하자

손가락에 피를 내어 흘러 넣기를 무려 7차례나 하여 1개월이나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부친상을 당한 후에는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어버이에 대한 그의 효행이 나라에 알려져, 1892년(고종 29) 예조에서는 그에게 효자정문을 내려 표창하였다. 현재의 정려는 근년에 보수한 것으로 그 안에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춘명 효자정문

흥은위 정재화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5호

□ 소재지 : 청운면 비룡리 산53

흥은위(興恩尉) 정재화(鄭在和, 1754~1790)는 영조의 제2자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부마로서,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송강 정철의 6대손이다. 1766년(영조 42) 정조와 동복 남매간인 청선공주와 혼인하여 흥은부위(興恩副尉)의 작위를 얻었다. 용모가 출중하고 처신이 신중하여 매부인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36세를 일기로 별세하였고, 소생으로는 2남 2녀를 두었다. 1897년(광무 14) 두 분의 작위가 흥은위와 공주로 추봉되었다.

묘 주위는 석축에 기와를 얹은 담이 둘러져 있었으나 현재는 그 잔해만 남아 있다. 묘 앞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등, 그리고 좌우에는 무인석, 석수(石獸), 망주석 등의 석물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묘비는 없다. 묘역에는 재실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불타버리고 현재는 주변에 기와조각·돌조각만이 산재해 있다.

택풍당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6호

□ 소재지 : 양동면 쌍학리 314

택풍당(澤風堂)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이식(李植, 1584~1647) 선생이 교육



택풍담

강론하던 곳으로, 근년에 보수하여 현재에 이른다. 2층 누각 형식의 특이한 건축물로서, 팔각 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겹처마집이다. 2층 누각에는 뒤틀마루를 달았고, 온돌방 안에는 갓을 비롯한 이식이 사용하던 유품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

쌍학리 효열각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7호
- 소재지 : 양동면 쌍학리 45



쌍학리 효열각

과 학문 연구를 위해 건립한 것이다. 선생의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저서에 『택당집(澤堂集)』이 있다. 그는 당대에 이름난 학자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특히 한문학에 정통하여 조선 중기 한문학 4대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택풍당(澤風堂)은 1619년(광해군 11) 이식이 건립하여 학문을 닦고

이 고장 출신의 효자 방영환(方榮煥), 효부 전이란(全伊蘭)과 이정자(李貞子) 세 분의 효행을 기리고 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양동유림을 중심으로 한 유도회에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3년 10월 준공한 정각이다.

효자 방영환은 모친이 80세에 눈이 멀자 날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10년간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친은 90세에 드디어 눈을 떴다고 한다. 효부 전이란은 26세에 청상이 되었으나 40여 년간 시부모를 지성으로 모셔 효행의 모범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또한 효부 이정자는 25세에 청상이 되었으나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을 뿐만 아니라 7년간 시묘를 하는 등 전통적인 효친사상을 스스로 실천하였다.

의병장 이춘영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8호
- 소재지 : 양동면 석곡리 산97-2

이춘영(李春永, 1869~1896)은 조선 말의 의병장으로 자는 우삼(友參), 호는 괴은(槐隱),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895년(고종 32)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안승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충청도 단양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어 제천으로 향하다가 동지 이민옥의 배신으로 관군의 기습을 받아 충주로 피신, 유인석의 의병부대와 합류하여 활약했다. 그뒤 조령, 달천 등지에서 관군과 일본군들을 격파한 뒤 충주싸움에서 2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추서되었다.

의병장 안승우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9호
- 소재지 : 양동면 석곡리 산11

안승우(安承禹, 1864~1896)는 조선 말의 의병장으로 자는 계현(啓賢), 호는 하사(下沙),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양동면 석곡리 출신이다.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이춘영과 함께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다. 제천싸움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준 뒤 유인석의 휘하에서 들어갔으며 충주싸움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전사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추서되었다.

수곡서원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0호
- 소재지 : 지체면 수곡리 633

수곡서원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화를 당한 대사헌 권경우(權景祐)와 사관 현감을 지낸 치헌 권경유(權景裕) 두 분의 위패를 모신 사우이다. 현재의 건물은 1874년(고종 11)경 건립되었다. 또한 1922년부터 1930년에 걸쳐 다시 공사를 했으며 의



수곡서원

친왕이 “水谷書院”이란 현액을 써서 걸어주었다고 한다.

이 서원은 강당이 앞에 있고 그 뒤쪽에 내삼문, 좌우에 담장을 둘러 사우를 건립했다. “誠敬齋”란 현판이 걸린 강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인데, 중간에 마루를 깔고 좌우측에는 온돌방을 배치했다. 내삼문은 높직한 석축을 쌓고 솟을대문을 달았으며,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내삼

문은 1976년 보수한 것이다. 수곡서원이란 제액이 달린 본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다.

매년 권씨 문중의 주관으로 올리는 제향은 오랫동안 마을의 행사처럼 되어왔고 원근 유림들도 참석하고 있다.

송현리 효자정문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1호

□ 소재지 : 지제면 송현리 813

송현리 산현부락 출신의 효자 최광악(崔匡岳, 1756~1816)과 최병배(崔秉培, 1778~1856)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문(旌門)이다. 이 정문은 1882년(고종 19)에 당시 지평현의 유림 73명이 임금께 상소하여 그해 9월에 건립되었다. 본래의 건물은 한국전쟁 중에 불타버려 최씨 문중에서 1960년경에 중건한 것이라고 한다.

최광악은 8세 때 86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닭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을 하자 동지선 달 엄동설한임에도 밤중에 4km나 떨어진 원산리까지 가서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렸다고 한다. 또 며칠 후 물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을 듣고 독바위의 얼음을 깨고 붕어 3마리를 낚아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한다.

또한 그의 아들 최병배는 부친 최광악이 별세하자 집에서 약 2km 떨어진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시묘를 했는데, 호랑이도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식사 때마다 등에 업어 왕래케 했다는 전설까지 있을 정도로 지극한 효자였다고 한다.

어사대부 이적 묘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2호

□소재지 : 지제면 지평리 산101-22

이적(李勣, 1162~1225) 장군은 고려 고종 때의 무신으로 지평 출신이다. 1216년(고종 3) 서북쪽에 침입한 거란군을 몽탄역에서 격퇴하여 장군으로 승격되었고 경상도안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거란이 재침하였을 때 광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어 공을 세웠다. 그뒤 추밀원 부사, 어사대부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공은 천성이 청렴하고 욕심이 없고 온화하여 기쁨과 성냄을 드러내지 않고 평시에 아무런 담기가 없는 듯하나 적병을 치고 진지에 임하여서는 남들이 미치지 못하는 용맹이 있다. 성품이 검소하여 몸이 귀히 되고 벼슬이 높아도 매우 검소하게 살았다”고 이적을 묘사하고 있다.

배비산 기슭에 위치한 묘역은 약 50평 정도 되며,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다. 나지막한 묘의 봉분 우측에는 묘비, 중앙에는 평상석·향로석, 그 좌우에는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그가 죽었을 당시에 세워진 오래된 것이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할 수는 없다.

세심정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3호

□소재지 : 용문면 덕촌리 산137

세심정(洗心亭)은, 조선 중종·명종 때의 학자이며 조광조(趙光祖)와 김식(金湜)의 수제자로 이름 높던 조옥(趙昱, 1498~1557)이 기묘사화로 이곳에 은거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도학을 강론하던 유서 깊은 정자이다. 조옥은 조광조와 그 문인들이 화를 당할 때 겨우 이를 면하였고, 마침 모친상을 당하여 용문산중에 들어온 것이 그 마을



세심정

이름 퇴촌(退村)의 유래가 되었다. 그리고 1521년(중종 16) 현재의 정자를 건립하여 세심정이 라 하였고, 자신의 집을 세심당이라 하며 학문 연구와 후진양성에만 전념하니 사람들은 그를 용문선생이라 불렀다고 한다.

세심정은 야산 기슭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사면은 울창한 노송과 고목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심정은 6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한 아담한 목조 건물인데, 팔작지붕이며, 안에는 정(井)마루를 깔았다. 한편 이 정자에서 약 30m 떨어진 도로변의 자연석에는 “平壤趙氏世歲洞□”라 써어 있는데, 조옥의 필적이라고 전해온다.

봉황정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4호
- 소재지 : 용문면 광탄리 239-1



봉황정

1624년(인조 2)에 남원 양씨의 선조 이조참의 양응청(梁應淸)과 병사 양응함(梁應涵)이 세운 정자이다. 봉황정(鳳凰亭)에는 ‘구성대(九成臺)’, 또는 ‘남휘정(覽輝亭)’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는데, ‘九成’은 성대한 풍류가 이홉 번 이루어지니 봉황이 와서 춤춘다는 뜻이고, ‘覽輝’는 봉황이 천길을 날다가 덕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내려앉았다는 뜻을 지녔으니 예로부터 풍광이

매우 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정자는 양씨 문중의 교육장으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충장공 양헌수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양성되었고, 이항복·이식·김창흡·이중하 등 명인 재사들의 시화와 풍류가 깃든 글들이 남아 있다. 한국전쟁으로 불타 황폐해진 것을 1966년 양씨 문중에서 옛 규모대로 복원하였다.

택승정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5호

□ 소재지 : 용문면 광탄리 175-3

1830년(순조 30) 광탄리의 양씨 가문에서 본래 있던 활터에다 건립한 정자로, 궁술(활쏘기)을 연마하던 도장이었다. 남원 양씨들은 부근의 봉황정에서 글을 읽고 이곳 택승정(澤升亭) 정자 앞 광장 끝에 과녁을 세워 활을 쏘아 무술을 익힘으로써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어 이 고장을 빛냈다고 한다. '택승(澤升)' 연못가에서 활을 익히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며, 예



택승정

절을 지켜 정자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군자의 도리라는 뜻이다. 건물은 팔작지붕이며, 내부 바닥은 누마루로 되어 있다.

조욱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6호

□ 소재지 : 용문면 덕촌리 산7

조욱(趙昱, 1498~1557)의 자는 경양(景陽), 호는 용문(龍門)·세심당(洗心堂)·우암(愚庵)·보진재(葆眞齋),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조광조·김정의 문인으로 1516년(중종 11) 생시·진시에 합격했으나 기묘사화 때 겨우 화를 면하고 용문산에 은거하며 학문을 닦았다. 그는 시문·서화에 능했으며, 서경덕·이황·김안국 등 당대 명시들과 교유했다. 운계서원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강이며, 저서로 『용문집(龍門集)』을 남겼다.

조욱 선생 묘역은 약 50평으로 묘 우측에 묘비, 중앙에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1745년(영조 21)에 건립했으며, 높이 155cm, 폭 58cm, 두께 31cm이다.

윤승길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7호
- 소재지 : 용문면 조현리 산30-1

윤승길(尹承吉, 1540~161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일(子一), 호는 남악(南岳),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1564년(명종 19) 과거에 급제한 뒤 승문원정자·장령 등 여러 요직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는 병사 모집과 군량미 조달 등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충청도관찰사에 올랐다. 이어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1600년(선조 33) 형조판서 겸 도총관에 올랐고, 이 해 윤승길의 딸이 선조의 7남 인성군과 결혼했다. 1616년(광해군 8) 그가 별세하자 조정에서는 관리를 보내어 장례를 치렀다.

조현리 막골 산기슭에 위치한 묘역은 약 400평에 이르며, 봉분 하단에는 40cm 높이의 호석이 둘러져 있다. 묘는 정부인 금성 박씨와 합장묘로서,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향로석, 그 좌우에는 동자석·망주석·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었다.

숙안공주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8호
- 소재지 : 용문면 화전리 산24



숙안공주 묘

숙안공주(淑安公主, 1635~1696)는 효종의 장녀로서 어릴 때부터 지혜가 총명하여 학문에 능통했고, 인자하고 효성스러웠다고 한다. 1469년(인조 27) 익평군(益平君) 홍득기(洪得箕)와 결혼한 후 예의범절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잘 받들었다고 한다.

궁촌마을 부근에 위치한 숙안공주의 묘는 먼저 별세한 남편과 합장묘로서 봉분의 높이는

1.7m, 상부는 장방원형으로 만들었다. 묘 주위에는 담을 둘렀는데, 장대석으로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60cm 높이로 벽돌을 쌓았다. 묘 우측에는 묘비, 중앙에는 평상석·향로석 그리고 좌우에는 망주석·문인석을 각각 배치했다. 묘비는 팔작지붕형의 옥개와 장방형의 비좌를 갖추었고, 대리석 비신 전후면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묘비는 1698년(숙종 24)에 건립되었는데, 비명은 박세당이 지었으며 높이 146cm, 폭 68cm, 두께 26cm이다.

불곡리 미륵불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9호

□ 소재지 : 개군면 불곡리 11

철쭉산 줄기의 하나인 부처울 마을 산기슭에 위치한 미륵당 안에 있는 석불입상이다.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약 200년 전에 발굴한 것으로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총높이는 309cm이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 한 무명의 대사가 입산수도를 위해 금강산으로 가던 중 목이 말라 웅달샘에 엎드려 물을 먹게 되었다. 이때 물 속에 미륵불의 영상이 나타나며 손가락으로 가리켜, 그곳 땅속을 파본 결과 매몰된 석불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미륵불이 묻혔던 곳에 절을 지어 미륵사라 칭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절은 폐사가 되고 미륵불만 남아 오늘날까지 이곳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상의 옷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전체적인 표현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곡리 미륵불

김자지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0호

□ 소재지 : 강하면 왕창리 산27

김자지(金自知, 1367~1435)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호는 일계(逸溪), 자는 원명(元

明),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고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한 뒤 조선 태종대에 형조참의와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1420년(세종 2) 대사헌에 올랐고, 그뒤 원주목사,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방자한 세도공신을 탄핵하기 위해서 상소를 다섯 차례나 올려서 세인을 놀라게 한 일은 유명하다. 김자치는 학문에 뛰어나 음양, 천문, 지리, 의학, 음률 등에 이르기까지 통달한 준재이고 박학한 학자였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선생의 묘는 정부인 평양 조씨와 쌍분으로, 묘 앞에는 묘비를 비롯하여 상석, 향로석, 망주석 등의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이양우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1호
- 소재지 : 양서면 대심리 산27

완원부원군(完原府院君) 이양우(李良祐, 1346~1417)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완풍대군 이원계의 아들이며, 태조 이성계의 조카이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웠고 1402년(태종 2)에 의정부 찬성사가 되었다. 1408년(태종 8)에는 사은사로 명에 다녀왔고 1412년(태종 12) 완원부원군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안소(安昭)이다.

묘는 부인 선산 박씨와 합장했는데, 높이 150cm의 1단 장대석으로 다듬어진 장방형으로서 묘주위는 근래에 붉은 벽돌로 담을 둘렀다. 묘 정면에는 상석, 향로석 등 그리고 좌우에는 문인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4단이다. 묘 앞 10m 지점에는 화강암의 작은 비가 세워져 있는데 앞면에는 “完原府院君 安昭公之墓”라고 음각되어 있다. 묘에서 약 50m 지점 아래 입구에 위치한 신도비는 1908년(순종 2) 7월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이우면이 짓고 윤용구가 글씨를 썼다.

대석리 지석묘군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2호
- 소재지 : 강상면 대석리 7

이 지석묘들은 대석리 대감마을 진입로에서 약 100m 떨어진 밭두렁에 있다. 형태로 보아 땅 밑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덮개돌을 얹은 남방식이며, 확인된 것은 모두 6기다. 덮개돌은 이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는 화강암질 편마암이며 그 형태는 한강 이남에 나타나고 있는 지석묘의 일반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지배계급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유적으로 미루어 볼 때 남한강에서 약 1.5km 떨어진 대석리 일대는 청동기시대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석묘 6기 중 5기는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나 나머지 1기는 받침돌이 파손되어 흙 속에 묻혀 있다.



대석리 지석묘군

옥천리 삼층석탑 및 유물 일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3호

□ 소재지 : 옥천면 옥천리 1002

옥천리 삼층석탑은 본래 옥정(玉井)의 서남쪽 경작지 부근 탑산리에 있었던 것으로 해방 이후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 양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삼층석탑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하마비(下馬碑)는 본래의 위치가 불분명한데, 완만한 곡선형의 머리부분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하마비에는 “大小人員下馬”라고 새겨져 있어 어떤 장소의 표식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층석탑 옆에 있는 석불좌상과 함께 화강암으로 된 석상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 석상은 양 손끝을 가슴께에 들어올려 맞대고 결가부좌한 자세로 앉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둔중감이 있고 불상도 아니어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나한상(羅韓像)으로 추정된다.



옥천리 삼층석탑

지평리 선정비림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4호
- 소재지 : 지제면 지평리 383-1



지평리 선정비림

이곳은 조선조 때 지평현감으로 부임해 와 선정을 베풀었던 역대 현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선정비(善政碑) 및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로 지제면 일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와 보존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비는 모두 14기로서, 양평의 지방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병산리 돌거북상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5호
- 소재지 : 강상면 병산리



병산리 돌거북상

이 돌거북상은 고려 초기의 석물로서, 고려 태조 왕건이 삼한통합 시기에 공을 세운 이 고장 출신 함규 장군의 전승을 기리고 이 고장의 수호를 위하여 백봉령 승전비와 함께 만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강상면 병산리 산166번지 백병산 왜목터에 있었는데 1986년 12월 도굴범에 의하여 도난당했다가 다시 회수

하여 군민회관 광장에 옮겨 놓았다. 그런데 이 돌거북상을 옮긴 이후 병산리 주민에게 병폐가 발생한다 하여 1997년 강상면 병산리로 다시 옮겨놓았다. 화강암에 조각된 돌거북은 높이 1.24m, 길이 2m, 폭 1.4m이다.

상원사 석조물 일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6호

□ 소재지 : 용문면 연수리 산73

상원사는 고려시대에 창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330년 보우가 이 절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한다. 또한 무학대사가 왕사를 그만두고 잠시 머물기도 했으며, 효령대군의 원찰로 삼기도 했다. 이 상원사 안에는 석사자상과 8각석탑이 있다.

여 백

제6장 양평의 자랑거리

제1절 양평의 명소

제2절 주요 행사와 축제

제3절 양평의 특산물과 음식



여 백

제1절 양평의 명소

1. 계곡

서종면 벽계계곡

양수리에서 북한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뻗어 있는 363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서종면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수대울계곡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문호리다. 문호리의 상류에는 중미산에서 흘러내리는 정배계곡, 청계산에서 흘러내리는 수능계곡이 있다. 문호리에서 정배계곡을 지나 중미산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길은 벚꽃이 유명하다.

북쪽으로 더 가면 가평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수입리가 있다. 수입리는 강물이 마을 앞으로 돌아든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예전에는 무드리라고 불렀다. 수입리의 앞 북한강변에는 무드리나루터가 있어서 동력선이 운행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동력선은 수입리에서 남양주 화도읍까지 수시로 운행되

며, 정원은 12명이다. 나루터 반대쪽에 수입리계곡이 있는데, 수심은 그다지 깊지 않다. 그래서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수입리계곡은 상류로 가면서 벽계계곡으로 이어진다. 상류로 가면서 수심이 깊은 곳도 있어 제법 깊은 계곡을 형성한다. 그래도 물살이 적당하고 물놀이하기에 적합해 피서지로서 손색이 없다. 하천변이 백사장은 아니지만 둥글둥글한 돌이 깔려 있어서, 신발을 신지 않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의 벽계계곡은 통방산과 곡달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이다. 북한



벽계계곡

강변에서 벽계구곡을 따라 6km쯤 들어가면 노문리 벽계마을이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다 간 조선의 선비 이항로 선생의 생가가 있다. 이 생가 앞에 용문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북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벽계천이 흐른다. 이 벽계천 하류를 수입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벽계천 주변의 경승지 9곳을 벽계구곡이라고 부른다. 제1곡은 바깥무드리(외수입), 제2곡은 안무드리(내수입), 제3곡은 정지터(이제신 선생의 옛터), 제4곡은 용소, 제5곡은 별소(자라소), 제6곡은 분설담, 제7곡은 석문, 제8곡은 속사천(속셋마을 앞 살땅), 제9곡은 일주암(갈문마을의 선바위)이다. 또한 노문리 일대의 경치가 뛰어난 곳을 노산팔경이라 하는데, 제1경은 제월대의 밝은달, 제2경은 명옥정의 맑은 바람, 제3경은 묘교봉의 높이 나는 비연, 제4경은 자라소의 뛰노는 고기, 제5경은 분설담의 기암, 제6경은 오자정의 산수, 제7경은 석문의 절벽, 제8경은 일주암의 꽃돌이다. 벽계천에는 세 개의 계곡에서 흐르는 지천이 유입되는데, 청화산에서 발원하여 명달계곡을 흐르는 명달천이 강굽이에서 합류하고, 가마봉에서 발원하여 반곡을 흐르는 반곡천이 섯도리에서 합류하고, 화야산에서 발원하여 능골을 흐르는 미세천이 석바탕에서 합류하고 있다.

옥천면 사나사계곡



사나사계곡

용문산 자락의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사나사계곡이 있는데,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계곡 입구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접근하기 편하고, 사나사까지 계속 계곡이 이어져 물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좋다 하지만, 도로 포장으로 자연의 운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아쉽다. 사나사계곡은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있다.

길 중간에 함왕혈이라는 작은 표석이 있는데, 양근 함씨의 시조인 함왕이 이 구멍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특히 함왕성지 주변 계곡의 풍광이 빼어나며, 계곡 입구에서 사나사까지 이어지는 길은

봄여름에 꽃이 만발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계곡 상류에는 사나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풍광이 빼어나고 깊은 계곡에 있어 호젓하고 한적하며 소박한데 찾는 방문객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부근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이 있는 대부산에서 흘러내리는 큰골계곡이 있는데, 이곳의 상류에는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과 설매제자연휴양림이 있다.

강상면 세월리계곡

세월리계곡은 남한강변의 세월리에서 서북서쪽으로 여주군 경계까지 약 6km 뻗어 있는 계곡이다. 세월리계곡은 바위와 잣나무, 맑은 물, 계곡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바람, 숲속 그늘의 시원함이 찾는 이들을 기쁘게 한다. 물이 맑고 깨끗해서 냇물에 비친 달이 자기 몸을 씻는 것 같아서 세월(洗月)리라고 하였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명의 유래는 좀더 신중하게 그 기원을 찾아보아야 한다. 계곡 좌우로 잣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크고 작은 잣나무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다. 그리고 계곡 내에 세월 낚시터가 있다.

강상면 상촌계곡(대석계곡)

세월리계곡 입구에서 여주 방향으로 용담천을 따라 서남쪽으로 가다보면 백석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4km 정도 뻗어 있는 계곡을 말한다. 상촌계곡은 이곳의 마을 이름을 따서 대석리계곡으로도 부른다. 옛날 불자들이 많이 찾아 쌀 백석을 씻어낸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배사골, 중말, 상촌까지 이어진다. 계곡으로 통하는 길은 좁긴 하여도 승용차가 통행할 정도는 되고, 계곡 곳곳에는 밤나무가 즐비하다.

하천의 폭이 3~5m 정도이고 수량이 풍부하며, 하상의 자갈들이 잘 깔여 있고 곳곳에 물 웅덩이도 잘 발달돼 있어 물놀이를 하기에 제격이다. 물가에는 곳곳에 정자도 잘 만들어놓았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군면 신내천계곡

신내천은 양평읍과 개군면, 용문면과 개군면 사이를 흐르는 하폭 약 150m의 양평군에서 가장 큰 하천이다. 양동면, 청운면, 단월면, 용문면에서 발원한 여러 지류가 모여서 신내천을 이루고,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대체로 수심이 깊지 않아서 물놀이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해마

다 한여름철이 되면 이곳은 유명 해수욕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피서 인파가 북적댄다.

이곳은 수심이 얇고 물이 맑으며 공간이 넓다는 자연적 여건 이외에, 교통이 편리하고 대명콘도, 용천파라다이스 등 대형 숙박시설이 있으며, 수라칭, 신내보리밥, 서울신내해장국 등 유명 음식점도 많아서 인문적인 조건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신내천을 따라 상류로 가면서 삼성리 휴식지, 화전리 휴식지, 다문리 휴식지, 금곡리 휴식지, 팽탄 휴식지, 밤나무숲 휴식지, 밤골 휴식지가 있고, 용문역에서 용문산, 백운봉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에는 학골계곡, 연수계곡이 있으며, 금곡리에서 용문사로 이어지는 골짜기에는 덕촌리 휴식지, 오촌리 휴식지, 신점리 휴식지, 조계골, 용계골이 있고, 이 지류에서 다시 짜리재로 이어지는 계곡에는 조현리 휴식지, 중원계곡 등이 있다. 즉, 신내천 주변은 온통 피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덕촌계곡에는 가톨릭청소년 캠프장이 있고, 상류에는 용문사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와서 편하게 숙식을 해결하고, 주변의 문화유적도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좋다.

청운면 도원계곡

마을 사람들은 도원리를 삼백골이라고 부른다. 산이 깊어 골이 많은데 그 수가 자그마치 300개에 이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원리(桃源里)라는 지명은 옛날 마을에 복숭아나무가 많고 바위 벼랑 밑으로 냇물이 흘러 삼국지에 나오는 무릉도원이라고 정했다가 관에서 지명을 축소시키라고 해서 도원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계곡 물은 시루봉과 성지봉에서 발원하는데, 계곡의 길이는 약 2km 정도이다.

산세가 깊고 잣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이 뺏뺏하다.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풍부하게 흐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하다. 주변에 풍류산이 있고, 봄에는 도로 주변에 벚꽃이 만개하여 상춘객들이 많이 찾는다. 풍류산을 넘어가는 고개가 떡갈고개인데 이를 넘으면 강원도 횡성군이다. 옛날 눈에 갈푼을 뜯어다 거름을 할 때, 고개에 갈푼이 많아 덕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덕갈고개라 하던 것이 현재 이름으로 변했다.

주변에 폐교된 도원초등학교를 활용한 청운인성수련장이 있다. 방은 모두 13개로 성인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로 청소년 수련을 맡아 진행하는데, 산악 훈련, 캠프파이어, 민속놀이, 줄다리기, 제기차기를 비롯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고 있다.

청운면 신론리계곡

신론리계곡은 청운면 용두리 소재지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는 44번 원도 1차선 포장도

로를 승용차로 20분 정도 가다가 신론리마을 이정표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된다. 계곡은 약 8km 정도 이어지는데 하류보다 상류 지역이 풍광이 뛰어나므로 상류로 먼저 올라가는 것이 현명하다.

신론리계곡 상류는 두 개의 지류가 만나면서 계곡 본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갈기산과 풍류산 사이로 흐른다. 예로부터 흙이 많고 뿌리가 굵고 좋아서 갈기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류는 수량이 그리 풍부하지 않지만,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 계곡의 폭은 4m 정도이고, 마을 뒤로는 산림도로가 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강원도로 갈 수 있다.

이외에도 양평에는 많은 계곡이 있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친 몸을 포근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사나사계곡, 중원계곡, 밤나무숲, 연수계곡, 석산계곡, 상촌계곡, 큰골계곡, 정배계곡, 선바위계곡, 명달리, 문호5리, 도장리, 수능리유원지, 밤골유원지, 삼성리유원지, 광탄리유원지, 화전리유원지, 학골계곡유원지, 금곡리 갈지, 덕촌리유원지, 조계골, 다문 6·8리, 조현리유원지, 오촌리유원지 등은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을 흐르는 하천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피서를 즐기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하더라도 이 점을 유념하여 항상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다.

2. 휴양림

중미산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북3리에 있는 해발 834m의 중미산은 산 전체에 침엽수림이 뺨뺨하게 들어차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중미산은 서울 가까이 있지만 인근의 백운산, 유명산, 용문산 등의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강원도 산골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중미산 일대는 수시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신비감을 자아내며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다. 자연휴양림이 있는 중미산 중턱, 농다치 고개에 오르면 멀리 남한강의 물줄기가 내려다보이는데,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림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처럼 경관이 아름답다.

중미산자연휴양림은 1992년에 개장하였으며,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통나무집과 야영장, 산림욕장, 등산



중미산자연휴양림

로, 산책로 등이 있고, 취사장, 캠프파이어장, 오토캠핑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휴양림에는 양평 일대의 특산물인 표고버섯 재배장이 있으며, 유실수를 직접 기르는 과수원,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 현장실습을 시킬 수 있는 자연관찰원도 있다. 숲속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며, 주 계곡에는 삼단폭포가 있어 시원함을 더해 준다.

설매재자연휴양림

설매재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29-1번지 일대에 있다. 휴양림 정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매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옛날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눈 속에서 매화꽃이 피었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 휴양림으로서, 소나무, 낙엽송, 고로쇠, 단풍나무, 철쭉 등이 많이 자란다. 등산로가 유명산과 용문산으로 이어져 있고, 용천계곡과 유명산계곡이 인접해 있어 휴양지로 적격이다.

설매재자연휴양림은 1999년 6월 1일에 개장하였으며,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넓은 자연 속에 산나물, 두릅나물, 취나물 등 각종 나물이 풍부하다. 또한 산 정상에 광활한 고랭지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말농장 회원을 모집하므로 농사 체험과 자연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단체 야유회, 야외 연수교육 등에 적합하고, 서바이벌 게임장 및 유명산 패러글라이딩 활강장, 초보자를 위한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등이 인접해 있어서 야외 레포츠를 즐기기에 좋다.

이곳에는 숙박시설과 몽고빠오, 자연관찰 산책로, 물놀이장, 전망대, 임간 수련원, 운동시설 등과 폭포수, 산림욕장, 야생화 자생지, 더덕 자생지, 두릅 자생지 등이 있다.

산음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에 있으며, 2000년 1월 1일에 개장하였는

데,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낙엽송, 소나무, 삼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 편백나무가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야영장, 등산로, 산책로, 산림체험코스, 산악자전거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교육시설로는 수련관, 숲속 교실, 산림체험시설, 운동장 등이 있다.

3. 수련시설

미리내 청소년수련원

이곳은 가족 모임, 단체행사, 기업 연수, 청소년 수련 등을 목적으로 1999년에 개원하였다. 양평군 지제면 월산리 586번지에 있는 미리내 캠프는 봉미산 자락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해발 200m의 분지 속에 자리잡은 친자연 레저단지이다. ISO 9001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국제 수준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다.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레저 스포츠, 교육 연수 활동



미리내 청소년수련원

등을 위한 실내외 시설이 다양하다. 잔디 축구장, 대운동장, 실외 수영장, 전용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고,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이 있으며, 각 실에는 각종 교육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잔디 언덕, 잔디 운동장, 서바이벌 게임장, 챌린지 코스, 탁구장, 산악자전거, 캠프파이어 시설, 야외 설치조각 전시장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레저 스포츠, 교육 연수 활동 등을 위한 실내외 시설이 다양하다. 잔디 축구장, 대운동장, 실외 수영장, 전용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고,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이 있으며, 각 실에는 각종 교육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잔디 언덕, 잔디 운동장, 서바이벌 게임장, 챌린지 코스, 탁구장, 산악자전거, 캠프파이어 시설, 야외 설치조각 전시장 등이 있다.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은 특성화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다. 개인 단위의 관람, 소규모 그룹 캠프, 단체 캠프 등 다양한 규모의 인원이 본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수련시설은 제1관측실, 제2관측실, 천체 전시실, 방송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명산을 배경으로 수련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 체험 활동과 하이킹 코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제1관측실에는 355mm 대구경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성운·성단·은하를 주로 관측하고, 제2관측실에는 152mm 저분산 굴절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행성과 달의 관측이 이루어진다. 이곳에서는 일반 천문 프로그램과 당일 천문대 견학 프로그램, 자연학습 프로그램 3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학습 프로그램은 자연 체험 활동, 곤충 채집 활동, 모험 체험 활동, 신나는 계곡 물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이 공동체 생활과 체험 중심의 특성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지·덕·체·예의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계발하며, 덕성과 인성을 갖춘 예절바른 생활을 체득함으로써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수련원에는 생활관,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변에 용문산, 유명산이 있어서 경관이 빼어나고 산행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등산 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유형의 수련 활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영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참가 학교의 특별활동이나 특기 적성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미산천문대



중미산천문대

중미산천문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17-1번지의 중미산자연휴양림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공해가 없어서 서울 근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3,000여 개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대구경의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의 분화구, 토성의 띠, 목성의

줄무늬, 성운, 성단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곳은 연중무휴로 개장하며 천문우주학과 출신의 우수한 강사진과 곤충, 자연 강사진이 있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밤에는 별을 관찰하고, 낮에는 휴양림 내에서 삼림욕, 자연생태학습, 곤충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방학중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4. 그밖의 관광명소

두물머리와 느티나무(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는 남·북한강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는 뜻의 옛 지명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곳이며, 결혼 기념사진 촬영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400년 된 장대한 느티나무와 이른 아침 물안개 피는 모습은 가히 압권이다. 1999년 4월, 옛 모습 그대로의 황포 돛단배 2척을 복원 정박시켜놓아 운치를 더하고 있다.

양평 국제천문대(용문면 옥천리)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마련되어,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런 공간이다. 주요시설로는 관측실 2개소 천체 투영실, 천체망원경 분해 조립 및 관측 실습실, 천문우주 전시실 등이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주변 경관도 뛰어나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소리산(479m)

산음리와 석산리를 에워싼 산으로, 높지는 않지만 골이 깊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암괴석, 맑디맑은 개울로 옛부터 산음리 소금강이라 일컬어질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 가족단위의 등산객이나 야영객에게 적합한 지형이다. 매년 3월 고로쇠 축제가 열려 점점 더 유명세를 얻고 있다.

제2절 주요 행사와 축제

양평군은 1999년 이후 친환경적인 양평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군 행정당국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

1999년 6월부터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가 개최되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개막행사로 중미산자연휴양림에 마련된 무대에서 임헌정 지휘로 거향된 뉴서울 필하모닉 협연의 '숲속의 음악회'에는 2,000여 명의 서울시민과 3,000여 명의 양평군민이 운집하였다. 물 문제로 야기된 정서적 편차를 씻어내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양평 은행나무 축제

1,200년 수령의 용문산 은행나무의 안녕을 기원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체험행사가 4일간의 일정으로 매년 10월에 개최된다. 용문산관광지 등에서 진행되며 기념식, 영목제, 용문산 전통예술제, 동춘서커스, 노래자랑, 친환경농산물판매전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산림청의 숲속 문화체험 행사 개최

산림청은 전국 자연휴양림을 순회하며 '청소년 숲속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 첫 행사가 2001년 5월 27일에 양평군 옥천면 신북리 중미산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숲속 걷기·시 낭송회·음악회·나무 가공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산더덕 캐기 축제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기슭에서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더

덕 캐기 축제'가 열렸다. 해발 300~400m 부근 10만 평에 심은 5년생 토종 산더덕(평균 지름 1~3cm, 길이 10~20cm)을 캐는 이 축제에서 '용문산 산더덕 영농조합법인'은 참가자들에게 팽이와 장갑·더덕 담은 봉지를 나눠주었다. 또한 더덕을 캐는 요령과 더덕의 약효·요리법·보관방법 등도 알려주었다.

메뚜기 잡기 행사

수도권 시민들에게 메뚜기 잡을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의 찌든 삶에 청량감을 줌과 동시에 옛 정취를 물씬 맛보게 했다. 한편, 양평군민이 맑은 물을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한 결과, 자연생태계가 좋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있는 것을 대내외에 부각시켜 친환경산물 생산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평군의 주요 축제는 다음과 같다.

양평군의 축제

	행사명	장소	행사내용	주최(주관)
2월	해동화제	강하 항금리 마을	· 동해 태우기 · 제사 · 풍물패놀이 · 떡 나눠 먹기	강하면 해동화제 추진위원회
3월	고로쇠축제	단월 석산리 불래울 (다목적 광장)	· 고로쇠 시음회 · 소리산 등산대회 · 향토 민속놀이 시연 및 경연회 · 토산물 먹거리 장터 및 전시 판매 · 가족과 함께 장승 만들기 및 휘호 쓰기	단월면
4월	향토마을축제	청운면 신론리	· 장승제, 고전무용 · 연예인 초청공연 · 먹거리장터 운영 · 토산품 및 농산물 판매 · 송어회 무료 시식 · 인절미 만들기 등	향토마을추진위원회

	행사명	장소	행사내용	주최(주관)
6월	맑은물 사랑예술제	용문산관광지	· 맑은물사랑 콘서트 · 숲속의 음악회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
	양평 이봉주 마라톤대회	강상체육공원	· 풀코스, 하프코스, 10km, 4.2km(건강달리기) · 이봉주 퀘싸인회 등 부대행사	양평군 (주)경인일보
10월	양동 알밤 축제	양동면 일대	· 알밤줍기 행사 · 국악 공연, 줄타기 등 행사	양동면
	메뚜기 잡기 축제	양서면 일대	· 메뚜기 잡기 대회 · 환경농산물 판매 및 홍보 · 사생대회	양서면
	백운문화제	군민회관 등	· 용문산령제례 · 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 국악공연	
	은행나무 축제	용문산 국민관광지 등	· 기념식 · 영목제 · 용문산 전통예술제 · 동춘서커스, 노래자랑 등 · 친환경농산물판매전	양평군

제3절 양평의 특산물과 음식

양평군의 특산물은 양평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는 환경농산품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농산품은 개별 농민들이 생산하기보다는 농민들이 작목반을 조직하고 협동하여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며, 23개의 작목반에서 15종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중

에서 가장 많은 것이 버섯류인데 9개 작목반에서 3~5종류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의 특산물 중에 가장 이름이 알려진 것은 개군면의 거세한우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경기도의 1지역 1명품에 선정되었다.

양평군의 특산물과 이를 이용한 음식은 다음과 같다.

양평군의 권역별 특성화 농산물

읍면	작목반명	특산물	특성
양평읍	봉상상치	상치	청정지역 상치
옥천면	옥천영지	영지	1회종균 3년생산
강상면	강상오이	오이	저농약 재배
	강상표고	표고	양질의 표고
강하면	강하표고	표고	고품질 표고
양서면	양서배	배	당도·저장성 양호
	청계산느타리	느타리	무공해환경농산물
	양서표고	표고	무공해환경농산물
서종면	서종표고	표고	고품질 표고
	용문산산터덕	산터덕	뛰어난 향과 맛
	서종갓	갓	국민건강식품
용문면	용문은행	은행	고품질 은행
	용문산과수	배	당도가 높은 배
	용문시설원예	취나물	향기가 진함
개군면	초우회	개군한우	품질인증축산물
단월면	소리산산채	참나물	품질 우수
	용문산산채	취나물	참취, 향이 우수
		한봉꿀	자연 토종꿀
청운면	청운느타리	느타리	무공해 농산물
	청운수박	수박	무공해 농산물
양동면	거따니고추	고추	자연사 고추
지제면	지제느타리	느타리	무공해 식품
	수곡버섯	느타리	성인병 예방

1. 거세한우와 이를 이용한 음식

개군 한우



양평군의 특성화 품목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명도를 얻고 있는 특산품은 개군 한우이다. 개군 한우는 한우 작목반을 중심으로 사육된다. 개군 한우는 한우개량단지에서 고급육 생산 자질이 있고, 혈통이 우수한 비육 밀소(생후 4~5개월경)를 구입하여 외과적 수술방법에 의해 거세를 실시하여 환경호르몬이나 항생제를 배제한 깨끗

한 사료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사에는 톱밥을 깔아서 소가 배설한 분뇨가 우사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출하된 소는 도축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육가공 업체에서 위생처리 과정을 거쳐 부위별로 정형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개군 한우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1등급만을 생산하며, 소 특유의 냄새가 없고 육즙이 풍부하며 육질이 부드러워 맛이 좋다.

서종 한우

양평의 거세한우로는 개군 한우 이외에 서종 한우도 유명하다. 서종 한우는 우량 밀소를 골라서 한 달 동안 특별히 제작된 송아지 방에서 기른다. 환경변화와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목장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구입 후 한 달이 지나면 거세하고 중송아지 방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육성을 한다. 한우는 초식동물로 충분한 풀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풀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부족한 것은 암모니아 가스로 처리한 볏짚으로 보충해 준다. 배합사료는 철저히 제한 급여를 실시하며 각종 미량 요소와 활성탄, 황토 등을 계속적으로 첨가하여 사육한다.

거세우 모듬구이

이렇게 양질로 생산되는 개군 한우와 서종 한우는 생육으로 판매되거나 각종 요리의 재료

로 사용된다. 특히 개군 거세한우의 특수부위를 골라 야채 및 소스와 함께 조화시킨 '거세우 모듬구이'는 경기도 특색음식으로 선정되기도 하여 양평의 간판음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평해장국

양평 한우는 근래에 와서 더욱 개량되고 발전된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도 유명하였다. 소의 내장과 선지를 주재료로 한 양평해장국은 한양 장안에까지 소문이 났는데, 서울의 한량들은 겨울에 한강의 얼음길을 이용하여 양평해장국을 주문하여 먹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에도 양평해장국은 명성이 자자하여, 전국 어디에나 '양평해장국'이라는 식당이 즐비하나 대부분은 양평 한우의 내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소의 내장과 선지를 주재료로 한 해장국이라는 의미다.



2. 용문산 은행과 이를 이용한 음식

용문산 은행

'양평' 하면 예로부터 용문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또 용문산 하면 '은행나무'라는 식으로 용문사 경내의 은행나무는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1,100년 동안 용문산을 지켜왔으며, 그 씨앗들이 퍼져 오늘날 용문산 주변의 은행나무로 성장하였다. 은행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명약으로 알려져 왔고, 은행잎은 최근 양약에서도 천식, 심장질환, 류머티스, 노화방지, 혈액순환 개선제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용문산 은행은 1읍면 1명품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화가 추진되어 용문면 지역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다.

용문산 은행막걸리



용문면 지역에서는 예부터 옥로수로 빛은 용문산 막걸리가 유명한데 은행을 복합재료로 이용하여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용문산 은행주'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은행은 예로부터 불에 구워 한 번에 4~5개씩 먹으면 성욕 감퇴, 뇌빈혈, 신경쇠약, 전신피로에 효과가 탁월하며, 폐결핵 환자나 천식환자가 오래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가래가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은행막걸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양평군 은행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용문산 일대에서 많이 생산되는 더덕을 첨가하여 더덕의 그윽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더덕막걸리도 생산되고 있다.

3. 채소와 이를 이용한 음식

강상 오이



오이는 수분을 90% 이상 함유하고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게 하여 몸을 맑게 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다. 양평의 오이는 강상 오이 작목반에서 양평의 지역특산물로, 키토산 농법, 혈성발효법, BMW 순환농법 등을 활용하여 재배한다. 강상 오이는 내병성이 강하고 맛이 좋으며, 색상이 우수하고 다량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평 상추

양평군에서 친환경적 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소로는 상추와 오이를 들 수 있다. 양평 상추는 양평읍내의 '양평 유기농 작목회'에서 특산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화학비료나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돈분 및 우분을 짚과 왕겨 등과 배합해 6개월 이상 장기 숙성시킨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하고 있다.

양서 고추

양평에서 재배되는 양서 고추는 화학 합성 농약과 작물 생장 호르몬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농산물이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유기재배 표시 사용허가를 받았다. 먹이사슬에 의한 천적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진딧물 방제에 무당벌레와 진디벌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현미 식초, 목초액, 야채효소, 숯 등을 수시로 작물에 살포하여 예방 위주로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다.



강하 부추

부추는 채소로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쓰이며, 카로틴, 비타민 B₁, B₂,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리며, 칼륨, 칼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다. 양평에서는 강하면과 양동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농약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키토산을 1회 이상 살포하여 생산한다.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상시 생산이 가능하고, 무농약 무병해 재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농약 생산필증과 키토산 농법으로 생산된 안정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양평의 야채를 이용한 음식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상추, 오이, 고추, 부추 등은 모두 친환경농법으로 지배하여 건강에 좋고 맛있는 고급품질이다. 상추를 주재료로 한 음식 중, 양평지역의 상추농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상추부겉절이'와 '상추 쌈밥'이다. 이것은 양평군의 토속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두루 먹던 상추 겉절이를 약간 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추의 잎사귀는 나물, 김치, 부침 등으로 만들어 먹고, 부추잡채, 부추장떡, 부추비빔밥 등을 만들어 먹는다. 약으로 쓸 때는 잎을 달이거나 즙을 내서 먹는다. 한약재로 쓸 때는 씨를 말려서 사용하기도 한다. 부추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평지역에서는 당근, 호박, 양파, 표고버섯에 쇠고기 채 썰은 것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고 있다. 오이는 오이맵국이나 오이장아찌를 만들었으며, 고추는 같은 철에 나는 호박 등과 고추전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았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음식을 만들기는 하지만 전문화되거나 특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식재로서 활용되고는 있으나, 전문화·특성화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양평산 야채의 특성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양평의 친환경적 농산물을 세트로 하는 음식상 차리기 등 식품 소비시장에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홍보가 필요하다.

4. 산채·약초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용문산 왕둥굴레



용문산 왕둥굴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노지 재배를 통해 콩, 들깨, 팥 등 기타 작물과 간작으로 재배하고 있다. 왕둥굴레는 나리과에 속하는 속근성 다년초로서 약재 및 식품으로 사용하며 싹이 올라올 때, 대나무순같이 올라온다 하여 일명 옥죽이라고도 한다. 양평에서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재배한 왕둥굴레 종근을 전국 각처에 분양

하고 있다.

둥굴레는 오래 전부터 자양강장약으로 많이 쓰여졌으며, 현재 둥굴레는 차의 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둥굴레는 뿌리·잎·꽃 등을 모두 쓸 수 있는데,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

과 화훼용 그리고 공업용으로도 활용한다. 식용으로 쓸 것은 굵고 좋은 것을 골라 포장하여 시장에 출하하고, 약용은 뿌리를 20~30분간 찌서 그늘에 7~14일 정도 말린 다음 약용으로 판매한다.

강하 동충하초

양평지역에서는 동충하초도 재배하고 있다. 동충하초는 곤충에서 자라는 버섯으로서 동물성인 기주와 식물성인 자실체(버섯)로 이루어진 신비한 버섯이다. 양평 강하에서 재배되는 동충하초는 세심한 주의와 함께 양평의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있어 그 효능과 효과면에서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충조전압탕

동충하초는 탕을 내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활용한 충조전압탕이 대표적이다. 충조전압탕을 만들 때는 말린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쓰는데 스테미너를 좋게 해주고 특히 기관지 천식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충조전압탕 외에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로 약술을 담궈 먹기도 한다.

서종 산더덕

양평지역의 대표적인 산채식물은 산더덕이다. 용문산 산더덕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서종 산더덕은 산에다 더덕 씨를 뿌려 재배함으로써 자연산 산더덕과 같이 향과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서종 산더덕은 맛과 향기가 좋고, 약효도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채취할 시기에는 현장체험도 하면서 맑은 공기에 고유의 산더덕 향내를 맡을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더하고 있다.

서종 산더덕은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함은 물론이고, 수십 년 묵은 산속의 풍부한 유기물을 먹고 자란 까닭에 향이 진하고 약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용문산 산더덕 영농조합에서는 서종 더덕을 이용한 음



식으로 산더덕 양념구이와 산더덕 튀김을 추천하고 있다.

서종 산더덕 또한 재배에 중점을 두어, 이를 이용한 음식이나 제품 개발에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더덕은 약용으로서는 인삼 못지않은 가치가 있으므로 건강식품이나 약품으로서 제품 개발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서종 잣

서종지역에서는 더덕 이외에 품질 좋은 잣도 생산되고 있다. 잣은 작목반이 아닌 개인이 재배하고 있다.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 잣나무에서 수확한 서종 잣은 순수 토종잣으로 맛과 향이 독특하고 건강증진에 효과적이어서 양평군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옛날부터 잣은 자양강장제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병후 회복기에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한다. 잣은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기는 하나 비만방지, 미용효과, 심신강화의 3요소를 갖추고 있다. 높은 나무와 깊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고 그야말로 자연조건에 맞추어 결실을 맺는 자연농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잣을 활용한 음식물로는 마른 구절판과 잣죽을 들 수 있다.

5. 버섯과 이를 이용한 음식

느타리버섯

지제 수곡 느타리작목반은 새로운 재배 방법(툽밥 등을 이용한 봉지 또는 병 재배 방법)을 통해 기계 설비를 갖춘 농장에서 느타리버섯을 계획 생산·계획 출하하려 한다. 이 유형은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병 재배 버섯 연구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선선하고 영양가 있는 버섯을 재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느타리버섯은 아미노산, 당류 및 비타민류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며, 항암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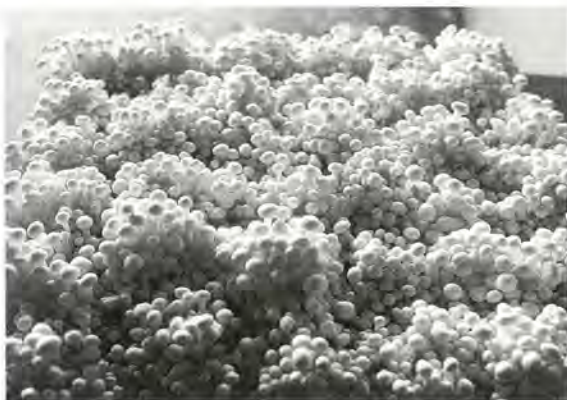
표고버섯

서종면 송골 표고버섯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청계산 기슭에서 완전 무공해참나무의 원목을

사용하며, 버섯 질을 위해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고버섯은 항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 작용, 혈압 강하 작용도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소비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팽이버섯

강상 팽이버섯 작목반에서는 무농약, 이온청수기능법을 활용하여 버섯을 연중 재배·생산하고 있으며, 종균 등 모든 방법이 첨단화되어 있다. 특히 균상 재배되는 팽이버섯은 다른 동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아미노산과 당류 및 비타민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노화방지, 미용, 혈액순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저칼로리 다이어트, 각종 성인병, 변비 등에 좋다고 한다.



신령버섯

개군면 내리 철읍산 농장에서 생산하는 신령버섯은 아가리쿠스라 불리기도 하는데, 1998년에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재배에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령버섯은 대가 양송이보다 굵고 길며 향기가 진하고, 육질은 달고 씹는 맛이 좋고 살구씨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령버섯은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환이나 증세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어 식용으로 요리하여 먹기보다는 약용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버섯을 이용한 요리

양평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버섯을 선진적인 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한 음식이나 제품개발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팽이버섯은 주로 각종 전골에 넣어 먹거나 로스구이 등을 할 때 함께 구워먹는다. 표고버섯은 조미작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찌개류나 전골류 그리고 국 등에 조금씩 넣는다. 또한 표고

버섯을 만두 속에 잘게 썰어 넣으면 향과 맛을 더욱 좋게 해준다. 이처럼 활용 방법을 연구·개발하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제면 수곡 느타리작목반에서는 느타리 버섯을 이용한 요리로 버섯잡채밥, 느타리버섯국, 느타리버섯불고기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한다. 특히 양평군과 같이 버섯을 지역 특산품으로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추진할 가치가 충분하다.

버섯김치의 개발과 좌절

양평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최고의 히트 상품은 버섯김치였다. 버섯김치는 1999년 양평농산연구소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하였다. 버섯김치는 버섯의 자연 그대로의 맛이 살아 있도록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천연 양념만으로 조리함으로써 버섯류 고유의 영양성분이 살아 있게 한다. 동시에, 채소류로는 양평에서 무공해로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식품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2000년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명품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버섯김치의 생명은 길지 못하였다. 경영 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에 비해 하나의 식품으로 정착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6. 과일과 과일 가공식품

배와 포도

양서면 양수리에서는 팔당호변의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서 배와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배수가 양호하고 관개가 용이하여 가뭄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맑고, 일조량도 풍부해서 배와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적지다. 화학비료는 소량만 사용하고, 대부분 퇴비를 자체 생산하여 연중 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포도즙과 배즙

포도즙은 생혈·조혈 작용을 하는 미용음료이자 알칼리성 식품으로, 소화기능 정상화와 여성미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가 듬뿍 들어 있다. 또한 각종 질환에 대한 민간치료제로서 탁

월한 효능이 있다. 배즙은 기침이나 가래 해소, 어린이의 천식에 특효가 있으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할 때 마시면 좋다. 여름철에 음료 대신 차게 해서 복용하거나 과음한 다음 날 마시면 갈증 해소에 좋고, 근육통, 두통, 고열 등에도 효과가 있다.

배즙이나 포도즙 식품은 모두 초기적인 제품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양평지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며 이웃지역의 기술을 모방하여 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양평지역의 특징인 친환경적인 과수 농업에 의한 과일의 특징을 과수별로 연구하여, 그것을 살리는 제품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7. 그 밖의 농산가공품

된장과 간장

용문면에서는 수진원, 광이원, 장골식품 등에서 우리나라 재래식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고 있다. 콩과 된장, 간장의 특징점은 각 회사마다 다르다. 이들 회사들은 양평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햇콩만을 사용하고 1년 이상 숙성 발효시킨다. 우리나라 전통 재래식 된장은 항암효과와 혈전용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양평지역의 장도 우리나라 전통된장으로서 이러한 효과가 있다. 다만 양평의 된장과 간장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고하게 발견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양평한과

양평한과는 약과와 유과, 강정을 제조하며, 삭히는 과정에서 다른 한과들과 차별화된다. 양평한과는 현재 전통적인 한과를 복원하여 초보적인 상품화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한과 개발과 개발 방법의 기계화 및 합리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양평의 역사와 문화

발행일 : 2005년 12월

발행처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원고집필 : 온현정(한국향토문화연구소)

표지·본문디자인 : 이현주

기획편집 : (주)역사만들기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1

양평문화원 (031)771-3866

